

Name _____

Learn to Read the Bible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성서를 읽는법을 배우자!

ACTS SEMINAR

Workbook 학습 교과서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in the future there is laid up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to me on that day; and not only to me, but also to all who have loved His appearing. (2Tim 4:7-8)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7-8)

Korea Bible Education Centre
www.korbible.net

Foreword

Acknowledgements

This workbook is produced by the Christadelphians in Korea, who operate the Korean Bible Education Center. It is hoped that this Seminar Workbook will help you understand the bible better and provide you with some answers to some of the important questions about life including: Where Did I come from? Why am I here? What is God's Purpose? What are the promises God made? What lies in store for the future? For information on how to attend one of our free Bible Seminars in Korea, please visit our website - www.korbible.net

The contents of this workbook have largely been drawn from the Christadelphian Sunday School Association (CSSA)'s Intermediate Notes –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We thank the CSSA (www.cssa.asn.au) for their kind permission in allowing us to use their notes as the basis for this parallel English-Korean Acts Seminar Workbook.

Thanks particularly to Brother Joseph Roe (노윤철) for his labor in translating these notes into Korean.

About Christadelphians:

The Christadelphians are a small religious body who have attempted to get back to the faith and character of the early Christian church in New Testament times. The name 'Christadelphian' has been in use for about 150 years. It comes from two Greek words and mean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Matthew 23:8; Colossians 1:2; Hebrews 2:11).

We are located in over 120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with large groups of Christadelphians in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New Zealand, North America, India, Asia and Africa. Like the early Christians, we meet in homes, rented rooms and, in some cases, our own halls. (Acts 1:13-14; 2:46-47; 18:7; 19:9; 28:30)

We are a lay community patterned after first century Christianity. Each congregation is called an 'ecclesia' (the Greek New Testament word for church). We have no paid clergy or church hierarchy. Members of each congregation are addressed as 'brother' or 'sister', and all are involved in organising our activities. All members contribute their time and energy voluntarily in service to God. A strong common belief binds our brotherhood together. (Romans 12:4-8; 1 Corinthians 12:4-27; Galatians 3:28)

We accept the Bible as our only guide and believe it to be the inspired word of God. (2 Timothy 3:16-17; 1 Peter 1:10-12)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Christadelphians in Korea, please visit our website – www.korbible.net, or contact:

Matthew Jamieson: mkjamieson@gmail.com

Tom Webb: tomattti@gmail.com

차례



제 1 단원	사도들 - 그리스도를 증언하다 - 사도행전 1 장 -----	Page 6
제 2 단원	우순절 - 사도행전 2 장 -----	Page 14
제 3 단원	앓은뱅이를 고친 베드로 - 사도행전 3 장 -----	Page 26
제 4 단원	사도들이 산헤드린의 재판정에 서다 - 사도행전 4 장 -----	Page 36
제 5 단원	그 나라를 위한 순교자: 스테반 - 사도행전 6,7 장 -----	Page 44
제 6 단원	복음의 그물망이 널리 퍼지다 -- 사도행전 8 장 -----	Page 56
제 7 단원	사울이 개종하다 - 사도행전 9 장 -----	Page 66
제 8 단원	이방인 중에서 첫째로 - 고넬료 - 사도행전 10 장 -----	Page 76
제 9 단원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 - 사도행전 12 장 -----	Page 85
제 10 단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 사도행전 13 장 -----	Page 92
제 11 단원	갈라디아 지방에서 박해를 받다 - 사도행전 14 장 -----	Page 100
제 12 단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다 - 사도행전 16 장 -----	Page 110
제 13 단원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 - 사도행전 17 장 -----	Page 120
제 14 단원	에베소에 소동이 벌어지다 - 사도행전 19 장 -----	Page 130
제 15 단원	에베소 사람들에게 작별인사를 전하는 바울 - 사도행전 20 장 -----	Page 138
제 16 단원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 - 사도행전 24,25,26 장 -----	Page 146
제 17 단원	난파 - 사도행전 27 -----	Page 156
제 18 단원	바울이 로마에 가다 - 사도행전 28 -----	Page 164
제 19 단원	침례 - 로마서 6 장 -----	Page 174
제 20 단원	돌아오실 왕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에베소서 6 장 -----	Page 182
부록	-----	Page 193

TABLE OF CONTENTS



Section 1	The Apostles - Witness for Christ - Acts 1 -----	Page	7
Section 2	The Day of Pentecost - Acts 2 -----	Page	15
Section 3	Peter Heals the Lame Man - Acts 3 -----	Page	27
Section 4	The Apostles on Trial Before the Sanhedrin - Acts 4 -----	Page	37
Section 5	Stephen: Martyr for the Kingdom - Acts 6&7 -----	Page	45
Section 6	The Gospel Net Widens - Acts 8 -----	Page	57
Section 7	The Conversion of Saul - Acts 9 -----	Page	67
Section 8	Cornelius: The First Gentile Convert - Acts 10 -----	Page	77
Section 9	Peter Escapes From Prison - Acts 12 -----	Page	85
Section 10	Paul and Barnabus Turn to the Gentiles - Acts 13 -----	Page	93
Section 11	Persecutions in Galatia - Acts 14 -----	Page	101
Section 12	Imprisoned at Philippi - Acts 16 -----	Page	111
Section 13	Thessalonica, Berea and Athens - Acts 17 -----	Page	121
Section 14	Riot at Ephesus - Acts 19 -----	Page	131
Section 15	Paul's farewell to the Ephesians - Acts 20 -----	Page	139
Section 16	Paul's Defence Before Rulers - Acts 24,25,26 -----	Page	147
Section 17	Shipwreck - Acts 27 -----	Page	157
Section 18	Paul Goes to Rome - Acts 28 -----	Page	165
Section 19	Baptism - Romans 6 -----	Page	175
Section 20	How to be ready for the coming King - Ephesians 6 -----	Page	183
Appendix	-----	Page	193

제 1 단원

사도들 - 그리스도를 증언하다

“...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11

읽을 말씀: 사도행전 1 장

공부할 목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임무가 이제는 사도들에게 부여되었다. 이번 단원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도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배경을 살펴보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절망감에 빠져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으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생명의 주’가 되셨다. 예수께서는 500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참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셨다. 또한 사도들을 위로하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해 주셨다.

사십일 동안 가르치심 (1:1-5)

예수께서는 부활 후 40 일 동안 함께 하시며 “사도들에게 교훈을 내리셨고 (사도행전 1:2)”,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으며 (누가복음 24:45)” 자신을 따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사도들은 에클레시아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했는데, 예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배우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여러 증거를 통해 보여주셨다. “확증”이란 분명한 증거 또는 확실한 증명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던 것도 이러한 증거들 중에 하나이다.

예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으며(사도행전 1:3) 제자들로 하여금 그 나라에 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또한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명하셨다 (누가복음 24:49, 사도행전 1:4).

그리스도의 증인들 (1:6-8)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올라가실 날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이끌고 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사도행전 1:6)”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느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과거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임을 믿고 있었다. 제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곧바로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 만이 아시는 것이며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했다. 사도들은 온 세상으로 나가 이 증거를 전해야 했다. 그들이 증거해야 할 지역은 다음과 같았다.

- 예루살렘 지역 (사도행전 2 장에서 7 장까지의 기록)
- 유대 지역 (사도행전 8 장, 9:32-43)

SECTION 1

The Apostles – Witness for Christ

“... this same Jesus shall so come in like manner as ye have seen him go into heaven” Acts 1:11

READING: Acts 1

OBJECTIVE

The apostles were given the responsibility to continue the work of Jesus Christ on earth after he ascended into heaven. This lesson explains Christ's final instructions and commission to his disciples which was followed by his ascension. It shows the importance of the teaching of the resurrection. The lesson concludes with the apostles being established for the work ahead.

BACKGROUND

When Jesus had been crucified all his disciples had fled in despair. Three days later he had arisen from the dead, the Lord of life - alive for ever more. He showed himself to over 500 of his followers and convinced them all that he was indeed Christ risen from the dead. He then gave his apostles instruction and comfort for the work ahead.

FORTY DAYS INSTRUCTION (1:1-5)

Over the next 40 days he gave *“commandment unto the apostles”* (Acts 1:2), *“opening their understanding”* (Luke 24:45) and explaining to them more fully the way they should follow him. This was essential since they were to be the leaders of Christ's ecclesia. None of us can do God's work unless we have learned the principles of God's Word. He was able to give them signs that he was indeed the Christ. The phrase *‘infallible proofs’* means a sure sign or positive proof. This included his appearance to Thomas when he showed him his hands and his feet.

Jesus Christ also spoke to his apostles *“of the things pertaining to the Kingdom of God”* (Acts 1:3), so that they would have a vision of the kingdom ahead. Christ commanded them to remain in Jerusalem until they received the Holy Spirit to help them in their work (Luke 24:49, Acts 1:4).

WITNESSES FOR CHRIST (1:6-8)

Finally the day came for Jesus Christ to ascend to his Father's right hand. As Christ led them out to the Mount of Olives, his disciples asked him, *“Lord wilt thou at this time restore again the kingdom to Israel?”* (Acts 1:6). They believed that Christ would restore the kingdom of God that existed in the past and reign from the throne of David in Jerusalem. They hoped this would happen immediately. Christ told them that the *“times”* (period) and *“seasons”* (specific date) were known only to the Father, not to him (his Father was still greater than him). In view of the great work ahead the apostles were to receive the Holy Spirit to help them to be witnesses for Christ. Their work would expand into all parts of the earth. They would be witnesses in:

- Jerusalem (as seen in Acts 2 to 7)
- Judaea (Acts 8; 9:32-43)

- 사마리아 지역 (사도행전 8 장)
- 땅끝까지 펼쳐진 지역들(사도행전 13 장에서 28 장까지)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런 일들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한 일들이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도래한다는 사실과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매우 열정적이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먼저 전했고 다음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전했으며, 나아가 모든 민족과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열심을 다했다.

우리 삶의 근본 방침 -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현현'이란 바로 이러한 기본 방침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현현'이셨다 (요한복음 1:14).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충만해 있다면, 우리도 예수께서 그랬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 (마태복음 5 장). 우리는 침례를 받으려 할 때,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주변에 밝히 전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져야 하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침례를 받고자 한다면, 어떤 삶을 살겠노라고 스스로 다짐함과 동시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다 (1:9-11)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누가복음 24:51), 예수의 몸이 들려 올라가기 시작했고 결국은 구름이 그를 감싸 보이지 않게 되었다. 누가는 예수의 승천을 지켜보는 사도들의 놀란 모습을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사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의 임무는 종료되었다. 그리고 그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약속의 말을 전했다. 천사들이 전한 이 말은 11 절에 기록되어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래와 같이 다시 오실 것이라 하였다.

- 형체를 가진 분으로 ("이 예수님께서서는...")
-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본 그대로")
-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 (스가랴서 14:3).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자들의 소망이 되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시기가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25 강을 참조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더 큰 소망을 가진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 성서는 이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성서에서 수 백 번 언급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서의 기본 가르침이다. 만약 재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오시는 목적은 다니엘서 2 장에서 말하고 있는 '작은 돌'의 능력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기 위해 오심이 그 첫째 목적이고, 다음으로는 평화의 왕(이사야 9:6)이 되어 다스릴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다. 사도들은 사도행전의 여러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말하고 있다.(2:35, 3:19-21, 17:31). 성서의 다른 책에도 이것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4:14-17, 5:1-4, 디모데후서 4:8, 고린도전서 15:23)

- Samaria (Acts 8)
-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Acts 13 to 28)

You can see that the mission that Christ gave them is also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Acts, which records this great work of witnessing. They were so enthusiastic about the gospel that they followed Christ's instruction and took his teaching of the coming kingdom first to Jerusalem, then to Samaria and then to all nations.

PRINCIPLE FOR LIVING - WITNESSES FOR CHRIST

Once you are baptised you will be a bearer of God's name, to show or manifest the character of God to others. This is the practical meaning of a basic doctrine of the Bible: God manifestation. If we are truly full of the light of God's word we will shine forth His ways (Matthew 5) just as Jesus was the full manifestation of His Father (John 1:14). Before we are baptised, we need to resist the pressure to conform to this age and be honest with those at school or work about what we believe and why we cannot conform to their way of life. Before you are baptised get into good habits; learn to give an answer to all about you of what your parents have taught you is right and wrong.

THE ASCENSION OF CHRIST (1:9-11)

As Jesus Christ blessed his apostles (Luke 24:51) he was lifted up from them until a cloud surrounded him and he was taken from their sight. The amazement of the apostles is captured by Luke's description "*they looked steadfastly into heaven*". They gazed into heaven as Christ's work amongst them came to a sudden end. At that point two angels appeared to them to give them and us a wonderful promise. It is important that you learn verse 11 off by heart because it teaches an important Bible teaching - Jesus Christ will return to the earth:

- bodily ("this same Jesus")
- visibly ("as ye have seen him go")
- to the Mount of Olives (Zech 14:3).

The message of the angels is a message of hope for all believers from that time to ours - Jesus Christ is coming back. We have the special hope because we believe that it will be very soon (see Lesson 25).

BASIC BIBLE TEACHING - CHRIST WILL RETURN

The New Testament has literally hundreds of references to the return of Christ. This is a basic teaching of the Bible because without his return the purpose of God cannot be completed. He will initially return to bring judgment as the little stone power of Daniel 2; then he will reign as prince of peace (Isaiah 9:6). The return of Christ becomes one of the frequent teachings of the apostles in the book of Acts (e.g. 2:35, 3:19-21; 17:31). It is also frequently found in the writings of the apostles (1 Thes.4:14-17; 5:1-4; 2 Tim.4:8; 1 Cor.15:23).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던 제자들 (1:12-26)

예수가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감람산에서 내려왔다. 제자들은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한 성령을 기다렸다. 제자들은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과 예수의 형제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13-14). 모인 사람들은 꾸준한 마음으로 기도해 힘쓰고 있었다고 한다(14 절). 2 장 1 절에도 이 내용이 재차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 가운데 서서 말했다. 예수를 부인한 사건이 있고 나서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 새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이끌 만큼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었다. 베드로는 120 명쯤 되는 사람들 앞에서 제안하기를, 사도들을 12 명 세우자고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2 지파로 구성되어 있듯이 예수께서도 12 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었다. 여기서 말하는 12 명이란 하느님의 나라에서 특별한 일을 맡기로 된 사람들을 말한다 (마태복음 19:28-30). 12 명 중의 한 사람으로 가롯 유다가 있었지만 이 유다는 자살하여 죽었다. 유다가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세울 것이라는 내용은 예언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될 사람의 자격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함께하였으며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바사바와 맛디아 두 사람이 뽑혔다. 사도들은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은 결과, 맛디아가 선정되었다.

사도직분의 자격에 관해 알아보자

사도행전 1 장을 살펴보면 사도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에 관해 볼 수 있다.

- 예수께서 침례받으신 것과 승천하신 것을 지켜본 사람이어야 하며,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사도행전 1:8, 21,22)
-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람이어야 하며, 그와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9:1)
-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된 사람이어야 하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사도직분에 합당하다는 것을 기적을 행사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사도행전 19:11, 고린도후서 2:12, 갈라디아서 2:8)
- 복음을 믿는 사람이어야 하며,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1:8, 2:14)

이 단원을 요약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자:

-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대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40 일 동안 사도들을 가르치셨다.
- 사도들은 하느님의 나라가 곧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시기에 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 후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며,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베드로가 제안하였고 12 명의 사도중의 하나로서 맛디아를 뽑았다.

기억해야 할 성서구절 : 사도행전 1:11

WAITING IN JERUSALEM (1:12-26)

They returned from the Mount of Olives with great joy (Luke 24:52) to wait for God's gift of the Holy Spirit. The apostles gathered for prayer with the women and Mary and Jesus' brethren in the upper room (vv.13-14). There was a wonderful unity among them, they "*all continued with one accord*" (verse 14); an idea which occurs again in Ch.2:1. At this time, Peter stood up in their midst. It was less than two months since he had denied his Lord but he had grown in spiritual maturity to lead the ecclesia. He suggested to the 120 brethren and sisters present that they fill the position of the twelfth apostle. As there were twelve tribes, Jesus had originally chosen that number of apostles to instruct Israel. The twelve were promised a special place in his kingdom (Matt.19:28-30). How appropriate it would be to keep that number. He reminded them of the dreadful death of Judas and how it was prophesied that he would die (Psalm 69:25-28) and need to be replaced (Psalm 109:2-8). Peter gave them the qualifications of an apostle. They needed a man who had been with Jesus throughout his ministry and seen the risen Christ. They chose two men who met these qualifications, Barsabbus and Matthias. They then committed the matter to God in prayer and cast lots; the lot fell on Matthias.

THE QUALIFICATIONS OF AN APOSTLE

We can add to the list in Acts chapter 1 to come up with a full list of the requirements of an apostle:

- He must have been with Jesus from his baptism to his ascension, and seen him raised from the dead (Acts 1:8, 21, 22).
- He must have seen Christ and talked with him (1 Cor 9:1).
- He must have been chosen and sent of Christ (John 15:16).
- He had the Holy Spirit by which he could do miracles as proof of his apostleship (Acts 19:11, 2 Cor.2:12, Gal.2:8)
- He believed the true gospel and walked according to it (Gal 1:8; 2:14).

SUMMARY AND LESSONS FOR US

- Christ spent forty days teaching his apostles and preparing them for the great work ahead.
- The apostles were hoping that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Israel would be immediate. Christ told them that no man knew when that would happen. Then Christ was taken up into heaven. We know that Christ will come and be united for ever with those who have looked earnestly for him.
- Following the ascension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apostles gathered in the upper room to pray. At this time Peter explained to them the need to replace Judas; and faithful Matthias joined the twelve.

VERSE TO REMEMBER Acts 1:11

제 1 단원 - 학습문제

1.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2. 예수께서 승천하실 무렵, 사도들은 어떤 일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3. 예수의 승천을 설명하고,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을 설명해 보라.

4. 사도행전 1장에 담긴 성서의 기본 가르침에 관해 설명해 보라.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라)

5. 예수의 재림과 관련된 성서구절을 3곳 찾아보아라.

6.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하신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SECTION 1 – QUESTIONS

1. How did the Lord Jesus Christ occupy the 40 days after the resurrection?

2. At the time of Christ's ascension, what did the apostles want to happen immediately

3. Describe the ascension of Christ and its importance to us.

4. Explain the basic Bible teachings contained in Acts chapter 1. (Include in your answer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Israel and the second coming of Christ.)

5. List 3 passages (in addition to those on p.) that speak of the second coming of Christ.

6. What lessons are found for us in Christ's 40 days work with his apostles?

제 2 단원

우순절

“여러분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2:38

읽을 말씀: 사도행전 2 장

공부할 목표

이번 단원에서는 어떻게 성령이 주어졌는지에 관해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있어서 성령이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원을 얻으려면 오직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라고 말한 베드로의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배경을 살펴보자

예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 하셨다.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10 일이 지나자, 오순절 만찬을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예루살렘에는 로마제국의 각처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도 그곳 예루살렘에는 일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고향동네로 전파하도록 준비하셨던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능력 (2:1-13)

오순절 잔칫날은 애굽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곡식을 통해 축복하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날이었다(신명기 16:9-1).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으로 곡식 단을 추수하여 제물로 바친 날부터 계산하여 50 일이 되면, 빵 두 덩이를 가져와 제물로 바쳐야 했다(레위기 23:9-21). 이것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바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열매를 하느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오순절 축제의 의미가 완성되는 날이 드디어 다가왔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첫 열매들을 통해 하느님의 나라가 전개되기 시작한다는 초대장이 발송되었다.

이날 사람들은 일치된 마음으로 모여있었다(2 장 1 절).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니 집안에 가득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신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곳에는 세계 여러 곳의 사람들이 모여있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며 놀랐다. 군중들은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했으려니 라고 말하기도 했다.

SECTION 2

The Day of Pentecost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cts 2:39

READING: Acts 2

OBJECTIVE

This lesson shows how the Holy Spirit was given and how it helped the apostles' in their witness to the risen Christ. You will come to understand the wonderful speech of Peter by which convinced many that the only way to salvation was - *“Repent and be baptized”*.

BACKGROUND

Jesus Christ had told his disciples to wait in Jerusalem for the Holy Spirit to come upon them. They did not wait long. Only ten days after Christ's ascension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to the amazement of the throngs that gathered for the feast of Pentecost. There were people in Jerusalem from many areas in the Roman world. With the visitors gathered in Jerusalem there may have well been a million people present. They were by God's providence able to hear and accept the message of salvation, and take it home with them.

POWER FROM ON HIGH (2:1-13)

The day of Pentecost or Feast of weeks was a time when Israel celebrated God's blessings in the crops and His greater mercy in deliverance from Egypt (Deut.16:9-12). They counted fifty days from the offering of the sheaf of the firstfruits and then offered two wave loaves with the other offerings (Lev.23:9-21). These represented Jew and Gentile who would be the firstfruits after *“Christ the firstfruits.”* This special feast of Pentecost (Acts 2:1) revealed what the Law of Moses taught (the idea of the phrase *“fully come”* is “to be fulfilled”). The invitation would go out, through which more firstfruits of both Jews and Gentiles would be developed ready for the kingdom through the work of Christ.

The feeling of unity amongst the believers was seen on this day, as they were *“all with one accord in one place”* (verse 1). Suddenly, a noise from heaven like a violent blast filled the house. Tongues like as of fire were *“distributed and resting upon them”* (RSV). The believers were able to speak in a variety of languages as the Spirit allowed them. How amazed they all must have felt to have a special portion of God's spirit. The multitudes from all parts gathered with amazement to hear these Galileans speak in the languages of their own various countries. The multitude was amazed and in doubt (*“utterly at a loss”* Roth) and said, *“What meaneth this?”* Some accused the believers of being drunk with new wine.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4 절 -21 절

베드로가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느님의 나라에 이르는 문을 여는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16:18-19). 베드로는 그 지역 거주민들(유대인들)과 방문자들(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자들) 모두를 향하여 지금 그들이 겪는 놀라운 현상에 대해 설명하며 말했다. 지금 시각을 보라! 아침 9 시가 아니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 사람들은 절대 ‘술 취한’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당신들이 보는 이 사건들은 요엘서 2:28-32 에서 선지자가 예언한 것으로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즉, AD70 년이 이르기 전에 이루어질 예언들의 성취이다 (20 절). AD70 년의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이르면 유대의 하늘이 무너질 것이다(19 절).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 하였다(요한복음 16:7-1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21 절)

베드로가 말한 것을 요약해 보자.

- 하느님으로부터 전해진 말씀이다.(17-18 절)
- 사람들에게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19-20 절)
-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21 절)

“하느님이 살리신 사람” (2:22-28)

베드로는 주의를 기울여 들으라고 명령조로 말했다(22 절).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 이외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성령의 선물이 전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우편에서 높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데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 옆에서 기적을 베푸시던 나사렛 예수를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박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뜻 이 성취된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를 살리셨다(23 절) 왜냐하면 예수는 의인이었으므로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로마서 1:4). 예수께서 죄와 죽음에 대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부활’이란 생소한 개념이 아니었다. 구약성서에서 이미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시편 16:8-11 에 있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며 사람들에게 물었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야훼를 항상 뵈옵습니다... 야훼께서는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야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상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야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겐 흔들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주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 메시아는 부활해야 했다.

삶의 원리 - 우리의 행동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리스도를 못박으라고 로마인들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한 일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을 어긋나 나쁜 길로 가면서 다른 사람을 타할 수는 없으며, 악한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일말의 선한 것을 찾아 내세우려 한다고 합리화 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책임이 있다.

“WHAT MEANETH THIS?” vv.14-21

Peter now stood up to give the people an answer. He was to unlock the door to the kingdom of God to the Jews (Matt.16:18-19). He addressed the local inhabitants (“*men of Judaea*” v.14) and the visitors for the feast (“*those that dwell at Jerusalem*”, Rotherham ‘sojourners’). He explained the great phenomena they were witnessing. The Spirit gifted brethren were not drunk, for it was only nine o’clock in the morning (“*the third hour of the day*”). What they were seeing was a fulfillment of Joel 2:28-32; the prophecy of the visions that would occur before 70 AD, ‘the great and notable day of the Lord’ (verse 20).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n the year 70 would bring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Jewish heavens (verse 19). The Holy Spirit had been promised by Christ as a witness to the Jewish nation (John 16:7-11). There was hope for those wh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v.21), a hope that he elaborated later.

In summary then Peter was showing that:

- they were listening to the words of God (vv.17-18)
- judgment overshadowed their nation (vv.19-20)
- there was a hope of personal deliverance (v.21)

“WHOM GOD HATH RAISED UP” (2:22-28)

Then Peter commanded their attention “*hear these words!*” (v.22). There was a greater point that he wanted to tell them than the outpouring of the Spirit gifts. The gifts were a proof that Jesus Christ was now exalted at the right hand of God. So he comes to the crux of the situation. They had crucified Jesus, the despised Nazarene, a man whom God had approved by miracles that he did in their midst. Yet they had refused the evidence and had fulfilled God’s will by crucifying him (v.23).

They had killed, but God had raised him up (v.23); because of his righteous life it was not possible that he should remain in the grave (Rom.1:4). He had triumphed over sin and death. To show that the resurrection was not unexpected, Peter drew their attention to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He quoted from David’s words of Psalm 16:8-11. Of whom did David write that “*I foresaw the Lord always before my face*”? Who was this one who would be raised soon after death so that his soul would not see corruption? Who was the person who would find pleasures at God’s right hand (Psa.16:11)? Their Messiah had to be a resurrected man!

PRINCIPLE FOR LIVING - RESPONSIBILITY FOR OUR ACTIONS

In encouraging the Romans to crucify Christ they had fulfilled the “*determinate counsel and foreknowledge of God*” verse 23. Yet this did not make them any less responsible for their own actions; for he said “*by wicked hands have crucified and slain*”. They could not stand back and say, “*It was the Romans that did it - not us!*” Neither can we blame others for leading us astray, or justify doing the wrong thing because some good might seem to come out of it. God can use our evil to fulfil His will but this does not condone our behaviour. We need to face up to our responsibilities.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2:29-36)

베드로는 시편을 쓴 조상 다윗에 관해 언급하였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부활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니다. 다윗의 묘는 당시에 잘 알려져 있었고, (29 절) – 그 무덤에 다윗의 뼈가 존재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다윗에게 전해진 약속을 인용(사무엘하 7:12-16)하면서 말하기를, 다윗은 “다윗의 몸에서 나온 자손”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리라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윗은 시편 16 편에서 말하길 자신의 몸에서 나온 후손이 죽음을 격을 것이나 그 몸이 썩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후손은 무덤에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었다. 베드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라고 하면서,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결론짓고 있다(29-32 절).

다윗의 무덤과는 다르게 예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다. 확실한 증거였다. 예수는 메시아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예수는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인가? 베드로는 시편 68:18 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 선물을 내려주실 것이라 하였다. 이 구절의 예언은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 정확히 이루어졌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올라갈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34-35 절에서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시편 110:1-2)을 다시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그 나라를 수여 받기까지 하늘에 올라가셔서 야훼의 오른편에 계실 것을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베드로는 분명하게 결론지었다(36 절). 베드로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주님이다.(시편 110:1). 승천이 그 증거이다.
- 그리스도 즉, 기름부음 받은 자 또는 메시아이다(시편 2:2). 부활이 그 증거이다(시편 16 편)

그러므로 그 분을 부르는 합당한 호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분은 하느님의 사명을 완수하였다.

- 주 – 장차 세상을 다스릴 왕이시다.
- 예수 –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다.
- 그리스도 – 기름부음 받은 자.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선택 받은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다.

우리는 이 이름이 가진 중요성을 잘 알아야 한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에 육체로 계셨을 때 불렀던 이름이다. 이제는 그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SIT THOU ON MY RIGHT HAND UNTIL ...” (2:29-36)

Peter then spoke about their honoured patriarch David who wrote the Psalm. Despite his greatness, it could not be David himself that was referred to. They all knew where his sepulchre was (v.29) – and it contained David’s bones. Peter cites the promise to David (2 Sam.7:12-16) as evidence to show that David understood that his seed *“according to the flesh”* would sit on his throne. David wrote Psalm 16 because he understood that his seed would die but not see corruption. His seed would be raised to eternal life. Hence his conclusion *“this Jesus whom God hath raised up”* is Messiah or Christ (vv.29-32).

Unlike David they could not show anyone the sepulchre of Jesus for it was an empty tomb - the evidence could not be ignored! Jesus must be the Messiah! The question remained - where was Jesus now? Peter cites Psalm 68:18 where it speaks of the time when Christ would ascend to heaven and receive gifts for men (verse 33). This was exactly what had happened on this day when the Holy Spirit was given. Further, Peter shows that David realised that the One who would ascend was not David but his Lord. In vv.34-35 he quotes from another prophecy of David (Psalm 110:1-2) where David prophesied that his Lord would ascend to Yahweh’s right hand until the time came to take the kingdom.

So who is Jesus? Peter comes to the only conclusion possible (v. 36). That same Jesus whom they had crucified was both:

- Lord (Psalm 110:1) as proven by his ascension, and
- Christ, the Messiah or Anointed (Psalm 2:2) as shown by his resurrection (Psalm 16).

His full title is the Lord Jesus Christ, a name which encompasses God’s work in him:

- Lord - the future king who will rule the whole world.
- Jesus - Yah shall save - Jesus Christ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 Christ - the Anointed. Set apart as God’s only son as King and High Priest.

We should learn to recognise the importance of this name. The name Jesus is used carefully in the New Testament to speak of Jesus in his mortal days on earth. We should now learn to speak of him as the Lord Jesus Christ.

성서의 기본 가르침 –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부활의 교리는 우리가 갖는 소망의 근본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 장에서 말하길, 우리 구원의 기본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말하길 예수께서 사흘째 날에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였다(고전 15:4) (시편 16 편과 110 편). 또한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4 절)이라 하였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20 절)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이 죽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21-22 절). 침례를 받은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23 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2 장 37-40 절)

베드로가 설파한 진리의 말씀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이 가진 율법에는 이 경우를 대비한 제사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다음 두 가지를 해야 했다.

- 회개한다 – 생활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 침례를 받는다 – 침례는 그들이 못박은 예수를 그리스도이며 주라고 시인하는 행동이며, 이를 통해 죄를 용서함 받는다.

또한 그들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마련되어 있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33 절)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방인들에게 약속된 것이다. 베드로는 21 절에서 요엘서 2:32 을 언급하며 말을 맺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준비된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시려 한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삶의 원리 – 회개

당신이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마음먹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자들이 회개하는지 아닌지 살펴보신다. 회개란 단지 과거의 죄에 대해 유감스러워하는 것 만은 아니다. 회개란 말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Bullinger 사전에 따르면 회개란 “단지 죄를 용서함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목적을 그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 생활을 아담으로 말미암은 범죄자라고 여기며 이제는 새로운 삶의 길에 기꺼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의의 규약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계는 맑은 마음과 절대적인 확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면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

BASIC BIBLE TEACHING - CHRIST RESURRECTED

The doctrine of the resurrection is the basis of our hope. It is clearly taught by Paul as fundamental to our salvation in 1 Corinthians 15. He says that the resurrection of Jesus on the third day wa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v.4 (Psalms 16 and 110 being two of them). Further, *"if Christ is not risen then is our preaching vain and our faith is also vain"* (v.14). But *"now is Christ risen from the dead and become the firstfruits of them that slept"* (v.20) The importance to us is emphasised by drawing attention to our sin stricken nature which will die. In Christ (by baptism) we can be made alive for evermore (vv.21-22). By living a resurrected life now, we can receive immortality at his coming (v.23).

"MEN AND BRETHREN, WHAT SHALL WE DO?" (2:37-40)

The absolute truth of what Peter had said struck many of those gathered with great force. They had been guilty of murdering the Son of God! They had refused to recognise the presence of their Messiah! What could they do? There was no offering under the Law or great act they could do to overcome what they had done.

They needed to do two things:

- Repent - to change their life.
- Be baptised - to identify with the Jesus whom they had crucified who was now Lord and Christ, and receive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lt would be that they would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as well. This promise (of the Holy Spirit v.33) was to them and the next generation (*"their children"*) and to the Gentiles (*"afar off"*); even as many of them as God would call. In those last words Peter picks up again the words of Joel 2:32 that he had broken off in the middle of in verse 21. God was offering salvation to them before the judgments on Jerusalem came. So Peter exhorted them, *"Save yourselves from this untoward generation"*.

PRINCIPLE FOR LIVING – REPENT

At some stage you will come to the point in life when you are ready to become a son or daughter of the living God. To become part of His family, God is looking for repentance. Repentance is not merely feeling sorry for past sins. The idea of the word repent is to change ourselves. Bullinger's Lexicon defines the word as *"to change one's mind and purpose ... not merely to repent of, nor to forsake sin, but to change one's mind ... regarding it"*. To repent is to disown and put off the past life as a sinner in Adam and be willing to enter the new way of life and thinking under the constitution of righteousness. This step requires sober reflection and total conviction. When we have really repented we will be ready to be baptized.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 (2:41-47)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에 즉답했다. 성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예수가 그들의 죄를 위해 제물로 바쳐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한 그 사람들은 침례 받을 준비를 하였다. 그날에 3000 명이 침례를 받았다. 이들은 영적으로 일치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다음 사항들을 확고히 잡고 있었다.

- 사도들이 전한 교리 -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 교제를 나눔 -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소유물을 서로 공유하였다(45 절).
- 집에서 떡을 떤다(46 절).
- 기도하였다 - 하느님을 찬미하며 하느님께 탄원을 드렸다(47 절)

하느님의 축복은 신실되게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 전파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7)

이 단원을 요약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자:

- 오순절날 성령의 선물이 임한 사건은 예루살렘에 모인 큰 무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를 구사하며 말하는 것을 들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기를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성취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이 임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결과임을 보였다.
-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았으나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를 살리셔서 시편 16 편이 성취되도록 하였고, 시편 110 편의 예언에 따라 이제는 하느님의 오른편으로 올라가셨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가 바로 주시요 그리스도였다.
-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며,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말했다. 그날 순종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3000 명이었으며 이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의 실체를 굳게 잡고 있었다.
-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외침을 접할 기회가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외침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를 기쁘게 기다리며 지내는 삶을 살 수도 있다.

암기해야 할 성서구절 사도행전 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THEY THAT GLADLY RECEIVED HIS WORD” (2:41-47).

The response to Peter’s message was immediate. With a sound knowledge of the scriptures, and the clear understanding that Jesus was the Messiah who had been offered for their sins they were ready to be baptized. Three thousand were baptised in one day. There was a wonderful spirit of unity amongst the believers. 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 the apostle’s doctrine – that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had made it possible for all men to find salvation by faith in His name.
- fellowship - sharing together both the spiritual blessings and their physical possessions (v.45).
- breaking of bread - from house to house v.46
- prayers - praise (v.47) and constant supplication to God.

The result of their faithful response was the blessing of the Father. And so we come to one of the progress reports in the book of Acts: *“the Lord added to the ecclesia daily such as should be saved”*. (Acts 2:47).

SUMMARY AND LESSONS FOR US

-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gifts on the day of Pentecost created a great impression on the multitudes in Jerusalem. They heard Galileans speaking in the languages of all the lands from where they had come. Peter stood up showed them that it was a fulfilment of the words of the prophet Joel. He went on to show them that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were a result of Christ’s ascension.
- They had crucified Jesus but God had raised him from the dead in fulfilment of Psalm 16, and he had ascended to the right hand of God in fulfilment of Psalm 110. That same Jesus whom they had crucified had been made both Lord and Christ.
- The people were pierced through and Peter told them to “Repent and be baptized”. Three thousand obeyed on that day with others following every day. 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teachings and practise of the living Christ.
- We today still have the opportunity to accept Peter’s call, “Repent and be baptized” before the Lord Jesus Christ returns. We can live in a joyful state with fellow believers until the Lord comes ‘to make his foes his footstool’.

VERSE TO REMEMBER Acts 2:38 *“Then Peter said unto them,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sins, and ye sha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제 2 단원 - 학습문제

1.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묘사해 보라

2. 베드로가 오순절날 했던 권면의 연설에서 세가지 중요한 점들을 짚어보아라.

3.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로부터 무엇을 인용하여 말했는가?

4.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구약성서 어디에서 이러한 이름을 가리키고 있는가?

5. 베드로의 권면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6. 다음에 열거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야 할지에 관해 살펴보아라.

- (a)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b) 그리스도의 부활
- (c) 회개

SECTION 2 – QUESTIONS

1. Describe how the Holy Spirit was poured out

2. Briefly outline three key features of Peter's speech on the day of Pentecost.

3. What did Peter show by his quotation from the prophet Joel?

4. What is the meaning of the name the Lord Jesus Christ? Which Old Testament scriptures pointed forward to these terms?

5. What was the response to Peter's speech?

6. Show how the basic principles of:

(a) responsibility for our actions

(b) Christ's resurrection

(c) repentance

should influence our lives today.

제 3 단원

앓은뱅이를 고친 베드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읽을 말씀: 사도행전 3 장

공부할 목표

이 장에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말하기 위해 어떤 능력을 사용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다.

배경을 살펴보자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새로운 에클레시아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기뻐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모임을 열었다. 종종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도 하였다.

몸이 불편한 사람 (3:1-6)

베드로와 요한은 제 3 시(오후 3 시) 경,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한 문에 다다랐다. ‘아름다운 문’은 높이가 대략 25 미터이고 너비가 20 미터이다. 그 문은 고린도 산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금과 은 장식으로 덮여 있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 옆에 한 앓은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에게는 주목할 만한 점이 두 가지 있었다.

- 그는 불구자였다. (“태어날 때부터 걸지 못하는 사람” 2 절)
- 그는 거기에 “날마다”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는 그를 주의 깊게 보더니,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그에게 돈을 주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6 절)

율법이나 성전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참된 재산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였다. “*금이나 은 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 받은 것입니다*”(베드로전서 1 장 18-19 절)

놀라운 기적(7-11 절)

베드로는 앓은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앓은뱅이의 뼈가 힘을 얻었고 걷고 뛰며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업적, 즉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게*”(이사야 35 장 6 절)된 것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다. 사람들은 매일 보았던 그 앓은뱅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으며,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러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갔다.

SECTION 3

Peter Heals the Lame Ma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READING: Acts 3

OBJECTIVE

To show how the apostles performed great miracles by the power of God to show men and women the greatness of Jesus Christ. We also learn what we must do to be saved.

BACKGROUND

There were many people baptized on the day of Pentecost and the new ecclesia rejoiced in the salvation in Christ. They had no meeting halls. Memorial meetings were held in their homes and they often went into the temple to worship and pray.

A MAN IN NEED (verses 1 to 6)

Peter and John were making their way into the temple to pray at the ninth hour (3 p.m.) They came to the massive gate called the Beautiful Gate, approximately 25 metres high and 20 metres wide. It was made of Corinthian brass covered with plates of gold and silver. Alongside this Beautiful Gate was a poor lame man begging for alms. There are two important things about this man. He was:

- incurable – “lame from this mother’s womb” (v.2)
- well known, being laid there “daily” (v.2).

This man asked for money from Peter and John. Peter fastened his eyes on him and said, “look on us”. Instead of receiving money he heard the words: *“Silver and gold have I none; but such as I have give I the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v.6).

The Law and Temple of the Jews could not heal him or provide for his needs, but Peter could provide the true riches: *“Ye were not redeemed with corruptible things as silver and gold ...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1 Pet.1:18-19).

AN AMAZING MIRACLE (verses 7 to 11)

Peter then took the man by the right hand and lifted him up. The feeble bones became full of strength and he went walking and leaping and praising God. He went into the Temple with Peter and John. Attention was drawn to the wonderful work of Christ *“Then shall the lame man leap as an hart”* (Isa.35:6). The crowd was amazed to see this well known figure, who had never walked, leaping around. They all ran together into Solomon’s Porch to listen to Peter and John.

우리의 삶의 근본 방침 - 항상 하느님께 감사하라

얏은뱅이가 걸을 수 있게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느님께 감사 드리는 일이었다. 하느님은 낮아진 자를 들어올리신다고 시편 146 편 8 절이 말한다. 이 시는 “*하느님을 찬양하라*”(할렐루야) 하는 외침으로 시작하고 같은 외침으로 마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 우리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또한 하느님께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친절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축복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재미와 자극들을 먼저 찾기도 한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치기를,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알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느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다*.”(히브리서 13 장 15 절) (골로새서 3 장 17 절,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8 절, 시편 18 장 48-50 절 참고.)

베드로의 두 번째 연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불구였던 그 얏은뱅이가 이제 건강해진 것을 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삶을 바꾸는데 이르기 위해서는 달리 더 배워야 할 점들이 있었다. 베드로는 이 얏은뱅이 사건이 불러 일으키는 폭발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여 전했다. 사람들은 얏은뱅이였던 사람을 따라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몰려갔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베드로의 연설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두었다. 이 연설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예수님을 죽인 죄를 지적함 (12-16 절)

- a)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과 그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얏은뱅이를 고친 기적의 능력은 사도들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 이 능력과 거룩함은 영화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 주신바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였을 뿐이었다.(12 절)
- b)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뜻과 반대하여 행동했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분의 ‘종’을 보내셨고, (13 절에서 사용된 ‘아들’을 헬라어로 보면 ‘종’이란 말과 같은 말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13 절)
- c) 유대인들은 심지어 거룩하신 예수께서 그들 바로 앞에 서 있을 때조차 그분의 거룩함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나쁜 일을 하지 않았으며,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풀어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룩한*”(다시 말해 순수한, 구별된) 그리고 “*의로운(올바른)*” 예수를 풀어 주는 것에 반대하였다. 유대인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살인자를 풀어 주고 생명의 주를 죽이는 것을 선택하였다.(14 절)
- d)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생명의 주를 죽음에서 건지셨다. 베드로는 말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15 절)
- e) 얏은뱅이를 걷게 만든 능력은 사도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사도들은 단지 그 능력을 실행하는 통로였을 뿐이다. 그 능력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이름(다시 말해, 그분을 대신하는 그 성품)으로 말미암음이었다. 그 이름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얏은뱅이와 마찬가지로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16 절)

PRINCIPLE FOR LIVING – THANK GOD ALWAYS

The immediate response of the lame man was to thank God. Psalm 146:8 speaks of how Yahweh raiseth them that are bowed down. The Psalm starts and ends with a call to *“Praise ye Yah”* (Hallelujah). As we see God’s grace to us the response should be to praise and thank Him for His great goodness. Yahweh’s greatest act of kindness was to provide His son and invite us to be sharers of the salvation He has provided. At times we can treat these blessings casually and seek after fun and excitement in the world around us. But Paul taught the brethren and sisters at Jerusalem that true joy comes from a knowledge of this provision of God. *“By him (Christ)”* we can *“offer the sacrifice of praise continually, that is, the fruit of our lips giving thanks to his name”* (Heb.13:15). (see also Col.3:17; 1 Thes.5:18 and Psalm 18:48-50).

PETER’S SECOND SPEECH

The people in the Temple had just witnessed a remarkable act of healing where a man was transformed from an "incurable" cripple to full health. There were things that had to be said if the people were to understand the power of the risen Christ to transform their lives. The incident caused no small stir, and Peter now used the opportunity to best advantage. He drew the people to the area called Solomon's Porch and Peter addressed them.

Luke has provided us with a summary of Peter's address which covered these points:

1. THE CRIME OF THE CROSS (verses 12-16).

- a) Two things were necessary for miracles to happen - power and holiness – and these did not come from the apostles themselves. The glorified Christ did show such power and holiness. Peter and John were his servants in this miracle (v.12).
- b) The Jews’ own behaviour had gone against the purpose of God. God had acted in harmony with His promise to Abraham, Isaac and Jacob. He had provided a “servant” (the word ‘son’ in this verse is really the Greek word for ‘servant’). Yahweh had glorified him, but the Jews had denied Jesus and delivered him to death (v.13).
- c) These men had not been able to recognise holiness even when a holy one, Jesus, stood in front of them. Jesus was a person who harmed no one and went about always doing good. Even Pilate wanted to release him because he *“found no fault in him”*. Their terrible crime was that they had rejected one, both *“holy”* (i.e. pure and separate) and *“just”* (i.e. upholding what is right). When they were given a choice, they saved the life of a murderer (v.14), and killed the Prince of Life.
- d) God had rejected their assessment of Christ, the Prince of Life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And Peter added, *“we are witnesses”* (v. 15).
- e) It was not by the apostles' power the lame man had been healed. The apostles were the channel of that power, not its source. The source was Christ whose *“Name”* (i.e. his character and the things he stood for) *“through faith in his name”* had been responsible for the miracle. Without that, they would remain as helpless as the lame man had been (v.16).

2. 아는 것과 그에 따르는 책임 (17-26)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죽인 죄를 지성한 후, 그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으며 사람들이 이를 믿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연설하였다.

- a) **아는 것은 책임을 수반한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계획에 무지한 나머지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맞본 그 고통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지에서 벗어났으며 이에 따라 이제는 하느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서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마련한 계획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큰 은혜이지만, 그 후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된다.
- b) **지식과 의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진리를 들었으며 그에 따라 책임도 부여 받았다. 그들은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다” (19 절). “회개”란 “마음을 바꾸는 것” (하느님에 관한 것들로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돌이키는 것”이란 “달리 행동하는 것” 즉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식에 따른 의무란, (1) 그 지식을 신실히 받아들이고 (2)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 c) **회개하면 어떤 좋은 점들이 기다리고 있는가 (19 절)** 두 가지 유익한 점들이 있다.
 - (1) 과거의 죄가 지워진다. 장부에서 지워진다.
 - (2)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날은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모두 적용된다.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행해 가는 걸음에 힘을 얻게 될 것이며 그 나라의 시대에서 불멸을 입게 되는 새롭게 됨을 받을 것이다.

- d) **인간의 고통이 종료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20 절).**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시편 72 편, 이사야 35 장을 보라)
- e)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어야 한다 (21 절).** 예수께서 고통받으심, 죽으심, 장사지내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등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기 위함이다(시편 16 편, 110 편). 또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임은 또 다른 예언이며, 이 예언도 또한 성취될 것이다 (예레미야 23:5-8, 아모스 9:11, 12).
- f) **하느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특권 (22-24 절).**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되리라고 하였다(신명기 18:18-19). 사무엘 시대 즉,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와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졌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자손들이었으며, 그들의 조상들이야말로 하느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유대 사람들은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전해 받은 사람들이었다. (창세기 12:3, 18:18, 22:18, 갈라디아서 3:8). 어떤 의미에서 유대사람들은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
- g) **특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 특별한 의무도 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유대사람들이 특권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 특별한 의무도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에, 자신이 하고픈 일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기회가 이제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다(로마서 1:16).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하느님의 선하심을 알린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떠난 생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었다.

2. KNOWLEDGE AND RESPONSIBILITY (verses 17-26).

After Peter had reminded his listeners of the terrible crime they had committed in crucifying Jesus, he appealed to them to become wholehearted in believing in the glorified Christ. His reasoning went as follows:

- a) **Knowledge creates responsibility.** The Jews put Jesus to death while they were ignorant of God's plan. Now they understood that God had foretold that Christ would suffer and that Jesus' death was fulfilment of prophecy. Consequently their ignorance was removed and they stood in a responsible position before God. To receive and understand the knowledge of Yahweh's will is a great privilege, but it carries an equal weight of responsibility.
- b) **The Obligations of Knowledge.** The people gathered there had responsibilities because of the truth they had learnt. They must "*repent and be converted*" (v.19). "Repent" means "change of mind", (reverse your thinking to the things of God). "Be converted" means to "turn about" i.e., to walk in another direction. Therefore the obligations of knowledge are (1) to embrace it sincerely and (2) let it influence daily conduct.
- c) **The Benefits of Repentance (verse 19).** There are two benefits:
 - (1) Past sins are "blotted out" or wiped away, and
 - (2) "Times of refreshing shall come" i.e., both now and in the future.

We shall receive strength to continue in our walk to the Kingdom and if found worthy will receive the greatest "refreshing" in being made immortal in the Kingdom age.

- d) **An End to Human Suffering (verse 20).** Christ's second coming will refresh this earth at God's appointed time (see Psa.72; Isa.35).
- e) **The Scriptures must be fulfilled (verse 21).** All the things that happened to Jesus, his sufferings, death, burial, resurrection, ascension, had been as the scriptures required (e.g., Psa.16; 1 10). His return to restore all things would also be in fulfilment of prophecy (e.g., Jer.23:5-8; Amos 9:11, 12).
- f) **The Special Privileges of God's People (verses 22-24).** Moses told Israel that God would raise up a prophet from their midst and that it would be their responsibility to hear him on pain of death (Deut.18:18-19). The same message had been repeated since the times of Samuel and the "*schools of the prophets*". The Jews were the children of the prophets whose fathers were bound in covenant to God. They had received a promise which carried with it the universal blessings for all mankind (cp.Gen.12:3;18:18;22:18; Gal. 3:8). In a very special sense they were God's chosen people. The great blessing was that sins could be forgiven.
- g) **Special Privilege brings Special Duty.** Finally, Peter showed the obvious truth that special privilege brings special responsibility. One cannot know what to do and then do what one likes. The opportunity was given "*to the Jews first*" (Rom.1:16) to obey God's will. They were to reflect God's goodness to the world. That goodness must be seen in them, first, in a life that turns away from sin.

성서의 기본 가르침 -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담긴 죄 사함

사도행전 3 장 마지막에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언급되고 있다. 야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모든 다른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이는 명백한 약속이다. 축복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죄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3 장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느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의롭다 하심 (죄 사함)을 마련하셨다고 언급하고 있다. 죄 사함은 하느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통해 받을 축복을 앞두고 있으며,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사도행전 3:26-29).

이 단원을 요약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자:

- 이스라엘 사람들은 앓은뱅이와 같았다 -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일으킬 수 없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죄에 대해서 지적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그들이 받은 약속의 소망에는 또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전했다.
-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책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여 진리를 순종하며 마음을 다해 믿어야 했다.
- 아는 것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베드로의 연설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우리가 성서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전하는 바로 그 내용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거나 이론에만 머무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느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회개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생활을 통해 생명의 소망을 가지는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기억해야 할 성서 구절 사도행전 3:26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BASIC BIBLE TEACHING - FORGIVENESS OF SINS IN THE ABRAHAMIC COVENANT

This remarkable chapter ends with the great blessing in the promises made to the fathers. When Yahweh promised to Abraham that in his seed all nations would be blessed there is a very specific blessing given. The blessing is that sins could be forgiven in the Lord Jesus Christ, so that people could inherit the promises. Sinners will not enter the kingdom. In Galatians 3, Paul draws attention to God's intention to "*justify (forgive) the heathen (nations)*" (verse 8). This could only be done through their faith or belief in God. This great blessing which is to come upon all nations at the return of Jesus Christ is available today, to all people who believe and are baptised into Jesus Christ (Acts 3:26-29).

SUMMARY AND LESSONS FOR US:

- Israel was like the lame man – unable to save themselves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power of Jesus Christ. We are in a similar position.
- Peter warned his listeners of the crime of the cross. His address gave a guilty nation hope through repentance, but it also showed that with knowledge comes a responsibility to the things of God.
- The Jews needed to clearly understand their responsibility and show their preparedness for Christ's return by a wholehearted belief and obedience to the Truth.
- The lessons of Peter's speech are still of value today. Knowledge brings responsibility. What we know in theory must be seen in practice, that is, we must "practice what we preach". It is not enough to be brought up in the Truth or to know that the Truth in a theoretical way - we must allow that knowledge to influence our thinking and our actions.
- Christ, at God's right hand, observes all. He will soon return at the time appointed for the judgment of his people. Peter's address shows how that although our lives are without hope of salvation, yet through repentance and submission to God's will, we can have hope and life.

VERSE TO REMEMBER Acts 3:26 *"Unto you first God, having raised up his Son Jesus, sent him to bless you, in turning away every one of you from his iniquities"*

제 3 단원 - 학습문제

1.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던 앓은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주었는가?

2. 유대인들이 심히 잘못 행한 죄악은 무엇인가?

3. 베드로의 연설 가운데에서, '아는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자.

4.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된 약속이란 무엇인가?

5. 왜 우리는 항상 하느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SECTION 3 – QUESTIONS

1. What did Peter and John give the lame man at the Beautiful Gate?

2. What was the terrible crime the Jews were guilty of?

3. Show from Peter's speech how knowledge brings responsibility.

4. What is the great blessing of the Abrahamic promise?

5. Why should we thank God always?

제 4 단원

사도들이 산헤드린(유대 공회)의 재판정에 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서읽기: 사도행전 4 장

공부할 목표

사도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를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배경을 살펴보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서서 앉은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치유하였는지 설명하고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설명을 제지하면서 이들을 옥에 가두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음날에도 지도자들 앞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

체포되다 (1-4 절)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다(2 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로 들어 말하기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기에, 베드로의 이 말에 그들은 언짢게 생각했다(사도행전 23:8). 그들은 예수를 제거하는데 성공했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계속 전하는 모습을 보며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성전 호위병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앉은뱅이’를 억류하여 다음날까지 잡아두었다. 그러나 이날에도 침례를 받은 새 신자가 2000 명이 있었으므로 신자는 모두 5000 명이 되었다.

재판정 (5-22 절)

다음날 재판을 열기 위해 산헤드린이 소집되었다. 공회라고도 하는 산헤드린은 로마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70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회는 제사장 족속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당시의 ‘지식인’ 계층이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에게 위압당하지 않았다. 공회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이었다. 이 질문은 바로 전 주간에 예수를 힐난하며 던진 질문과 같은 질문이었다(마태복음 21:23-27).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 장에서 베드로가 이미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던 자신감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았던 것이다. 예수는 “주”시요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었다.

베드로는 성경에 충만하여 담대히 말했다. 왜 당신들은 죄 없는 자를 정죄하였는가? 당신들이 경멸하여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이 이제는 부활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앉은뱅이가 온전케 되었다(‘온전케 되다’는 헬라어로 ‘구함을 받다’이다). 베드로는 시편 118:22 의 말씀을 들어 예수는 버려진 돌로 취급 받았으나 이제는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다. 예수께서도 이 구절을 들어 말씀하신 적이 있다(마태복음 21:42). 예수께서 구약을 들어 인용한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었다.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은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돌을 내던져 버렸지만, 하느님께서 그 돌을 다시 세우셨던 것이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통로로서,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되어있다. ‘구함을 받다’라는 헬라어는 9 절에서 말하는 ‘낫게 되다’와 같은 말이다. 앉은뱅이가 고침 받은 사건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SECTION 4

The Apostles on Trial Before the Sanhedrin

"We cannot but speak the things we have seen and heard"

READING: Acts 4

OBJECTIVE

The apostles bold witnessing before the religious leaders of their day shows us how we should speak confidently of the things we believe.

BACKGROUND

As Peter and John stood in the temple, explaining how they had healed the lame ma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y were interrupted. The religious authorities took them into prison. The next day they were to stand before the authorities and witness for their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THE ARREST (verses 1 - 4)

Peter had taught the people with authority, preaching *"through Jesus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verse 2). He was using the resurrection of Christ to prove that all could be raised from the dead. This disturbed the priests and Sadducees because they did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at all (Acts 23:8). In addition their authority was at stake; they thought they had got rid of Jesus but now his apostles were continuing his teaching. The temple guard seized Peter, John and the "lame" man, and they were put in ward until the next day. However, the opposition could not stop the effect; the number of believers grew to 5,000; a further 2,000 being baptised this day.

THE TRIAL (verses 5 - 22)

The next day the Sanhedrin gathered to hear the case. The Sanhedrin or council was a group of seventy men given limited power by Rome. It was composed of the priestly family and the most 'intellectual' scribes, but this did not overawe Peter and John. Their first question was, *"By what power, or by what name, have ye done this?"* This was similar to a question they had put to Jesus just weeks earlier (Matt.21:23-27) concerning his authority. This question had been answered in Peter's speech of chapter 2; the authority was that by his resurrection Jesus was now both "Lord" and "Christ".

Peter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poke boldly. Why had they been put on trial for a good deed? Both the Sanhedrin and the whole nation should realise that the despised man whom they had crucified was now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Christ the lame man had been made whole (Gk. "saved"). He took them to Psalm 118:22. Jesus was the despised stone who had been made the head of the corner. They would remember how Jesus had used this same passage before they had crucified him (Matthew 21:42). However while Jesus had quoted it, Peter draws out the meaning. They, the leaders of the nation, were the ones who had cast aside the stone which God had provided; but God had elevated him. He was now the means through whom God was offering salvation; *"there is none other name among men whereby we must be saved"*. Note that the word 'saved' is the same Greek word as in verse 9 *"made whole"*. The healing of the lame man was proof that through Jesus Christ salvation could come from eternal death.

베드로와 요한을 말을 듣고 산헤드린은 깜짝 놀랐다. 시편 118 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눈에는 놀라울 뿐입니다’라는 상황이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랍비의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담대히 말하고 있었다. 게다가 고침을 받은 장애인도 자신이 겪은 기적을 증거하며 다닐 것이기에 산헤드린은 곤란할 수 밖에 없었다.

산헤드린은 베드로와 요한과 장애자였던 사람을 내보내고 나서 자신들끼리 대책회의를 하였다. 분명한 기적(징표)이 증거로 존재하기에 부정할 수는 없었다. 사람들이 하느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21 절). 산헤드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금한다고 하면서 이 말대로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 다니엘이 그랬듯이 다시 한번 담대히 말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이겠소?”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증거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 절).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다시 한번 위협한 뒤 풀어줄 수 밖에 없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 역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라는 디모데 후서 2:12 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마태복음 10:32).

베드로와 요한은 기뻐하며 돌아왔다. (23-30 절)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아마도 고침 받은 장애인도 함께 왔을 것이다) 신자들의 무리에 돌아와 산헤드린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전했다. 사람들은 그 일들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삶의 원리 - 감사와 기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것은 기쁜 일이었다. 신자들은 하느님의 축복을 찬양하며 그 축복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제 우리를 돌아보자. 과연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또한 그 축복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침례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중보자가 없는 것이므로 하느님께 기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의 선하심과 그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사도행전의 신자들은 구약 성서의 구절을 들어가며 기도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지 배우게 될 것이다.

신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야훼 하느님을 인정하였다. (시편 146:4-9)
- 시편 2 편에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야훼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서있다’라는 다윗의 말을 인용하였다.
-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 헤롯과 빌라도를 비롯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합심하여 예수를 대적하였다.
- 세상 통치자들이 지금 하느님을 따르는 종들을 대적하고 있음을 말했다.
- 하느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간청하였으며, 거룩한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간구하였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징표를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했다. 하느님은 이들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렸다.

The Sanhedrin marveled at Peter and John (just as Psalm 118 had sai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They were amazed that these men who were unlearned (not tutored by the rabbis) and ignorant (laymen, not religious men) could speak with such boldness. Further to their problems, the presence of the healed lame man silenced any attempt they might make to reject the miracle.

Having sent the three out of the Sanhedrin they discussed what should be done. Surely a notable miracle (Diaglott 'signal sign') had been done and could not be denied; the people glorified God for what was done (verse 21). They thought their only option was to try and suppress the teaching in the name of Jesus Christ. Peter and John like Daniel of old spoke boldly to their judges. Surely they the judges of Israel knew whether it was right to hearken unto man more than God. Peter and John would not stop witnessing: *"We cannot but speak the things which we have seen and heard"* (verse 20). All the leaders of the nation could do was threaten them and let them go. How strong are we in witnessing to the world the truth we believe; for *"if we deny him he shall also deny us"* (2 Timothy 2:12). If we confess him, he (Christ) will confess (acknowledge) us before God (Matt.10:32).

THEIR GLAD RETURN TO THEIR BRETHREN (verses 23 - 30)

Peter and John (and probably the healed man) returned to the company of believers and told them all that happened. They broke into a united prayer of thanksgiving for the salvation God had provided.

PRINCIPLE FOR LIVING - THANKSGIVING AND PRAYER FOR HELP

There was great rejoicing when Peter and John were released. They joined together in a wonderful prayer of praise and seeking God's continued blessing. How often do we thank God for special blessings He has given to us and our families and friends, and ask Him to continue to be with us? There are certain things we cannot pray for before we are baptised as we have no mediator. However all can learn to praise God and thank Him for His goodness, and seek His help. Note also that when they prayed it was in the terms and phrases of scripture. As our minds become in tune with the word of God we will learn to freely draw from the scriptures feelings and ideas for our prayers.

In their prayer they:

- Acknowledged Yahweh as the sovereign who has made everything, and is in control of all things, including their situation (Psalm 146:4-9).
- Cited the words of David from Psalm 2 which show that the rulers of the earth would stand in vain against Yahweh's Anointed.
- Showed that these words were fulfilled – Herod, Pilate, the Gentiles and Jews had gathered against Jesus.
- Showed that the same powers were gathering against them, God's servants.
- Pleaded that God's strength may be with them to enable them to preach with power to do signs and wonders by the name of His Holy Son Jesus.

They were being subjected great opposition as bearers of the name of Christ; and asked God to be with them to grant them boldness to speak and signs to confirm their witness. The response from God was immediate - the place was shaken.

성서의 기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서에 나오는 이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담고 있다.

- 품성을 말함 (예를 들어,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발은 실제로 어리석었다)
- 목적을 말함 (예를 들어, ‘므두셀라’의 이름은 홍수에 관한 하느님의 계획을 말하는데 사용되었다)
- 하느님의 약속을 말하는 이름 야훼는 그분의 목적을 말하는데 사용되었다. – “어떤 일을 이루실 그 분” 과 그의 성품은 출애굽기 34:6-7 에 기록되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이름이다.

- 주 – 세상을 다스리게 될 통치자(시편 110:1)
- 예수 – 야훼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는 하느님의 구원이 될 것이다. (이사야 7:14, 마태복음 1:23)
- 그리스도 –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불멸을 입으신 기름부음 받은 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위와 같은 의미를 인정하며 부르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만 왕의 왕이 되시는 구세주이므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적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다.

이 단원을 요약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자:

-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일단 옥에 가두어 놓은 뒤 어떻게 처리할 지를 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앓은뱅이가 고침을 받고 걸어 다니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으며, 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젯거리일 수 밖에 없었다.
-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 앓은뱅이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지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이 사건은 “나사렛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 사도들의 본을 받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나라에 관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
- 예루살렘 에클레시아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도록 야훼께 기도하였다. 야훼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는 간구를 언제나 들으실 것이다.

기억해야 할 성서구절: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 절)

BASIC BIBLE TEACHING: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idea of a name in the Bible represents:

- character (for example, Nabal's name means fool and that's what he was)
- purpose (for example, Methusaleh's name pointed forward to God's purpose in the flood).
- God's covenant name (Yahweh) is used of His purpose – "He who will be" and of His character as declared in Exodus 34:6-7.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clearly involves His purpose:

- Lord – the coming ruler of the world (Psa.110:1)
- Jesus – Yah shall save. For He would be God's salvation (Isa.7:14, Matt.1:23)
- Christ – He was Anointed as the Son of God with immortality.

When the apostles called o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y were calling upon their Lord who was all of these things. He was the Saviour who will be King of Kings and therefore it was important to make all people know that it was in Christ's name that they performed such miracles.

SUMMARY AND LESSONS FOR US

- The rulers put the apostles in prison while they decided what to do to stop these men who were causing them such concern. Their problem was that the lame man was now walking around and no one could deny it.
- The apostles fearlessly testified before the rulers of Jerusalem, by what means the lame man had been made whole: "By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 Like the apostles we should boldly t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the name of Jesus Christ.
- The ecclesia prayed for the release of Peter and John and praised Yahweh when He intervened. God will always listen to our cry if we truly seek Him.

VERSE TO REMEMBER: *"We cannot but speak the things which we have seen and heard" (verse 20)*

제 4 단원 - 학습문제

1. 앓은뱅이를 고쳐준 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법정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라.

2. 사도들이 행한 기적은 어떤 이름 또는 어떤 능력을 힘입은 것인가?

3. 베드로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당시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책망하였는가?

4. 산헤드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징벌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5. 사도들이 풀려난 후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보라.

SECTION 4 – QUESTIONS

1. Briefly tell the story of the trial of Peter and John after the healing of the lame man.

2. By what power or name had the apostles performed the miracle?

3. In what way did Peter condemn the leaders of the nation in the course of his defence in vv.8 to 12?

4. Why did the Sanhedrin decide not to punish them?

5. Briefly outline the prayer made by the company of believers after the apostles' release?

제 5 단원

그 나라를 위한 순교자: 스테반

“스테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 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서 읽기: 사도행전 6 장 & 7 장

공부할 목표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스테반의 삶과 그의 죽음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스테반은 예루살렘 내의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된 사람으로서 성서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복음을 선포하였고 이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배경을 살펴보자 (6:1-7)

유대 지도자들은 더 이상 사도들을 제지하지 못했으며 사도들은 전도를 계속했다. 신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자 문제 거리가 생겼다. 열두 명의 제자들은 기도하며 가르치는데 쓰는 시간 보다는 조직체를 아우르는데 쓰는 시간이 늘어가기 시작했다. 열두 제자들은 모든 일을 원만히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리스어를 쓰는 형제들 중에서 불평을 표출하는 형제들이 있었다. 그 형제들은 불평하기를, 신자들 중에서 히브리어를 말하는 과부들은 잘 대접받는데 비하여 그리스어를 말하는 과부들은 대접을 잘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사도들은 즉시 예루살렘인들을 불러 모았다. 사도들은 그 상황에서 자신들을 변호하거나 논쟁하려 하지 않는 대신, 과부들을 돌보며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처리하는데 신경을 쓰는 나머지 예루살렘 내에서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들이 게을리 되지 말아야 할 점을 강조했다. 예루살렘은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던 형제 일곱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일곱 형제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수여받았다(6 절). 사도들은 계속적으로 전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는 유대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었다(7 절).

믿음으로 충만했던 스테반 (6:8-14)

선출된 일곱 명의 형제들 가운데 스테반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테반이란 이름이 그리스 식 이름인 것으로 보아 스테반은 그리스어를 말하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스테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8 절). 스테반은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맡은 형제였지만, 성서를 이해하고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재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스테반에 반대하는 몇몇 외국출신의 유대인들도 있었으며 이들은 합세하여 스테반과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스테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 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있다(10 절). 분별있는 사람들이라면 스테반의 말을 잘 들어야 했겠지만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고, 인간이 가진 육신성의 추한 모습이 머리를 들고 있었다. 스테반에 분노한 유대인들은 스테반을 헐뜯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었다. 뇌물을 받은 사람들은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라면서 거짓으로 고소했다. 당시의 율법 하에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죽음의 형벌에 처해지는 범죄였다(레위기 24:16). 그들의 마음은 의로운 스테반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물론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충동하였다. 스테반은 붙잡혀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왔다. 공의회는 지혜롭고 연로한 유대인 70 명으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그러나 이 공의회는 몇 년 전에 주 예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던 바로 그 공의회였고, 스테반은 올바른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다.

SECTION 5

Stephen: Martyr for the Kingdom

"We cannot but speak the things we have seen and heard"

READING: Acts 6 & 7

OBJECTIVE

In this lesson we will consider the life and death of Stephen. Although chosen to look after the widows in the ecclesia he had a very solid grasp of the Scriptures. He proclaimed the gospel until it brought about his death.

BACKGROUND (6:1-7)

The Jewish authorities made no more attempts to restrain the apostles so they were able to continue preaching. However the growth in numbers of believers brought problems. The twelve were spending increasing time on organisation rather than in prayer and teaching. Despite their attempts to do everything well, a group of Greek-speaking brethren came complaining. They claimed that the Hebrew speaking widows were better cared for than the Greek-speaking widows. The apostles promptly called the ecclesia together. They didn't argue or try to justify their position, even though they had done nothing wrong. They simply explained that it was not wise for them to neglect the word and prayer to care for the ecclesia. The ecclesia agreed to elect seven brethren of good reputation to look after the widows. These seven wise men were given the Holy Spirit to help them in their new work (v.6). The apostles were able to continue preaching; and many more believed and were baptised - including many priests (v.7).

STEPHEN, A MAN FULL OF FAITH (6:8-14)

One of the seven elected brethren was called Stephen, a Greek name suggesting he was a Greek speaking Jew. He was a man *"full of grace and power, who did great wonders and signs among the people"* (v.8 RSV). Although he had been chosen for a serving position he had an amazing grasp of the Scriptures and the ability to expound them powerfully. This brought him into conflict with some foreign Jews who wanted to argue about the Scriptures. But they met their match! *"And they were not able to resist the wisdom and the spirit by which he spake"* (v.10). The sensible course would have been to think about what he said; instead human nature raised its ugly head. These angry Jews bribed men to raise false charges against Stephen *"We have heard him speak blasphemous (shocking and disrespectful) words against Moses, and against God"*. They knew that under the Law the penalty for blasphemy was death (Lev.24:16). How much they must have hated this righteous man. They stirred up the ordinary people in the streets as well as the elders and scribes. Consequently Stephen soon found himself dragged before the Sanhedrin. This was a group of seventy of the supposedly wise old men of Jerusalem. But how could Stephen expect a just trial from the same group who had so unjustly tried his Master not many years earlier.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다 (6:13-15)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에 대해 거짓으로 말하기를, 스데반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모세의 율법을 폐할 것이라 했다고 하면서 이는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모독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물론 이 말 중에서 일부는 맞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읍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었다. 예수께서는 율법에 따른 관습들이 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고 하느님께서도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셨다(요한복음 4:20-24 절).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아 여기에 세부적 전통을 결합시켜 법규범들을 수립하였는데 그 누구도 이 법들을 모두 지킬 수는 없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요점을 놓치고 있었다.

스데반은 아직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지만,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스데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라고 되어있다(15 절). 스데반의 모습이 스데반 자신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반대하는 스데반의 얼굴이야 말로 오직 모세만이 보여줄 수 있었던 천사의 모습이었던 것이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영광의 하느님”에 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느님께서 스데반이 말할 때 그와 함께 하셨다. 예수께서도 하느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바 있다(마태복음 10:17-20).

스데반은 훌륭한 연설을 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적절히 언급하면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야훼를 경배하는 데 연관되는지를 말하고 있었다. 스데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하느님의 목적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땅 밖에서도 일하신다. (주. 스데반의 사건이 있고 나서 곧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 성전이 없어도 하느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예수께서 성전이 멸망될 것을 예언하셨는바, 스데반의 사건이 있고 나서 곧 이루어지게 된다)
-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 메시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야훼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핍박하였다.

야훼께서는 그를 섬기려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지 건물과 관습을 중히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스데반이 예를 들은 아래 내용들을 살펴보자.

(1) 아브라함 (2-8 절)

- 영광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때는 모세의 율법이 없던 때였고 율법이 생기기 430 년 전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느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
-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아직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는 못했었다 - 그러므로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일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다.
-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된 땅을 떠나 타향에서 400 년 동안 살았다.
- 하느님은 이스라엘 땅 밖에서도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 야곱의 열 두 아들들로부터 민족이 형성 되었다.,

BEFORE THE SANHEDRIN (6:13-15)

The false witnesses told the Sanhedrin that Stephen had been speaking blasphemous words against Jerusalem and the Law of Moses by saying that Jesus of Nazareth would destroy the city and abolish the Law. This was partly true! Jesus had taught that the Temple and the city of Jerusalem would be destroyed. He also taught that the customs of the law would be changed; true worshippers wherever they were, would worship in spirit and truth (John 4:20-24) as in fact God had always wanted. The Jews had built into the Law of Moses an amazing amount of extra detail and tradition, so that no one had any hope of keeping it. They had missed the point that it all pointed forward to the Messiah.

At this stage Stephen did not answer, but *“all that sat in the council saw his face as it had been the face of an angel”* (v.15). That should have been their answer. Why? Because the same thing happened to only one other man in Scripture - Moses, the man whom they said Stephen spoke against! How appropriate that Stephen began his speech by referring to *“the God of glory”* who appeared to Abraham. The same God was going to be with Stephen as he spoke, as Jesus had promised (Matt 10:17-20).

Stephen's speech is a masterpiece! He referred to major characters and events in Israel's history to show what is necessary to acceptably worship Yahweh. He set about to prove that:

- God's purpose was not limited to any place. Yahweh could work outside of the land of Israel. (Note: This was about to happen again as the word of life was about to go out to the Gentiles).
- People had acceptably worshipped God without a Temple. (Jesus had prophesied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so this would also happen again).
- The Law given by the hand of Moses was for Israel's instruction, but they had always broken it.
- Messiah was their hope – not the Law. But they had always rejected the prophets Yahweh had sent.

Yahweh always has been more interested in the attitudes which move men to serve Him, than buildings and places and customs. Consider the examples Stephen used:

(1) Abraham (vv.2-8)

- The God of glory appeared to Abram in a land of idolaters – not the land of Israel.
- He was called 430 years before the Law of Moses existed, and still was pleasing to God.
- He moved to the land of promise but did not inherit any of it – he will in the future.
- His seed left the promised land and lived in a strange land for 400 years!
- Outside of the land of Israel God was with them and the nation grew from Jacob's twelve sons.

(2) 요셉 (9-16 절)

- 요셉의 형제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요셉을 배척하였다 - 요셉을 배척한 것은 예수를 배척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 이스라엘 열두 족장들은 사악하게 행동했으며, 하느님께서서는 애굽 땅에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 요셉은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으며, 예수께서도 하느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된 것과 동일한 것이다.
- 요셉은 약속의 땅에 되돌아가지 못했다. - 애굽에서 죽었다.
- 요셉의 가족들은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 어둠의 땅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했다.

(3) 모세 (20-41 절)

- 율법을 제공한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 모세는 자신의 백성을 구하려 했으나 사람들은 모세를 배척했다. 이는 예수의 경우와 동일하다.
- 하느님은 미디안에서 모세를 축복하셨고 두 아들을 주었다.
- 하느님은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 이 장소는 거룩한 장소라고 불리지만, 이 장소는 약속의 땅 안이 아니었고 그 바깥이었다.
- 모세가 이적을 보인 장소는 애굽 (1), 홍해 지역 (2), 광야(3)이다. 이 모든 장소들은 이스라엘 바깥이었다.
- 모세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에 관해 예언하였다. (37 절. 신명기 18:15-19)
- 시내산에서 천사가 나타나 모세와 대화하였고 십 계명을 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즉각 반대하였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 스데반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이스라엘 민족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나, 하느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결국 포로 생활을 해야 했다.

(4) 성전 (41-50 절)

- 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야훼께 예배하였다. - 이 장막은 헤롯 시대의 성전처럼 거대한 것이 아니었다.
- 사람들은 헤롯의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헤롯의 성전은 하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며 오히려 광야의 성전이 하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지어진 성전이었다.
-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내쫓았지만 다윗의 시대에도 여전히 성전은 세워지지 않고 있었다.
- 다윗은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성전 없이도 하느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 다윗은 예루살렘 안에 간단한 장막을 세우고 있을 뿐이었다.
- 솔로몬은 거대한 성전을 세웠다. 그러나 그 성전이 준공되어 열리던 날 솔로몬은 “가장 높으신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살지 않으십니다”라는 말에 동의했었다(48-49 절. 열왕기상 8:27)

(2) Joseph (vv.9-16)

- Joseph was rejected by his brothers, the fathers of Israel – just as they had rejected Jesus.
- “God was with him” in the land of Egypt, his brothers in the land of Israel were wicked.
- Joseph became second to Pharaoh, just as Jesus was second only to God.
- Joseph never went back to the promised land – he died in Egypt
- His family had to leave the land because of famine - they multiplied in Egypt, the land of darkness

(3) Moses (vv.20-41)

- Their lawgiver was born in Egypt.
- Like Jesus he was rejected when he tried to deliver his people.
- In Midian God blessed him with two sons.
- God appeared to him in the burning bush in the wilderness - and the place was called “holy ground”, even though it was outside of the land of promise.
- He gave the people signs (1) in Egypt (2) at the Red Sea (3) in the wilderness, all outside of Israel.
- Moses prophesied about the coming of Christ (v.37, Deut.18:15-19).
- The angel spoke to him at Sinai and gave him the ten commandments and the Law but immediately the people of Israel rejected him and made a golden calf.
- Stephen did not say, but they all knew - he did not enter the Land.
- The nation did enter, but God eventually sent them into captivity because they worshipped idols instead of Him.

(4) The Temple (vv.41-50)

- Israel first worshipped Yahweh in a tent in the desert – not in a magnificent Temple like Herod’s.
- The Tabernacle was made to God’s requirements unlike the Herod’s Temple that they were so proud of.
- Joshua drove out the Canaanites, but the temple site was not captured until the time of David.
- David,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worshipped acceptably without a temple – he set up a simple tent in Jerusalem.
- Solomon built a magnificent temple, but on the day it was opened he recognised that “the most High dwelleth not in temples made with hands” (vv.48-49; 1 Kings 8:27).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질책하다 (7:51-53)

스데반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예수에 관해 말하고 있음은 분명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듯이 형제들은 그들을 배척했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배척했고 심지어 예언자들을 죽이기도 하였다. 이와 똑같이 예수도 배척했고,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 분을 죽이기 까지 했다. 사람들은 “바로 그 의인” 즉, 죄 없는 하느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서 율법을 범했다. 조상들이 했던 똑 같은 일을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행했다.

스데반을 살해함 (7:54-60)

산헤드린 공의회는 스데반의 능력있고 논리정연한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화를 냈다. 공의회는 스데반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스데반의 책망을 듣고는 오히려 그를 죽이고자 했다.

스데반이 담대히 증거하자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스데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는 악한 세상에 대해 심판하실 주를 표상하는 것이었다. 산헤드린은 이제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듣는 것은 오히려 하느님을 모독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분노로 가득찬 나머지 자신들의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끌고 성읍 밖으로 나가 돌을 던져 죽였다. 스데반이 당한 고통을 어디에 비길 수 있겠는가? 스데반은 주를 위해 죽은 최초의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데반은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다(베드로 전서 2:23).”

예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나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셨듯이 기도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었기 때문이었다. 스데반은 유대 사람들이 택한 일에 대하여 기도하기를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겨두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 청년은 에클레시아를 무자비하게 박해하였다. 이 청년은 스데반이 한 마지막 말을 들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 청년은 나중에 회개하였고 이방인을 위해 일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우리 모두 상상해 보자. 스데반이 부활한 뒤, 자신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삶의 원리 - 타인의 질시를 참고 견뎌야 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타인들이 조롱하며 대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혹시 그런 시선을 피하여 도망하거나, 항부로 대답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임을 숨기고 싶거나 할 경우에는 스데반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만약 스데반이 반대에 직면하여 복음전파를 중단했다면 아마도 죽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스데반은 비록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여도 담대하게 진리를 수호했다. 그의 업적은 헛되지 않았다. 스데반은 주께 신실하였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지낼 것을 알았다. 또한 그는 예수께서도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음을 보고 자신 스스로도 용기를 낼 것임에 틀림없다.

오늘날 우리는 몇몇 특수한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진리를 전한다 해서 죽음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용기를 내어 우리가 가진 놀라운 소망과 믿음에 대해 전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말하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 노릇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 역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디모데 후서 2:11-12)”라고 했다.

STEPHEN CONDEMNS THE JEWS (7:51-53)

Although Stephen did not mention Jesus at all, it is obvious that he was referring to him. Both Joseph and Moses were at first rejected by their brethren. Throughout history the people of Israel had rejected the words of the prophets and had often killed the prophets. In the same way the Jews had rejected Jesus' message and killed the one who fulfilled the Law of Moses. They were the ones who had broken the Law by killing "*the Just One*", the sinless Son of God. They were just like their fathers.

THE MURDER OF STEPHEN (7:54-60)

The Sanhedrin had listened quietly to the power and logic of Stephen's words. But now they rose up in great anger. They knew he was right - "*they were cut to the heart*". But he had condemned them - he must die!

But Stephen's witness had pleased his Heavenly Father and he was given a vision to encourage him. He saw the Lord Jesus Christ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His father, a sign that judgment would come on this wicked nation. The Sanhedrin would not listen any more; they thought this was just more blasphemy. Blocking their ears they rushed at him in rage, dragged him out of the city and stoned him to death. Can we imagine the agony of that cruel death Stephen suffered - the first of many to die for their Lord. Like his Lord "*he committed himself to him that judgeth righteously*" (1 Pet 2:23).

As Jesus was dying he crie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Stephen could not say this; since Jesus' death there had been opportunity for the Jews to repent and change their ways. But after all they had done to him, Stephen said "*Lord, lay not this sin to their charge*". And he fell asleep. The men who stoned Stephen gave their clothes to be guarded by a young man called Saul, from Tarsus. Following Stephen's death this young man inflicted terrible cruelty on the ecclesia. But he must have thought about Stephen's words, for as we know he was converted and became the great apostle to the Gentiles. Imagine Stephen's joy at the day of resurrection to know that his death was not in vain.

PRINCIPLE FOR LIVING – PUT UP WITH THE HATRED OF OTHERS

How do we react when people ridicule us for having religious beliefs which make us different? Next time you are tempted to walk away, or answer rudely, or pretend you are not a follower of Christ, think about Stephen. He would not have died if he had stopped preaching when he received opposition. But he fearlessly defended the Truth, although he knew it could mean death. He knew his work was not in vain. He also knew that because he had been faithful to his Lord he would rise again to serve Him forever. No doubt he also took courage from the fact that Jesus had also suffered death at the hands of the Jews.

It is very unlikely that we will be called on to suffer death for preaching the Truth, although it has happened in some countries. Let us be courageous and tell people about what we believe and the wonderful hope we have. As Paul told the young man Timothy "*if we be dead with him (Christ), we shall also live with him; If we suffer, we shall also reign with him; if we deny him, he also will deny us*" (2 Tim 2:11-12)

스데반의 연설을 요약해 보자

- 아브라함은 외국에서 부름을 받았으며, 유업을 받지는 못했다.
- 구원자인 요셉을 형제들은 배척하였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 또 다른 구원자인 모세를 하느님께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은 모세를 배척하였다.
- 하느님께서서는 광야 장막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으며 율법을 내려주셨다.
- 하느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했다.
-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다.
- 스데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조상들에 비하여 더욱 죄책감을 느껴야 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기 까지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자

- 스데반은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으나 하느님의 말씀을 잘 전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 오늘날 우리는 매일 하느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서 스데반과 같이 될 수 있다.
-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함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격려하면서 기회가 있을수록 전도를 지속하여야 한다.
- 우리는 행동과 말로서 매일매일 전도할 수 있다.
- 우리가 에클레시아 생활에 단지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라야 한다.
-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개종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할 뿐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 스데반은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그 나라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다면 우리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해야 할 성서 구절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 때요,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요한복음 4:23)

SUMMARY OF STEPHEN'S SPEECH

- Abraham was called in a foreign land and did not receive his inheritance.
- Joseph, a deliverer, was rejected by his brothers but God was with him in Egypt.
- God raised up another deliverer, Moses, whom Israel rejected.
- God dwelt in the tabernacle in the wilderness, where He also gave the Law.
- God loved David although he never worshipped in a temple.
- Solomon built a temple but acknowledged that God did not live there.
- The Jews of Stephen's day were no different than their fathers; but they were more guilty because when they had God's Son in their midst they rejected and killed him.

LESSONS FOR US

- Stephen was chosen to care for widows but he could also expound God's Word powerfully - we can only do this by reading it each day.
- Let us not stop preaching because people oppose or criticise us but be courageous and preach when we have the opportunity.
- We can preach each day just by what we do and say.
- Don't be content to be part of ecclesial life and think that will save us - our hearts must be right in God's sight.
- Through Stephen's death Paul was converted and so we as Gentiles have heard the gospel - we never know the results of our work for God.
- Stephen was given a vision of the future; if we keep a vision of the kingdom in our minds, it will help us face troubles in life.

VERSE TO REMEMBER *"But the hour cometh, and now is, when the true worshippers sha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for the Father seeketh such to worship Him"* (John 4:23)

제 5 단원 - 학습문제

1. 유대인들은 스데반에 대하여 어떤 죄목을 걸어 고소하였는가? 그리고 스데반은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였는 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라.

2. 스데반은 자신의 연설 중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전해 주려고 시도하였는가?

3. 스데반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특정한 장소에서나 특정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원하신다고 연설하였는데, 스데반이 열거한 주요한 본보기 네 가지는 무엇인가?

4. 요셉과 모세가 예수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5.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

6.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질시할 때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깊이 고찰 해보자 - 애굽에 있던 요셉

창세기 39 장에서 하느님께서 요셉의 생활가운데 돌보신 장면을 기록한 성서 구절들, 2,3,4,5,6,21,22,23 절을 색칠해 보면 좋을 것이다. 요셉은 언제나 하느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요셉이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지켜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는가? 요셉은 야훼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보내졌었다. 요셉이 그릇된 길을 간다고 해서 그 누구도 탓할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은 야훼께서 항상 지켜보심을 믿고 있었기에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요셉은 굳건한 양심을 지니고 있었다. 요셉은 그가 사랑하는 하느님께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다.

SECTION 5 - QUESTIONS

1. What were the charges which the Jews laid against Stephen? Briefly comment on how he answered them.

2. In Stephen's speech what main point was he trying to show the unbelieving Jews?

3. Outline the four main examples which Stephen used in his speech to show that God wants believers to worship Him in spirit and truth rather than in a particular place and manner.

4. How did Joseph and Moses point forward to Jesus?

5. Why did the Jews murder Stephen?

6. How must we learn to put up with the hatred of others?

A FURTHER LOOK AT - Joseph in Egypt

It is a good exercise to colour in the words in Genesis 39 which show God's overshadowing care in Joseph's life - verses, 2,3,4,5,6,21,22,23. Because Joseph always trusted God, his Heavenly father caused everything he did to go well, even in prison. What an example to us! He was sent away as a young man to a land where nobody served Yahweh. Who would have known if he did wrong - Yahweh! Joseph always believed that, and so he always did the right thing. He had a strong conscience - he did not want to hurt the God he loved.

제 6 단원

복음의 그물망이 널리 퍼지다

“흠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읽을 말씀: 사도행전 8 장

공부할 목표

이번 단원에서는 복음이 유대인 이외에게 전파되는 것에 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복음은 이제 유대 민족만의 신앙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갈라디아서 3:28)”가 되게 되었다. 복음의 그물망은 널리 퍼졌는데, 처음에는 북쪽인 사마리아로 향했고 다음에는 남쪽의 에디오피아로 향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단지 침례만 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한편, 진지한 마음으로 진리를 살피던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배경을 살펴보자 (1-4 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은 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사울은 집집 마다 찾아 다니며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 내어 감옥에 넣었다(3 절). 열두 사도들을 빼고 다른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곳 지방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흠어져 갔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 페니키아, 키프러스, 그리고 안디옥 지역으로까지 피해갔다(사도행전 11:19). 그러나 어디에 가든지 제자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제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침묵 속에 가둬두지 않고 있었다.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다 (5-8 절)

빌립은 과부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은 뒤(6:5) 사마리아로 건너가 그곳에서 전하기 시작했다. 유대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를 혼용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이 보통이었다(열왕기하 17:41, 요한복음 4:22). 그러나 빌립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부족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요한복음 4 장). 하느님의 뜻에 따라 드디어 때가 왔다. 빌립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대단한 반응이 있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자, 한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했으며 자신들의 병이 고침을 받자 또한 기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는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특이한 이적을 행하던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몬에 대하여 “하느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오자 상황이 변했다.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다.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놀라며 자신도 침례를 받기 원했다 - 그러나 과연 시몬은 참된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았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다 (14-25 절)

사도들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가 눈에 띄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을 돕기 위해 두 사람을 보내기로 하였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이들이 그곳의 형제 자매들에게 안수하자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렸다(사도들만이 성령을 받게 할 수 있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사도행전 1:8의 구절은 박해를 받음과 더불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SECTION 6

The Gospel Net Widens

“Therefore they that were scattered abroad went everywhere preaching the word”

READING: Acts 8

OBJECTIVE

This lesson introduces the gospel going out to people who were not Jews. Belief, not nationality, was the basis of becoming *“one in Christ Jesus”* (Gal 3:28). The gospel net had widened, first north to Samaria and then south to Ethiopia. We will see how the Samaritans gladly accepted the gospel; but there was one who was baptised without true repentance. However, the Ethiopian, who was sincerely seeking the Truth, went home rejoicing.

BACKGROUND (vv.1-4)

Following the stoning of Stephen, violent persecution broke out against the Jerusalem ecclesia. Saul went into houses and dragged men and women off to prison (v.3). The brethren and sisters, except for the twelve apostles, were scattered throughout neighbouring Judaea and Samaria. Some travelled as far away as Phoenicia, Cyprus and Antioch (Acts 11:19). And wherever these disciples went, they preached the gospel. The Word of God could not be silenced.

THE TRUTH COMES TO SAMARIA (vv. 5-8)

Philip, who now had experience in caring for others (6:5) went down to Samaria to preach there. Normally the Jews despised the Samaritans who practised a mixed-up form of the Law of Moses (2 Kings 17:41; John 4:22). Philip, no doubt, knew that Jesus had preached to the Samaritans with quite a deal of success; and at that time (John 4) Jesus had said that more labourers were needed in the area. In God's providence the time had come. Philip immediately *“preached Christ unto them”*. The response was overwhelming! *“And the people with one accord gave heed unto those things which Philip spake, hearing and seeing the miracles which he did”*. There was great joy that they had heard the gospel and that their sick had been healed. However although the majority heard and saw, there was a man called Simon who was more interested in what he saw. He had been practising magic in Samaria for some time before Philip came; the Samaritans had believed that he was *“the great power of God”*. But of course that changed when Philip came. The people believed the gospel and were baptised. Simon was amazed at the miracles Philip did, and so he was baptised too - but was it a baptism of true repentance?

THE VISIT OF PETER AND JOHN (vv.14-25)

The progress of the truth in Samaria was so remarkable that the apostles decided two of them should go down to help Philip. They laid hands on new brethren and sisters at Samaria so that they could receive the Holy Spirit (only the apostles could do this). The words Jesus had spoken in Acts 1:8 were beginning to be fulfilled - and all because of persecution! God works in amazing ways.

시몬은 사도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시몬은 자신도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능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그는 간절히 원한 나머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몬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원한 것은 아니었다. 베드로는 시몬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의 마음이 하느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소”라고 하였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할 것을 권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몬이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시몬의 놀라움은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라. 베드로는 시몬에게 “당신은 악한 뜻을 품고 있으며, 죄에 사로잡혀 있소”라고 말했다. 이 말은 시몬이 “그곳에서 나오기 위해”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악의 포로로 잡혀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시몬은 사도들에게 자신이 하느님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되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였다(24 절). 물론 시몬은 자신이 회개했으며 용서 받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22 절).

삶의 원리 -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진리를 찾지 말라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결정임은 분명하지만, 시몬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릇된 이유로 침례를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오늘날 벌어질 수 있는 그릇된 이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친구들이 모두 침례를 받는 것 같으므로...
- 부모님들과 친척들의 분위기에 이끌려서...
- 침례를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할 것이며, 나로서도 “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어 보이기에...
- 침례를 받아야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귄 수 있을 것 같기에...
- 침례를 받으면 에클레시아 내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기에...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한다. 사도들이 시몬의 마음을 살폈던 것과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베드로 후서 3:18)”라는 말씀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일이다. 우리가 성서를 배우면 배울수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은혜이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새 생활을 시작할 준비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한 믿음으로 그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에디오피아 내시 (26-40 절)

빌립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 사막(광야)을 지나 ‘가자’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지시했다. 빌립에게 특별한 일이 부여되었다. 빌립은 이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다. 이 내시와 관련해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자.

- 이 내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다. 물론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 이 내시는 에피오피아 여왕 간다게를 위해 일하는 높은 직책의 관리였는데, 왕실의 재무를 맡아보던 사람이었다.
- 이 내시는 아프리카 북부의 나일강 지역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1500km 를 여행해 온 사람으로서 그의 여행목적은 하느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였다.
- 이 내시는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뜨거운 태양빛 아래 먼지 날리는 길을 여행하면서도 하느님의 말씀 - 성서를 읽고 있었다.

However when Simon saw the apostles do this, he was very impressed. If only he too could lay hands on people and give them power. How important he would become! So he offered the Apostles money if they gave him their powers. We know that he did not want this for any good motive, for Peter rebuked him *"thy money perish with thee, because thou hast thought that the gift of God may be purchased with money. Thou hast neither part nor lot in this matter: for thy heart is not right in the sight of God"*. Peter encouraged Simon to repent of his sin. How amazed Simon must have been to realise that through this wonderful power the apostles knew what he was thinking! Peter went on to say that Simon was *"in the gall of bitterness, and in the bond of iniquity"*. What does this mean? Peter was saying that Simon was trapped in a state of wickedness and captive to sin. He had been baptized *"for what he could get out of it"*. Simon asked the apostles to pray for him so that he would not be judged by God (v.24). But of course he would have to prove himself worthy of forgiveness (v.22).

PRINCIPLE FOR LIVING - DON'T SEEK THE TRUTH FOR OUR ADVANTAGE

Obviously baptism is a very personal decision, but the lesson of Simon shows us that it is possible to be baptized for the wrong reasons. Consider the following examples of what some wrong reasons for being baptized today may be:

- All my friends are being baptized
- Mum and Dad and other relatives want me to be baptized
- It will make people think I am good and I will be more "part of the group"
- I can get a girlfriend or boyfriend if I get baptized
- I will be able to become an important person in the ecclesia

However let us always remember that if the apostles knew Simon's heart, how much more does our Heavenly Father know what is in our hearts. How wise we are to begin to study His Word and so *"grow in grace, and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2 Pet.3:18). The more we study the Bible the more we will realize how gracious God has been in sending His Son to give us a way of salvation, and how much we need it. Then we will be ready to confess our sins and start a new life of service to our God. So let us hear God's words and respond in genuine belief.

THE ETHIOPIAN EUNUCH (vv.26-40)

An angel directed Philip to go to the road leading to Gaza across the desert. He had another special work to do. On this desert route he came across an Ethiopian eunuch. Consider what we are told about this man:

- unmarried and unable to produce children.
- a high official of Candace queen of Ethiopia, he was in charge of all her treasures
- he had travelled over 1500 km from a country on the upper Nile in Africa to Jerusalem to worship the God of Israel
- and on the hot dusty road home he was reading - his Bible!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 하느님의 영이 빌립에게 임하여 이 사람이 탄 마차에 다가갈 것을 명했다. 빌립은 마차에 다가가 내시에게 질문을 던졌다. 빌립의 첫 질문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라는 것이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고, 빌립을 청해 자기 옆에 앉게 한 후 성서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침 이사야 53:7-8을 읽고 있었는데, 이 구절의 내용이 이사야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었다.

빌립이 설명했다. 이 구절은 하느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말한 구절이며, 하느님의 아들은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고, 하느님의 아들은 대를 이을 육신의 자녀를 두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에 관해서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빌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남녀를 불문하고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결혼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막론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갈라디아서 3:26-27).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내용을 들은 것이다! 내시는 이제 성서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내시는 유대인의 하느님 야훼야말로 참 하느님이시며, 야훼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전해졌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며 아브라함의 자손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갈라디아서 3:28-29). 내시는 빌립이 말한 것들을 잘 이해했으며 그가 궁금해 하던 것들에 대한 대답들을 얻을 수 있었다. 물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되자 내시가 말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 데 장애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36 절)”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였고(37 절), 그들이 타고 가던 마차가 멈췄다.

성서의 기본 가르침 - 침례란 물에 폭 잠기는 것을 말한다

내시에게 벌어진 그 다음의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과 동시에 격려를 준다. 빌립과 내시는 물에 내려갔고, 빌립은 이 흑인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는 침례를 시행했다.

우리에게 주는 격려는 -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느님의 약속에 우리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점이다.

유리에게 주는 교훈은 - 침례는 다음의 사항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 (1) 이러한 침례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즉흥적인 개종”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내시는 유대의 가르침에 익숙해 있었으며, 단지 구약 성서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할 상태였었다. 그러므로 이 내시가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고백이었다.
- (2) 빌립과 내시가 “물로 내려가” 침례를 받았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자. 일부에서 말하듯 어린 아기의 머리에 물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물에 내려가라고 요구하셨다. 왜냐하면 물을 들어가 잠긴다는 것은 우리의 옛 생활방식에 죽음을 고하는 것을 말하고,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시 살아 이제는 새로운 생활방식에 따르는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우리를 동일시하는 것이다(로마서 6 장, 에베소서 4:22-32, 골로새서 3:1-17 등등). 침례를 말하는 그리스어 “바티조”는 “염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은 옷감을 염색액에 폭 담가 염색한다는 의미이다. 침례에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 있으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동에 변화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골로새서 3:1)”

As the Ethiopian sat reading the words of the prophet Isaiah, the Spirit of God told Philip to join to the man in his chariot. Philip's first words were *"Understandest thou what thou readest?"* The Ethiopian replied *"How can I, except some man should guide me"* and he invited Philip to sit with him and explain the scriptures to him. The Ethiopian was reading the words of Isaiah 53:7-8 and couldn't work out whether Isaiah was talking about himself or some other man.

Philip explained that Isaiah was speaking about the Son of God who was slain unjustly without any natural children to continue his name. Philip would have continued by telling the eunuch that Christ had been raised and was now at God's right hand; through Him all people, man or woman, Jew or Gentile, black or white, married or single, could be saved through forgiveness of sins in baptism (Gal 3:26-27). The Jewish teachers in Jerusalem would not have told the Ethiopian about Jesus! But he obviously knew his Bible. He knew that the God of the Jews was the one true God and that His purpose was connected with the promises made to the fathers of Israel. Now he found that through baptism into Christ he could become a child of God and part of Abraham's seed. (Gal 3:28-29). Everything Philip said made sense and filled in the gaps for him. So much so that as they came to a stretch of water he said *"See, here is water! What is to prevent my being baptized?"* (v.36 RSV). Upon his confession of belief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v.37) the chariot was stopped.

BASIC BIBLE TEACHING - BAPTISM IS FULL IMMERSION

What happened next is encouraging and instructive. Philip and the eunuch both went down into the water, and Philip baptized this humble black man for the forgiveness of his sins.

Encouraging - because it shows us that we as Gentiles can also have the privilege of being part of God's purpose although it is based on the promises to the fathers of Israel.

Instructive - because it clearly shows what true baptism involves.

- (1) This was not a Pentecostal-type "on the spot" conversion. First God requires a knowledge of His plan and purpose. The eunuch had been taught the scriptures by his Jewish teachers and only needed to be shown that salvation was through Jesus Christ the Son of God who fulfilled all the types and promises of the Old Testament. The eunuch's confession of his belief in the Son of God was therefore not just words without meaning.
- (2) Notice that Philip and the Ethiopian *"went down both into the water"*. This was no sprinkling of water on the head of a young baby. God requires us to go right down under the water. Why? Because this represents dying to the old way of life, and being brought back up out of the water (as though from the dead) to start a new way of life. We identify with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Rom.6, Eph.4:22-32; Col.3:1-17 etc.). In fact the Greek word "baptizo" was used in the dyeing trade, where a garment was put right into a vessel of fluid to totally change its colour. This is the idea behind the word in the New Testament - a total change in our direction and commitment. *"If ye then be risen with Christ, seek those things which are above"* (Col 3: 1).

전도의 과업이 지속되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은 후, 하느님의 영은 빌립을 이끌어 아소도(아스돗)로 인도했다. 빌립은 이방 지역인 팔레스타인의 해안 지방을 돌며 복음 전도를 계속했다 (39-40 절).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과 형제가 되었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여행길에 다시 올랐다. 이제 내시의 여행길은 새로운 여행길이었다. 새로 발견한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고향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사가 되어있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열심을 다했을 것이리라.

이 단원을 요약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자:

-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에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복음은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으로 전파되게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증거를 보게 되면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이다.
- 하느님의 아들을 믿고 회개하며 그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들은 시몬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시몬처럼 위선적인 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같아야 할 것이다.
-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성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기억해야 할 성서구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인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갈라디아서 3:26-29)

THE WORK CONTINUES

Following the eunuch's baptism, the Spirit of God caught away Philip and he found himself in Azotus (Ashdod). He continued his preaching in the towns along the seacoast of Palestine which was mainly a Gentile area (vv.39-40). Meanwhile the Ethiopian eunuch, now Philip's brother in Christ, continued his journey home. But what a different journey! He was full of joy because of his new-found hope. His understanding was greatly expanded. He too was a name bearer of Christ, an ambassador for Christ in his own far-away land. And we can imagine how hard he would have tried to convert those of his own nation.

SUMMARY AND LESSONS FOR US

- Terrible persecution of the Jerusalem ecclesia meant that the gospel was taken to other places. We should be like the Samaritans who believed the gospel when they heard the Word of God and saw the evidence of its truth.
- Let us not be like Simon; God requires a genuine belief in His Son and total immersion in the waters of baptism to demonstrate our repentance. If we are insincere and hardened in sin like Simon was, we will be rejected at Christ's coming. Instead we should be like the Ethiopian eunuch, a Gentile who gladly accepted the gospel.
- Let us also be like Philip who preached to others the exciting message of the Bible.

VERSES TO REMEMBER: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there is neither bond nor free, there is neither male nor female: for ye are all one in Christ Jesus. And if ye be Christ's, then are ye Abraham's seed, and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 (Gal 3:26-29)*

제 6 단원 - 학습문제

1.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설명해 보라.

2. 마술사 시몬은 어떤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느님께서 왜 시몬의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3.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한 것을 생각해 보자. 하느님께서 참된 침례를 위해 요구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되는가?

4.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라 알고 나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었는가? 물에 잠기는 침례와 그렇지 않은 침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더 깊이 살펴보자

내시였던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이사야 53 장의 내용을 읽어 보고, 다음에 이어지는 54-56 장도 읽어보기 바란다. ‘내시’의 상황과 이사야서의 내용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살펴보자.

SECTION 6 – QUESTIONS

1. Describe the response of the Samaritans to the preaching and miracles of Philip.

2. What was wrong with the attitude of Simon the Magician? Why was it not acceptable to God?

3. Using examples from the lesson on Philip's preaching to the Ethiopian Eunuch, show the conditions God requires for true baptism.

4. How do we know that baptism is full immersion in water? Does it really matter?

DIGGING DEEPER

The Ethiopian was a eunuch, and he was reading from Isaiah. This is very interesting when we have a look at chapter 53 which he was reading from, and also the following chapters (54-56). How do these chapters relat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eunuch?

제 7 단원

사울이 개종하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읽을 말씀: 사도행전 9:1-31; 22:1-22; 26:1-23

공부할 목표

예수를 반대하는데 열심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겸손해 졌다. 이번 단원에서는 사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울의 배경에 관해 알아보자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급속히 퍼져가기 시작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가 이르렀으며, 하느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울을 택하셨다. 사울(바울)은 나중에 회고하기를, 하느님이 자신을 나면서부터 선택하셨다고 말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께서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15-16)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는데,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란 크나큰 특권이였다. 사울이 태어난 ‘다소’라는 도시는 로마의 중요한 속주(식민지)였던 ‘길리기아’ 지방에 있었으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00 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이었다. 길리기아 지방은 헬라의 학문과 상업의 요충지였으며 사울은 이곳에서 자라면서 헬라의 문화와 철학을 접했다. 사울은 헬라의 철학 저술가들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말할 수 있었다(사도행전 17:28, 21:40). 사울은 ‘다소’에서 자라면서 천막을 만드는 직업교육을 수련하였다. 사울은 나중에 천막짓기를 통해 생활비를 벌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사울은 가정에서 엄격한 종교교육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가말리엘은 율법사였으며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사도행전 5:34, 22:3). 사울은 바리새 파가 되었는데, 바리새 파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한 종교생활을 하는 무리들이었다 (사도행전 26:5). 사울은 자신의 이러한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며 지내고 있었다고 나중에 회고하였다 (빌립보서 3:1-6).

사울이 가진 다양한 경험은 추후, 그의 전도사역에 있어서 잘 활용되었다. 로마의 시민권, 헬라의 교육, 유대의 종교활동 등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사울이 처음에 나가고자 했던 방향은 크게 수정되어야 했다. 사울은 자신이 가졌던 조건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었지만 하느님은 그러한 사울의 배경을 활용하여 일하셨다. 사울은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만난 적이 있었을 것이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은 예수의 죽음은 율법을 범한 사람이 겪어야 할 당연한 형벌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도(道)”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SECTION 7

The Conversion of Saul

"He is a chosen vessel unto me, to bear my name before the Gentiles"

READING: Acts 9:1-31; 22:1-22; 26:1-23

OBJECTIVE

This lesson will show how Saul, the fiery and determined Jew, was humbled and how the whole course of his life was changed by God's intervention.

THE PREPARATION OF SAUL

The influence of the gospel of Christ was rapidly increasing. The time had come for the Gospel to go to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through God's chosen vessel - Saul. Paul later found out that God had chosen him from birth *"God separated me from my mother's womb"* (Gal.1:15-16).

By birth Saul inherited Roman citizenship, a great privilege in those times. His birthplace, the city of Tarsus, was the principal city of the Roman province called Cilicia, about 600 km. north of Jerusalem. It was a very important centre of Greek learning and commerce where Saul would hear of Greek customs and philosophy. He knew of Greek writers (Acts 17:28) and he spoke Greek (as well as Hebrew, Acts 21:40). There in Tarsus, Saul learned the trade of tent-making by which he would earn his living later on. Following a strict religious upbringing at home he was sent to Jerusalem to learn at the feet of Gamaliel, *"a doctor of the law had in reputation among all the people"* (Acts 5:34 see also 22:3). He became a Pharisee – the strictest sect of the Jewish religion (Acts 26:5). Eventually he could boast about his religious greatness (Phil.3:1-6).

Everything in his experience was to fit him for a future work: Roman citizenship, Greek education, Jewish religion. However, his overall direction had first to be changed, and when Paul considered his past qualifications as nothing then they could be fully used in God's purpose. It is likely Saul saw Jesus, and must have known of his crucifixion. He would have thought that it was a just reward for one so opposed to the precious Law! Jesus' growing group of disciples known as *"The Way"* must also be exterminated, thought Saul.

사울 - 그리스도를 박해하는데 열광적이었다 (1, 2 절).

사울은 모세의 율법경전(토라)을 지극히 높은 것이라 믿었다. 누구든지 이 율법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처형됨이 마땅했다. 사도행전 8:1-4 의 기록에 따르면 사울은 예루살렘 에클레시아를 황폐화 시키는 일을 하였다고 되어있다. 사울이 행했던 일들에 관해 알아보자.

-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인정했다 (사도행전 8:1).
- 사울은 하느님께서 택하신 많은 사람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옥에 가두었다.
- 사울은 그 사람들이 옥에 갇혀 죽는다고 하여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 사울은 그들을 억압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사도행전 26:10,-11)

하지만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더 굳건해졌다. 예루살렘을 피하여 나온 사람들은 “각처에 말씀을 전했다”. 사울 자신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사울이 행한 핍박은 복음을 널리 퍼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울은 신자들을 멸절시켜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도망한 신자들을 추적하려 하였다. 다메섹은 북쪽으로 250 키로미터 떨어진 도읍으로서 유대인들과 친한 Aretas 가 다스리고 있었다.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과 공회로부터 다메섹 지방의 공회당에 보낼 공문을 받았다. 이 공문은 신자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도록 권위를 부여하는 공문이었다. 사울은 이 공문을 가지고 급히 다메섹으로 출발하였다.

사울 - 굴욕을 당하다 (3-9 절).

사울의 마음은 증오와 광포로 가득하였으며 선생인 가말리엘의 충고, 즉 이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충고를 무시하고 있었다. 사울이 한 낮에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보다 강렬한 빛이 사울의 일행을 덮쳐왔으며 그들은 땅에 엎드러졌다. 사울도 역시 눈부심과 놀람에 싸여 엎드렸으며 공포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은 그를 부르는 분명한 소리들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물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는 살아계셨던 것이다!. 스데반이 옳았고 사울이 틀렸었다. 사울은 마치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자 고집하는 황소처럼 가시나무를 차고 있었던 것이다.

놀라움에 휩싸여 사울이 떨면서 말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겠습니까?”. 주가 대답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도행전 9:4-6)”. 목소리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장차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와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할 것이라 하였다 (사도행전 26:16-18).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일어섰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소리는 들었으나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분명히 들을 수는 없었다. 또한 아무 것도 보지 못했다. 사울은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사울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가 ‘뚝바른 거리’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갔다. 사울은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이곳을 향해 출발했었으나 지금은 아무런 소망 없는 죄수같이 이곳을 나가야만 했다.

SAUL - THE CRAZED PERSECUTOR (verses 1, 2).

Saul believed the Law (the Torah) was supreme. Men who challenged it, like Stephen, had to be removed. Acts 8:1-4 records the spread of the persecution under Saul who was making havoc of the ecclesia in Jerusalem. Think of the awful things he did:

- He approved of Stephen's murder (Acts 8:1).
- He shut up many of God's chosen ones in prison, binding both men and women.
- He consented to the death of imprisoned believers, and
- He scourged many in synagogues, trying to make them blaspheme (Acts 26: 10-11).

Despite this, as has always been the case, persecution strengthens the cause of the Truth. Those scattered from Jerusalem *"went everywhere preaching the Word"*. Unconsciously, Saul was helping the preaching of the Gospel. However, he was determined not to be defeated. He relentlessly pursued the fleeing believers to Damascus, a city about 250 kilometres north and governed at that time by Aretas, a king friendly to the Jews.

Saul, *"breathing out threatenings and slaughter"*, obtained letters from the High Priest and the Sanhedrin addressed to the rulers of the Damascus synagogue. These authorised him to seize the Christians and bring them bound to Jerusalem. Saul made haste to leave for Damascus.

SAUL - HUMILIATED (verses 3-9).

Saul was full of brooding fury and hatred, and he ignored his teacher Gamaliel's advice not to be involved. He pressed on through the midday sun, when suddenly an intense light brighter than the sun, flashed around the company of men, and they all fell to the ground. Dazzled and bewildered, Saul fell too, speechless for terror. Then he heard a voice clearly calling,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Who art thou, Lord?"* he asked, and the answer came,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Jesus of Nazareth! Alive! Stephen was right after all and he was wrong, so terribly wrong. He had been like an ox trying to go in the wrong direction, kicking against the goads.

Saul was trembling and astonished but said, *"Lord, what wilt thou have me to do?"* The Lord answered, *"Arise, and go into the city and it shall be told thee what thou must do"* (Acts 9:4-6). The voice told him that he had been appointed to turn people from darkness to light, that they may be forgiven and obtain life through faith (Acts 26:16-18).

Those with Saul had risen to their feet in the meantime but still stood speechless. The men with him had heard a sound but had not heard the voice distinctly. They had not seen anyone. Blind and led by the hand, Saul was brought into Damascus, to the house of Judas in the street called Straight. He came not as he expected, in triumph, but as helpless as the prisoners he had intended to lead out of the city.

그 후, 3 일 동안 사울은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한 가운데 회개의 나날을 보내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사울은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렇다! 예수는 실로 부활하여 그에게 찾아왔던 것이다. 사울은 예수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변화해야 했다. 고난을 받았던 예수는 부활했으며 메시아임이 분명했다. 사울 동안 곰곰 묵상하며 기도한 사울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자리잡게 되었으며 사울은 자신이 행했던 잔인한 일들을 회개하기 시작했다. 비록 눈은 멀었지만 사울은 이제 하느님과 그의 아들에 관한 일들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울이 전에 가졌던 광포한 마음보다 이제는 더 강력한 진리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오다 (10-19 절).

사울의 회개가 이처럼 진행되던 와중에, 다메섹에 거하던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명하기를,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그의 눈을 고쳐주어 보게 하라고 명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마침내 사울을 찾아갔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자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왔고 사울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사울이 이제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했으며, 이것은 사울이 들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2:14-15.

사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전파하기 위해 선택된 그릇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은 겸손하게 되었고 변화되었으며 죄를 씻기 위한 침례를 받았다. 사울은 다시 음식을 먹고 원기를 회복하였으며 성령을 받았다. 이제 사울은 자신이 무너뜨리려던 일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길을 나섰다.

사울이 일을 시작하다 (20-31 절).

사울은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했지만 그가 가졌던 열정은 변하지 않았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하였다. 유대인들은 사울의 변화에 크게 놀랐다.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사도행전 26:20)고 전했다. 사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전하는 메시지에 아무도 논쟁할 수 없었다.

갈라디아서 1:17 에 따르면 사울은 그 후에 아라비아로 이동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 시기에 사울은 장래 전도를 위한 준비를 하였고 회개의 다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하느님과 그의 말씀을 마음 가득히 이해했고 이를 위해 공부하며 기도했을 것이다. 사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사울의 전도는 점차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들은 사울이 증거하는 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사도행전 9:22)라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사울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생겨났다. 사울은 다메섹 도성의 성벽에서 바구니에 담겨 줄을 타고 내려가 탈출하게 되었다.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작이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난지 3 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제 사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진리와 화평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다. 사울은 다른 사도들이 자신을 반겨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사도들은 의심하며 사울을 거부하였다. 그러던 사울은 바나바와 친교를 맺게 되었고, 바나바는 사울을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이끌고 갔다. 이 자리에서 사울은 친교의 악수를 청함 받게 되었다.

Three dark days of repentance followed. Saul refused to eat or drink. He was searching his heart. Yes, the visitation of the risen Christ was real. He must obey the voice that demanded that he change his way. Jesus of Nazareth was the suffering yet resurrected Messiah after all. After three days of prayer and meditation, the impression of the risen Christ still clearly on his mind, Saul's repentance from his blaspheming and cruel ways was complete. Though blind, Saul was now beginning to see the whole purpose of God in His Son. That truth was more powerful than his own fierce efforts to eradicate it.

ANANIAS SENT TO SAUL (verses 10-19).

While Saul was repenting, another man in Damascus received a message from Christ. Ananias was told to go to Saul, lay hands on him and give him his sight. Hesitating at first because of Saul's fearful reputation, Ananias finally went to Saul. When he laid hands on Saul, immediately something like scales fell from his eyes and his sight was restored. Ananias then told him the purpose of the vision on the way confirming what Saul had heard:

"The God of our fathers hath chosen thee, that thou shouldest know His will, and see that Just One and shouldest hear the voice of his mouth. For thou shalt be his witness unto all men of what thou hast seen and heard" Acts 22:14-15.

Saul was to be a chosen vessel bearing Christ's name to Jew and Gentile. Humbled but converted by the incidents, Saul was immediately baptised to wash away his sins. Then he ate and was strengthened, and given the Holy Spirit. Saul then set out to rebuild the things he had before cut down.

SAUL BEGINS HIS WORK (verses 20-31).

Saul's life had been changed but he had not lost his vigour and zeal. Saul began at once to proclaim Jesus as the Son of God, in the Jewish synagogue at Damascus! The Jews were amazed at his change of message. He preached that they *"should repent and turn to God, and do works meet (worthy of) repentance"* (Acts 26:20). Although Saul was a new disciple, nobody could resist his powerful arguments.

Galatians 1:17 tells us that Saul's next move was to go to Arabia. This time was probably for him to prepare for his later work and reflect on the reality and momentous significance of his conversion. Study and prayer were needed to fill out his understanding of His God and the Word of God. He returned to Damascus. His preaching steadily increased. The Jews in Damascus could not answer Saul's proofs that Jesus must be the Messiah (Acts 9:22). Opposition grew until the Jews laid a plot to kill him. Saul escaped by being lowered in a basket down the walls of Damascus. How humbling this was. *"For I will shew him how great things he must suffer for my name's sake"* was beginning to happen.

Saul went back to Jerusalem. Three years had passed since he last left Jerusalem as the persecutor of Christ's disciples. Now he returned to this city as a follower of Christ, on a mission of truth and peace. He thought apostles there would gladly receive him, but he was viewed with suspicion, and rejected. He won the friendship of Barnabas, who introduced him to Peter and James. Then he was given the right hand of fellowship.

교제의 상황을 즐기던 것도 잠시뿐이었다. 예루살렘에는 사울의 옛 친구들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옛 친구들은 여전히 유대주의를 믿고 있었지만, 사울은 이 친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다. 마침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바로 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어느 날 사울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할 것을 명했다. (사도행전 22:17-21 을 참조하라)

사울은 다시 한번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가에사랴에서 탈출하였고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냄을 받았다. 이때부터 사울 - 전도 역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모험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다. (로마서 11:13).

이 단원을 요약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자:

- 하느님이 나면서부터 선택한 그 사람 사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크게 박해했었다.
-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개종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기억해야 할 성서구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9:15-16.

For a time he enjoyed fellowship in Jerusalem, but in that city were many of his former Jewish friends. Though they were still very zealous for Judaism, Saul wanted to preach Jesus Christ to them. Soon he was found debating the very people who had brought about the death of Stephen. Opposition against him mounted quickly and one day while praying in the Temple, Christ appeared to him in a vision, directing him to leave Jerusalem and preach to the Gentiles (cp. Acts 22:17-21).

Once more, with the aid of brethren, Saul escaped to Caesarea and was sent to Tarsus, his city of origin. Thus began the most exciting and adventurous preaching career ever recorded - Paul the apostle to the Gentiles (Rom.11:13).

SUMMARY AND LESSONS FOR US:

- The great persecutor of Christ's followers was the very man that God had called from his birth to be a chosen servant.
- Saul was stopped in his tracks by the appearance of Christ on the road to Damascus and the words he spoke.
- Saul was completely converted to the Lord Jesus Christ and became a preacher of the gospel of God as fulfilled in Christ.

VERSES TO REMEMBER: *"But the Lord said unto him, Go thy way: for he is a chosen vessel unto me, to bear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kings, and the children of Israel: For I will shew him how great things he must suffer for my name's sake". Acts 9:15-16*

제 7 단원 - 학습문제

1. 사울이 개종하기 전 청년 무렵에 관해 설명해 보아라.

2. '다소' 출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3. 사울의 개종이 이루어진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또한 사울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종 후 어떻게 보냈는가?

4. 사울의 개종과 관련한 일들을 살펴보고, 회개의 의미와 개종의 의미, 그리고 침례와 새 생활의 의미에 관하여 설명해 보아라.

SECTION 7 - QUESTIONS

1. Describe Saul's youth and life before his conversion

2. What happened to Saul of Tarsus on the way to Damascus?

3. For what purpose was Saul converted and how did he begin to fulfil this purpose immediately after his conversion?

4. Using the incident of Saul's conversion as an example, explain the meaning of repentance, conversion, baptism and newness of life.

제 8 단원

이방인 중에서 첫째로 개종한 사람 - 고넬료

“하느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읽을 말씀 : 사도행전 10 장

공부할 목표

하느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신 첫 번 사건에 관해 살펴보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자.

배경을 살펴보자

오랜 세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유대인 -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방인들에 비하여 순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누가복음 2:32 이사야 49:6) 라고 선언하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과 연관이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먼저 부르셨다. 그 후 유대인으로 개종하였던 구스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부르셨고, 마지막으로는 할례 받지 않은 로마사람에게도 침례가 베풀어지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크게 곤란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로마제국의 백부장이었던 - 고넬료 (1-8 절).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 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백부장이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로마부대에서 근무하던 군인으로서 권세 있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는 가에사랴에 살고 있었다. 가에사랴는 사도 빌립의 고향이면서 팔레스타인 - 블레셋 지방의 중요 사령부가 있던 곳이었다. 고넬료는 로마군대라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놀랄만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고넬료는,

- 경건한 사람이었다
-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2 절, 22 절). 고넬료의 영향을 받아 그의 온 집안도 하느님을 경외하고 있었다 (2 절).
-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던 사람이었다. (2 절, 4 절)
- 하느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2, 22, 35).

고넬료는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느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었다. 하느님께서 고넬료의 기도 응답하셨다.

고넬료와 같이 선행을 베풀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보상하심으로서 그 나라에 저절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고 그 복음을 이해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12)

SECTION 8

Cornelius: The First Gentile Convert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READING: Acts 10

OBJECTIVE

To show how God called the first Gentile to the gospel, by which we can have confidence that God is calling us too.

BACKGROUND

For many generations, Israel had thought that they were a superior nation. Jews considered themselves purer than the defiled Gentiles. But Jesus was declared, at his birth, to be a "light to lighten the Gentiles" (Luke 2:32 see also Isa.49:6). God had called the Samaritans who had some link with the Jews and their religion. Then came a Jewish proselyte - an Ethiopian eunuch. Last of all came the greatest challenge – to baptise an uncircumcised Roman. For Peter this would be a real test.

CORNELIUS - THE ROMAN CENTURION (verses 1-8).

Cornelius was a centurion, or captain of 100 men, and belonged to a company of soldiers called the Italian band, one of the more privileged bands of the powerful Roman army. He lived at Caesarea, the Roman headquarters in Palestine, and hometown of Philip. Despite his occupation and his strong Roman background, Cornelius had some wonderful characteristics. He was:

- a devout man
- a man who feared God (v.2, v.22). He feared God so much that his whole house was affected (v.2)
- generous to the people (v.2, v.4)
- prayed continually to God (ch.10:2, 22, 35).

He was a sincere and religious man, one with whom God was able to work. God would answer his prayers.

It would be easy to suppose that by good deeds such as these, a man would surely be rewarded by God with a place in the Kingdom. But it is not so. Cornelius needed to fully understand the gospel, to learn about Jesus Christ; "the only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whereby we must be saved" (Acts 4:12).

고넬료가 오후 3 시쯤 되어 기도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고넬료의 기도와 행실이 하느님께 상달되었다고 했다. 천사는 계속 말하기를, 옴바에 사람을 보내어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대해 오라고 했다. 천사는 베드로가 와서 “너와 네 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11:14)라고 말했다. 이같이 지시하고서 천사는 떠났다. 고넬료는 천사가 말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있었다. 고넬료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부하직원 한 사람을 옴바로 떠나 보냈다.

베드로가 본 환상 (9-17 절)

다음날 정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풍습대로 집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다. 점심 식사를 앞두고 시장해 있던 차에, 베드로의 앞에 최면 상태 비슷한 광경이 벌어졌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를 매어 드리운 것 같았다. 그 속에는 온갖 들짐승들, 파충류 생물들, 그리고 조류 생물들이 있었는데, 모세의 율법 하에서 이것들은 부정한 동물들이며 명백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레위기 11 장을 참고할 것). 그러면서 어떤 목소리가 베드로에게 명했다. “베드로야, 일어나, 이를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몸서리쳤다. 베드로는 강하게 반대하며 말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된 것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이 명령이 세 번 반복되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 하면서도 이 명령을 거절하였다. 베드로는 자신이 자라면서 익힌 습관을 바꾸기 힘들었다. 베드로는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었으며(신명기 14:7-8), 하느님의 명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고기를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그 보자기와 거기에 담긴 것들이 하늘로 사라져 갔다.

모세의 율법이 금하던 일을 오히려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명령은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것일까? 베드로는 그 보자기에 담겨있던 각종 고기 음식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베드로의 의문이 해소되다 (18-33 절)

자신이 본 비전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 하고 있을 무렵,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이 베드로가 머물던 집에 도착하였다. 하느님의 영은 망설이지 말고 이 사자들을 따라 가라고 베드로에게 조언하였다. 사자들의 방문 목적을 들은 베드로는 그들을 집으로 들이고 하루 밤 유하도록 하였다.

아침이 되자, 베드로는 자신이 본 비전에 담긴 의미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여섯 명의 형제들과 함께 옴바를 출발하였고 다음날 가이사랴에 도착하였다. 당시의 백부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백부장이 자신의 일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대동하여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부장 고넬료는 자신의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존경을 표하였다. 베드로는 황급히 백부장을 일으키며 말하기를 자신은 여느 사람과 똑같이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베드로가 백부장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유대인으로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금기사항을 베드로 스스로 깨뜨린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는 큰 장벽이 놓여있었다.

At about 3 o'clock one afternoon, as he was praying, Cornelius saw a vision. An angel told him that his prayers and righteous acts had risen to God as an acceptable offering. Cornelius was instructed to send messengers to Joppa to fetch Simon Peter at the house of Simon the tanner. Peter "shall tell thee words, whereby thou and all thy house shall be saved" (11: 14). With these brief instructions, the angel departed. Cornelius realised how important this was. So he gave instructions to two of his household servants and a devout soldier (who normally was one of his constant attendants) to go to Joppa.

PETER'S VISION (verses 9-17)

Next day at noon, Peter went up to the housetop to pray, as was the custom of the Jews. Waiting for the midday meal to be prepared Peter fell into a trance (a state like hypnotism). He saw in a vision heaven opened and a huge sheet being lowered down at its four corners. It was full of all kinds of animals, reptiles, and birds, obviously unclean under the Law of Moses (see Lev.11 for details). Then a voice commanded him: "Rise, Peter, kill and eat". But Peter was horrified at the idea. He objected strongly, "Not so, Lord; for I have never eaten anything that is common (unholy) or unclean". The voice then addressed him again saying, "what God has cleansed, that call not thou common".

Three times the voice commanded him to eat. Three times Peter refused. Although he was hungry, Peter did not forget the habits of his training. He had never eaten forbidden meats (Deut.14:7-8) and he was not prepared to be so defiled, even though God commanded him. Suddenly the sheet and its contents were taken up into the sky.

What could a command that directly contradicted the Law of Moses mean? Peter was to soon learn that the food in the sheet represented all types of people, Jew and Gentile, and that he could no longer isolate himself from the Gentiles. He had yet to learn that God cleanses all who come to Him through Christ.

PETER'S DOUBTS EXPLAINED (verses 18-33).

While Peter puzzled over the meaning of the vision, the messengers from Cornelius arrived. The Spirit of God advised him to go with them without hesitation for they had in fact had been sent by God Himself. Having heard from the men of the mission he was asked to accomplish, he invited them in and gave them a night's lodging.

By morning, Peter was beginning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vision. He set out with six brethren from Joppa, arriving at Caesarea the next day. In this centre of Gentile domination Peter found the centurion, along with his close friends and relatives, waiting for him. Despite his position, Cornelius fell at Peter's feet in deep reverence and humility. However, Peter quickly raised him to his feet, telling him that he also was a man like anyone else. Peter walked along side of the centurion and entered the Gentile's house. Peter was breaking the tradition he had once held. Here was a complete breakthrough of Jewish-Gentile barriers.

집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율법에서는 금지하는 일이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사도행전 10:28)”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자신을 초대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고넬료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느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33 절)”.

베드로가 전한 신앙 (34-43 절).

베드로가 무어라 전했는지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큰 변환점이 이곳부터 시작된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34-35 절.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겉으로 보아 가리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받으시며 의롭게 하신다., 34-35 절을 살펴보고, 신명기 10:17 을 참조하라.
- 36-38 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고넬료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화평의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하느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블레셋 여러 지방에서 선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 39-41 절.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며,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부활하신 예수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느님께[서 특히 택하신 우리 사도들이 바로 이 일의 증인들이다.
- 42 절.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백성들에게 전도하되, 하느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인 것을 증언하라. 또한 선지자들도 증언하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징표 (44-48 절).

베드로가 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을 하느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징표가 임했다. 이방인들인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자, 유대인들인 사도들은 이 장면에 깜짝 놀랐다.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임했던 바로 그 성령이었다 (사도행전 11:15; 2:4). 이곳에 모인 사람들, 즉 할례 받지 않았고 침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이곳에 온 여섯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이방인들을 하느님께서 승인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사도행전 11:16-17). 베드로가 명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우리 삶의 근본 방침 -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의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

이 사건이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갈라디아서 3:28)”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놓여있던 반목을 깨뜨리셨으며 서로 화평의 교제를 나누는 복음을 전하셨다. 전에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였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권속 (에베소서 2:12-19)”이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후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배경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느님께서서는 민족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 같은 것들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였다 (갈라디아서 3:28). 또한 우리의 과거 생활이 어땠는지도 문제삼지 않으신다 (고린도 전서 6:9-11).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 만이 문제이다.

Inside the house Peter found a large assembly gathered. He explained to the people that although it was not normally lawful for a Jew to even visit a foreigner, God had shown him that he was not to call any “common or unclean” (Acts 10:28). Peter then asked Cornelius why he had called for him. In reply, Cornelius related the incident of his vision saying, “now therefore we are all here present before God, to hear all things that are commanded thee of God” (v.33).

THE FAITH PETER TAUGHT (verses 34-43).

It is important that we note what Peter said. The turning point in the Acts of the Apostles had come. Peter pointed out:

- vv.34-35 God was no respecter of persons. He welcomes from every nation all those who fear Him and work righteousness (e.g. Cornelius) see vv. 34-35; cp.Deut.10:17.
- vv.36-38 Both the people of Israel and Cornelius knew of the good news of peace in Jesus Christ, and of the fact that God anointed him with His Holy Spirit and of how he had walked the land of Palestine doing good.
- vv.39-41 The Apostles were witnesses of this one whom the Jews slew.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He then showed himself openly to the Apostles, the witnesses chosen beforehand of God (their words were therefore reliable).
- v.42 God “commanded us to preach to the people, and to testify that Jesus is the one ordained by God to be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 To him all the prophets bear witness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receives forgiveness of sins through his name”.

GOD'S UNMISTAKABLE SIGN (verses 44-48).

Before Peter had finished speaking, God intervened by showing with a sign His approval of the group of Gentile converts. The Jews present were astonished that the Holy Spirit was poured out on these Gentiles, just as it had been on the Apostles on the Day of Pentecost (Acts 11:15; 2:4). Here were uncircumcised, unbaptised men praising the God of Israel with the gift of tongues! Turning to the six Jewish brethren who accompanied him from Joppa, Peter said, “Can any man forbid water, that these should not be baptised?” It was clear to all that these Gentiles believed in Jesus Christ and were approved of God (Acts 11:16-17). Peter then commanded them all to be baptised in the name of the Lord.

PRINCIPLE FOR LIVING - GOD IS NOT A RESPECTER OF PERSONS

The incident shows that in Christ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Gal. 3:28) for Christ had begun to break down the hatred between Jew and Gentile, his Gospel being one of peace and fellowship for both. Those who were “strangers and foreigners” were now “fellow citizens with the saints” (Eph.2:12-19). Both Jew and Gentile could now obtain the repentance which leads to life for in Abraham's seed would “all nations be blessed”.

This principle that God would choose all men and women irrespective of background should be well understood by us. Paul says that nationality, bonds, and gender are all irrelevant in terms of finding acceptance with God (Gal.3:28). Our past life is also irrelevant (1 Cor.6:9-11). The only issue is whether we are people who in a spirit of meekness will accept and believe the message of salvation, and submit our lives to God.

이 단원을 요약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자

- 우리는 고넬료가 침례를 받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고넬료를 시초로 한 이러한 부르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되는 부르심이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착한 행동을 보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하였듯이 믿음과 그에 따른 침례를 요구하신다.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으며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다 (로마서 1:16-17)

기억해야 할 성서구절: 사도행전 10:34-35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제 8 단원 - 학습문제

1. 고넬료의 성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아라. 고넬료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는가?

2. 베드로가 옥상에서 본 비전은 어떤 것인가? 베드로는 이 비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가?

3. 고넬료의 침례는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4. “하느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것들인가?

SUMMARY AND LESSONS FOR US

- The events of Cornelius' baptism clearly indicated that God fully intended to call Gentiles to the hope of life. Jewish and Gentile believers were to become "all one in Christ Jesus". This calling, which began with Cornelius, still continues today, with the same conditions still applying now as then and in this there are lessons for our eternal benefit.
- God will not accept us just because we do good deeds. He requires belief and baptism of us as He did of Cornelius. Believing the Gospel is essential to please God. The gospel was given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entile (Rom.1:16-17).

VERSE TO REMEMBER: Acts 10:34-35 "Then Peter opened his mouth, and said, Of a truth I perceive that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But in every nation he that feareth him, and worketh righteousness, is accepted with him".

SECTION 8 - QUESTIONS

1. Outline the character of Cornelius and show what he had to do in order to be saved.

2. Describe Peter's vision on the rooftop. What did it teach Peter?

3. What was the significance of the baptism of Cornelius?

4. How important is the principle that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제 9 단원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읽을 말씀: 사도행전 12 장

공부할 목표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자유롭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의 일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배경을 살펴보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11 년이 경과하였다. - 헤롯 아그립바 1 세 왕의 통치 절정기였으며 연대는 AD 44 년 경이었다.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방법으로 에클레시아를 박해하면서 자신의 인기를 확보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야고보의 죽음 (1-2 절).

헤롯은 야심에 찬 무자비한 왕이었다. 헤롯은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유대의 종교 풍습을 따르는 척 하였다. 공개적으로는 하느님을 섬긴다고 선포하였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할 구상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었다. 헤롯은 에클레시아 지도자들을 체포하고자 하는 작전을 진행하였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체포되어 칼로 죽임을 당했다. - 아마도 공개적으로 참수형에 처해진 듯 하다.

야고보의 죽음에 에클레시아는 충격을 받았고 슬픔에 잠겼다. 사람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헤롯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헤롯의 이러한 행동을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죽음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희생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하기로 하였다. 헤롯은 에클레시아 내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베드로의 체포가 에클레시아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끼칠지 잘 알고 있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다 (3-5 절).

헤롯은 유월절 직전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유월절 잔치가 지나기까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자 하였다. 유월절 기간동안에는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의식의 진행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는 베드로에게 내려질 죽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는 무교절 잔치 기간인 7 일이 차기까지 감옥에 갇혀있었다.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간수가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두 명의 간수가 있었고, 베드로는 이중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며, 감옥의 출구 바깥쪽으로 또 다른 두 명이 감시하고 있었다.

SECTION 9

Peter Escapes From Prison

“Of a surety the Lord hath sent His angel, and hath delivered me out of the hand of Herod, and from all the expectation of the people of the Jews”

READING: Acts 12

OBJECTIVE

To show how God’s care was with Peter to free him from prison so that he could continue the Father’s work.

BACKGROUND

About eleven years had passed since Christ ascended – it was about the year 44. King Herod Agrippa 1 was at the height of his power. He was anxious to gain the favour of the Jews and quickly found that the easiest way to win general approval and popularity was to persecute the ecclesia.

THE DEATH OF JAMES (verses 1-2).

Herod was a ruthless and ambitious king, but he covered up his lust for power by pretending to follow Jewish religious customs. Publicly he claimed to serve God, but secretly he plotted to persecute the followers of Christ. Herod began his campaign of terror upon the ecclesia by seizing one of the ecclesial leaders. James, the brother of John, was arrested and executed “with the sword” – probably publicly beheaded.

This murder threw the ecclesia into shock and mourning. They feared for their lives and the safety of their leaders. Herod, however, was greatly pleased. He saw that his action had pleased the Jews. His lust for power was not satisfied at this terrible murder and he wanted to shed the blood of more innocent victims. He decided to arrest Peter. He knew how important Peter had become and what effect his arrest would have on the already shaken ecclesia.

PETER IS IMPRISONED (verses 3-5).

Herod seized Peter just before Passover, and he decided to keep Peter in prison until the feast days were over. He did not want to upset the Jews by disturbing their religious services. He pretended to respect the Jewish ceremonies but in his heart, he was impatient at the delay in carrying out his death threat upon Peter.

Peter was therefore shut up in prison until the end of the seven days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Security was tight to make sure Peter could not escape. He was bound with a double chain attached to two members of the guard, and there were also two others on watch outside the entrance to the prison cell.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에클레시아 회원들은 서로 단결하였다. 이들은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 주간 동안, 에클레시아는 쉬지 않고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다 (5 절).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풀려 나온 유월절을 상기하고 있었을 터였다. 또한 예수께서 구원을 얻은 날이 유월절 기간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유월절 기간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헤롯은 여전히 베드로를 가두고 있었다. 베드로가 처형될 전 날 밤, 사람들은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다 (6-11 절).

사람들은 안절부절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침착했다.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다. 과거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가야바의 뜰에서 스승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초조한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베드로의 믿음이 이제는 성숙해 있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께 저주 섞인 말을 뱉었지만 오늘 밤은 오히려 차분하게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주의 천사가 베드로 앞에 나타나 서자, 어두운 감옥 안이 환히 밝아졌다. 이 천사는 베드로를 깨우며 말하기를 빨리 일어나라 하였다. 베드로의 손에 채워졌던 쇠사슬이 풀렸다.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천사가 말했다. 마치 꿈인 듯, 베드로는 천사의 말을 따라 걸음을 걸치고 천사를 따라 감옥을 나왔다. 베드로는 이것이 생시인 줄 확신하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싶어하며 천사를 따랐다 (9 절). 베드로와 천사는 간수들에게 들키지 않고 감방을 빠져 나왔다. 그들은 마침내 감옥 밖의 크고 육중한 문 앞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육중한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사라지고 베드로는 혼자가 되었다. 베드로는 놀라며 주위를 돌아보았다. 이제 베드로는 자유롭게 된 것이다! 베드로의 기도가 이처럼 놀랍게 응답된 것이다. 정신이 든 베드로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고 말했다(11 절).

베드로는 잠시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았다.

성서의 기본 가르침 – 천사는 일하는 존재들이다

천사에 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일하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다” (히브리서 1:14). 당시 천사들은 성도들이 처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나타났었다. “여호와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4:7)” 천사들은 침례 받지 않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등장했었다. 고넬료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하느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어 베드로를 만날 수 있게 하였다. 천사들은 오늘날은 이 같은 방법으로 일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필요한 바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큰 일을 돕고 있다.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맡아 하게 될 것이다.

Peter's imprisonment drew the members of the ecclesia very close together. They could only do one thing - pray. So for the rest of that week, day and night, the ecclesia prayed "without ceasing unto God for him" (v.5). They may have thought about the past deliverance of Israel out of Egypt at the time of Passover as they prayed for deliverance from a cruel ruler. But it has also been at Passover time that Jesus had been crucified. The feast was rapidly drawing to a close, and still Herod's plan remained unchanged. The last night before the day of execution saw the brethren and sisters gather in prayer at the house of Mary the mother of John Mark.

GOD SENDS HIS ANGEL (verses 6-11).

They were anxious but Peter was calm, and quite resigned to whatever would take place the next day. Peter slept. What a contrast to the Peter who denied his Master in the court of Caiaphas. His faith had matured. Then he had denied with an oath that he was a follower of Christ. Now he calmly awaited his death – he would suffer for Christ's sake.

Suddenly an angel of the Lord stood by Peter and filled the dark prison with a bright light. He was shaken awake and heard the instructions to stand up quickly. Immediately his chains fell off from his hands. "Bind on your girdle (belt) and your sandals" continued the angel. As in a dream Peter obeyed and wrapping his cloak about him he followed the angel out of the prison. It all seemed a little unreal to Peter, for "he wist not that it was true which was done by the angel; but thought he saw a vision" (v.9). They left, passing unseen by the guard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ward. At last they reached the large, heavy, outer gate of the prison, which opened of itself as they approached, leaving the guards standing as though in trance. They walked along one street in the city when suddenly the angel left him alone. He looked around in astonishment. He was free! His prayers had been answered in an amazing way. He now knew "of a surety that the Lord hath sent his angel, and hath delivered me out of the hand of Herod, and from all the expectation of the people of the Jews" (v.11).

For a moment he thought over his remarkable deliverance.

BASIC BIBLE TEACHING – THE WORK OF THE ANGELS

Paul says that the angels are ministering spirits "sent forth to minister for them who shall be heirs of salvation" (Heb.1:14). The angels have a role in this period to help direct the lives of the saints and help them in their difficulties: "The angel of Yahweh encampeth round about them that fear Him and delivereth them" (Psa.34:7). Angels work in the lives of those who are not baptised to direct their lives to God. In Cornelius' case God sent His holy angel to warn Cornelius to send for Peter. The angels will not appear in this way to us – but we can be sure that the same angels are watching over our needs. Of course, the angels have a great work to do in preparing the nations for the coming of the Lord Jesus Christ. In the kingdom their role will be taken over by faithful followers of Christ.

에클레시아가 깜짝 놀라다 (12-17 절).

정신이 돌아온 베드로는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형제 자매들에게 급히 달려갔다. 밤이 늦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었다. 형제들이 모인 곳의 대문은 유대인들의 습속에 대비하여 굳게 잠겨있었다. 베드로가 그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이름하는 어린 자매가 베드로의 목소리임을 알아챘다. 로데는 베드로를 남겨두고 급히 안쪽으로 달려갔다. 기쁨에 찬 로데는 흥분한 목소리로 베드로가 문밖에 서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사람들은 로데가 제 정신이 아닌가 보더라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로데는 계속하여 베드로가 돌아왔음을 알렸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마도 베드로와 관련된 천사가 방문하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날 밤 너무나 긴장하며 기도하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다. 사람들이 의아해 하면서 문을 열자 베드로가 서있는 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흥분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았다. 베드로가 그들을 진정시키며 주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출하셨는 지에 관해 설명하였다. 베드로는 또한 에클레시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전하고 예수의 친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이 소식을 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말을 마친 베드로는 몸을 숨기기 위해 다른 장소로 떠나갔다.

우리 삶의 원리 -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당시의 형제 자매들은 환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느님께 기도해야 하는지에 관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자신의 서신에서 말했다 (야고보서 5:16).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응답하실지 결정하신다. 하느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며 (에베소서 3:20), 베드로의 경우에서 보듯이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다. 또한 하느님은 고넬료의 경우에서 보듯이 침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신다.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헤롯 아그립바에게 임한 하느님의 심판 (18-25 절).

그날 아침 헤롯은 병사들을 베드로에게 보냈다. 그러나 아무도 그날 벌어진 일들을 설명할 수 없었다. 베드로가 감옥에 없었던 것이다. 헤롯은 의심하기를 간수들이 베드로의 탈옥을 도운 것이라 보았다. 병사들은 간수들에게 임한 처벌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다. 간수들은 고문에 처해졌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일이 있는 직후, 헤롯은 자신을 칭송하는 대중들 앞에 설 기회를 맞았다. 군중들 앞에서 헤롯은 훌륭한 왕복을 입고 연설하였는 바, 군중들은 헤롯을 열광하며 말하길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헤롯을 칭송하였다. 헤롯은 자신이 로마의 황제와 동등하며 추앙받는 신적 존재이려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를 즐기며 자부심에 마음이 부풀어있었다.

그때 하느님의 천사가 헤롯을 무서운 고통의 질병으로 벌했다. 헤롯은 닷새 동안 고통을 당하며 죽어갔다. 야훼 하느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박해한 자에게 벌하신 것이었다. 에클레시아는 헤롯에게 임한 하느님의 심판의 징표를 보면서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손길에 격려를 받았다. 이에 “하느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기록되었다 (24 절).

THE ASTONISHED ECCLESIA (verses 12-17).

Having got his bearing, Peter hurried to those who were praying for him. Although it was very late there were still brethren and sisters gathered together. He found the door securely bolted for fear of the Jewish authorities. When a young sister named Rhoda heard Peter knocking and recognised his voice, she quickly ran back inside leaving Peter standing outside. Overwhelmed with joy, she excitedly told the others that Peter was at the gate. They thought she was mad. But she insisted that it was Peter. They then thought it must be his angel (or 'messenger' as the word can signify). The tension of the nights of prayer and anxiety prevented them from believing in something that seemed too good to be true.

The knocking continued, however, until curiosity finally got the better of them, and opening the door, they saw Peter before their eyes. Excitedly they began to speak, asking him questions. Peter quietened them down and explained how that the Lord had delivered him. He told them to tell James (the Lord's brother) and the ecclesia. It was not wise, nor safe, for Peter the leader of the brethren to stay with them, and therefore, having given them instructions, he left immediately to hide in another place.

PRINCIPLE FOR LIVING - GOD LISTENS TO PRAYER

In the midst of trouble, Peter and his brethren and sisters set a good example for us in turning to God in prayer. The "effectual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avails much" is the advice of James (5:16). God will hear our prayers but He will decide, in His wisdom, when to answer them. He can do "exceeding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ask or think" (Eph.3:20), and this was demonstrated in the remarkable answer to their prayers when Peter was miraculously delivered. God does listen to the prayers of the unbaptised, as we saw from the life of Cornelius. God is listening and is ready to help you in all circumstances so that you can accept Jesus Christ..

JUDGMENT ON HEROD AGRIPPA (verses 18-25).

In the morning, Herod sent the soldiers to get Peter – but he was missing. No explanation could be given. Peter was no longer in prison. Herod became suspicious that the guards had deliberately helped Peter to escape. The soldiers were fearful of the penalty handed out to guards who allowed a prisoner to escape. They did not fear in vain. They were examined by torture and put to death.

Shortly after this, Herod was the special guest at a public ceremony designed by the people to win his favour. Standing before the crowds in his splendid royal clothes, he made a public speech. The crowd anxious to flatter the king, cried out their praise, "it is the voice of a god, and not of a man". In Herod's mind this placed him as equal to the Roman Emperor who was looked upon as a god and worshipped. He loved the applause and his heart swelled in pride.

Immediately the angel of the Lord smote him with a terrible and painful disease. Within five days he died in agony. So Yahweh dealt with this persecutor of His people. The ecclesia recognised his death as a sign of God's judgment, and was encouraged by these events to believe that God's hand overshadows the lives of all. With that renewed faith the brethren gave themselves to the work of the Truth, and the word of God grew and multiplied (v.24).

이 단원을 요약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자

- 베드로를 포함한 에클레시아는 야훼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험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배웠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하느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의 손길에 맡길 수 있다.
-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을 바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릴 수 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파되는 것을 돕는 가운데 우리가 처한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말씀을 전한다.
- 에클레시아의 인도자를 감옥에 가두고 처형한 통치자에 대해 하느님의 의의 심판이 임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하느님의 공의의 심판 없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느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수 없다.

제 9 단원 - 학습문제

1.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

2. 기도의 힘이 강력하다는 점을 베드로와 당시 에클레시아가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지 설명해 보아라.

3.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는 상황을 설명해 보아라.

4. 하느님께서 헤롯 아그립바에게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5. 오늘날 천사들의 활동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아라.

SUMMARY AND LESSONS FOR US

- Peter and the ecclesia learned again that Yahweh can deliver His children out of the worst circumstances. We, like them, can be brought through difficult times by the loving, guiding hand of God.
- We can show our appreciation for His guidance by accepting gratefully His call and dedicating ourselves in His service. If we do that then we will be assisting the Word of God to grow and multiply even in these last, perilous days of the Gentiles.
- The righteous judgments of God blazed forth against a wicked king who had slain one of the ecclesial leaders and imprisoned another. This taught the ecclesia, and us, that God rules in the kingdom of men. Men cannot persecute His people without finally receiving the just punishments of God.

SECTION 9 – QUESTIONS

1. Why did Herod slay James?

2. Explain how the ecclesia and Peter trusted in the power of prayer at the time of Peter's imprisonment.

3. Describe how Peter was delivered from prison.

4. How did God show His judgments upon Herod Agrippa?

5. Briefly explain the work of the angels today.

제 10 단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가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읽을 말씀: 사도행전 13 장

공부할 목표:

하느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에 관해 알아보자

배경을 살펴보자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극적으로 개종한 사울의 사건이 있는 지 몇 년이 지났다. 그동안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사울은 안디옥 에클레시아에서 일년 간 봉사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사도행전 11 장)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되다 (1-3 절)

시리아에 위치한 안디옥은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바나바와 사울 말고도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그곳에 있었다. 이제 안디옥에서 세계를 향해 복음이 전파될 때가 다가왔다. 성령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람들은 이 말을 따랐다.

안디옥 에클레시아는 그들을 축복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떠나보냈는데, 요한 마가를 동행시켜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실로 막대한 임무였다. 세상은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으며 거짓과 악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구브로에서 전도하다 (4-12 절)

안디옥을 떠난 일행은 도보로 여행하여 실루기아라 부르는 항구에 다다랐다. 이곳에서 그들은 구브로 섬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자 하였는데, 구브로는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였다. 바나바의 입장에서 볼 때 이곳에서 전도를 시작하려는 것은 자연스런 결정이었다. 그곳에는 아마도 바나바의 친지들과 친척들이 살고 있을 터였다. 그들은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 전도를 시작하였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 섬의 여기저기를 도보로 여행하였으며 마침내 수도인 ‘바보’에 도착하였다. 그곳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서기오가 이들의 가르침에 흥미를 보이며 빠져들어가는 것을 본 유대인 출신의 거짓 선지자 ‘바 예수’라는 사람 (마술사 ‘엘루마’라고도 한다)이 이를 보고 못마땅해 했다. 만약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믿게 된다면 자신이 행하던 마술 행각이 더 이상 관심을 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바 예수는 사울을 반대하여 말하기를 “의로움에 원수되는 자”라 하였다. 사울은 바 예수 엘루마에게 대하여 선포하기를, 그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러자 그 동안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던 엘루마가 엎드려졌다. 총독은 이 일을 바라보며 놀라면서, 하느님의 손이 임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총독은 진리의 힘이 마술사 엘루마의 능력보다 강함을 믿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이제부터 바울은 일행의 인도자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불리어졌으나, 이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부르게 되었다.

SECTION 10

Paul and Barnabas Turn to the Gentiles

“Lo, we turn to the Gentiles.”

READING: Acts 13

OBJECTIVE:

To show how God used Paul to take the gospel to the Gentiles.

BACKGROUND

Some years had passed since Saul's dramatic conversion on the road to Damascus, during which time he had come to fully understand the great plan of salvation in Jesus Christ. He completed a year of service to the ecclesia at Antioch and took a famine-relief collection to Jerusalem (Acts 11).

THE SELECTION OF PAUL AND BARNABAS (verses 1-3).

Antioch in Syria had become an important centre for the preaching of the gospel amongst the Gentiles. Apart from Barnabas and Saul, a number of other prophets and teachers were there. Now the time had come for the truth to go out to all the world. The Holy Spirit spoke by one of them: “Separate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whereunto I have called them”. They responded to the call.

With the blessing of the ecclesia upon them and their own fasting and prayer, they set forth on their mission, taking John Mark with them. What a huge task they faced! The world was steeped in immoral Gentile pagan worship. They would have the task of preaching Christ to them.

PREACHING THE TRUTH IN CYPRUS (verses 4-12)

Leaving Antioch, they travelled on foot to a port called Seleucia. From there they took ship to the island of Cyprus, the birthplace of Barnabas. This was a natural place to start as Barnabas knew it well and would perhaps still have friends and relatives there. They arrived at Salamis, where they commenced their preaching in the synagogues of the Jews. Barnabas and Saul travelled on foot throughout the island until they came to Paphos, the capital. There Sergius Paulus, the Roman governor of the island, wanted to hear from them the Word of God. He became extremely interested, much to the annoyance of a certain Jew; a false prophet named Bar-Jesus (also called Elymas the sorcerer). He knew that if Sergius Paulus believed the Gospel, the governor would not be influenced by his magic anymore.

So he began to contradict Saul only to be told by Saul that he was the “enemy of all righteousness” and fixing his eyes on the wicked Elymas, Saul declared that he would be blind for a season. The man who claimed to have supernatural power now had to be led around! The governor was astonished; but he recognised the hand of God in what he saw. He believed that the Truth was far more powerful than sorcery.

It is at this stage that Saul became known as Paul, and it appears, Paul took over the role of leader of the party. From now on it was no longer “Barnabas and Paul” but “Paul and Barnabas”.

갈라디아에 이르다 (13 절)

일행은 ‘바보’를 떠나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요한 마가는 불미스러운 일로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산악지방으로 나아갔다. 바울은 버가에서 북쪽으로 대략 170 킬로미터 거리인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길을 떠났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위험으로 가득하였으며 도적들도 출몰하는 지역이었다. (고린도 후서 11:26 을 참조할 것)

안디옥의 회당에서 전하다 (14-41 절)

안디옥에 다다른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으며 첫 안식일 바나바와 함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기도한 후, 모세의 글과 선지서를 읽고 나자, 사람들은 바울 일행에게 전할 말이 있는지 물어왔다. 바울은 모인 사람들을 파악해 보았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바울은 이 무리들을 향하여 연설하였다.

■ 16-21 절. 모세의 시대에서 사울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심

야훼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 광야로 이끌었다. 사람들은 하느님에게 감사하지 않았으나, 하느님은 여전히 이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 하느님께서는 이들에게 “사사들”을 세두도록 하셨으나 백성들은 “왕”을 원했다. 사람들은 사울을 추대하여 왕으로 삼았다 -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은 이처럼 지속되고 있었다.

■ 22-23 절. 의의 왕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왕 -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나 사무엘 하 7 장에 따르면 더 위대한 왕이 약속되어 있는 바, 이 왕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이었다.

■ 24-25 절 침례자 요한의 가르침

안디옥 사람들도 침례자 요한이 가르친 바, 요한 보다 더 크신 분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터였다.

■ 26-29 절.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고자 하심에 유의하라

구약 성서에 따르면 유대인들이온 메시아를 못박을 것이라 하였다. 예루살렘에 거하던 유대인들에 의해 이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안디옥에 거하던 유대인들은 구약성서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 30-37 절.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구주가 되셨다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시편 2:7 에 기록된 (33 절에서 인용되고 있다) 자신의 약속을 하느님께서 이루시어 예수를 살리신 바로 그것이였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느님께서 그를 일으키셨고 시편 16:10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 38-41 절.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

모세의 율법이 줄 수 없었던, 죄에 대한 용서가 이제 그들에게 약속되었다. 바울은 이 약속을 전하면서 또한, 만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엄하게 경고하였다 (40-41 절)

IN GALATIA (verse 13)

Leaving Paphos by ship, the party came to Perga in Pamphylia, and there John Mark unfortunately left the work and returned to Jerusalem. Paul pressed on up to the more mountainous region of Galatia. He journeyed to Antioch of Pisidia, a distance of approximately 170 kilometres north of Perga. The road was both difficult and dangerous, the area being thick with robbers (cf. 2 Cor.11:26).

AT THE SYNAGOGUE IN ANTIOCH (verses 14-41).

When they arrived in Antioch, Paul was quick to find the synagogue and on the first sabbath day, he and Barnabas entered and sat down. After the prayers and the reading from the Law and the Prophets, they were invited to address the assembly. Paul recognised two groups in the audience, (a) “men of Israel” - the Jews, and (b) “ye that fear God” - Gentile proselytes to the Jewish faith. Paul called upon both to “give audience”.

■ **vv.16-21 God's care for Israel from Moses to Saul**

Yahweh had shown His love to His people in leading them out of Egypt and caring for them in the wilderness. They had not thanked God at all, but He still led them into the land of promise. Then “He gave them judges” but they wanted a king. They got the sort of king they wanted in Saul – but Israel so often made mistakes.

■ **vv.22-23 The promise to David of a righteous king**

God then provided Israel with a king they really needed – David. But David was promised an even greater King in 2 Samuel 7, and that this King would be his descendant.

■ **vv.24-25 The teaching of John the Baptist**

The people of Antioch would have heard of the preaching of John the Baptist who prepared the nation for the coming of a greater one.

■ **vv.26-29 Give heed to God's work in Christ**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Old Testament the Jews had crucified their Messiah. Even though the Jews in Jerusalem like the Jews in Antioch read the scriptures, they fulfilled them by killing Jesus.

■ **vv.30–37 Jesus raised from the dead to be a saviour**

The good news to the people of Antioch was that God had fulfilled His promise in raising up Jesus as promised in Psalm 2:7 (quoted in verse 33). Although they had crucified their Messiah God had raised him from the dead as prophesied in Psalm 16:10 “Thou shalt not suffer thy Holy One to see corruption”.

■ **vv.38-41 A message of hope and a warning**

Forgiveness of sins was promised to them – this was more than the Law of Moses could provide. But Paul left them with a strong warning of judgment from God if they followed their fathers' example and did not heed the word of God concerning His Son (vv. 40-41).

성서의 기본 가르침 -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가 고난 받으신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구주를 세우셨으나” (23 절) 유대인들은 이방 통치자에게 요청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여 달라” (29 절)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대인의 죄악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이 구원은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구원이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의 혜택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38 절).

진리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리다 (42-52 절)

유대인들과 이방 개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연설에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전에 그와 같은 말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었다. 특히 이방인 개종자들은 이러한 새 가르침에 무척 흥분하였으며 계속 듣기를 원했다. 다음 안식일이 되자 안디옥 지방에 살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히 이방 개종자들이 새로운 가르침에 열광하는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반대하며 비방하기 시작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일어서서 말했다. “하느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6, 47 절). 구약 이사야 49:6 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게 될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에 비유하여 이해하였다.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느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많은 수가 믿고 침례를 받았으며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대항하여 박해를 시작하였다. 유대인들은 도시를 다스리는 관리들을 찾아가 바울과 바나바를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향했지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첫 번 사역의 무대를 축복하셨고 갈라디아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바울이라는 선택된 그릇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진리의 빛이 전해지게 되었다.

우리 삶의 근본 방침 - 질투심에 관한 문제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질투심에 싸여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안디옥에 살던 유대인들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바울이 끼치는 영향력을 질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헐뜯었으며 그들이 떠나기까지 박해하였다 (45, 50 절). 질투심이란 탐심과 같은 것이며 나쁜 의도를 갖는 것이다 (디도서 3:3). 질투심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이 질투하는 대상이 상처를 입는지 아닌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야고보서 3:14, 16. 4:4-6. 고린도전서 14:4 를 참조할 것). 우리는 때로 타인이 나보다 더 좋아 보인다면 이에 대해 질투하기 쉽다. 질투란 심각한 죄악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교하여 만족하기 보다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BASIC BIBLE TEACHING - CHRIST SUFFERED FOR THE SINS OF THE WORLD

Paul explained to them the suffering Jesus had gone through. God had “raised unto Israel a Saviour” (v.23) but they had asked a Gentile ruler to kill him and crucify him on “the tree” (v.29). However, the sin of the Jews in Jerusalem had resulted in salvation being made available, not only to Jews but to us Gentiles. We have the advantage of the gospel being made available to us – a gospel that teaches us that Christ died that we might have *“the forgiveness of sins”* (v.38).

THE DOOR OF TRUTH OPENED TO THE GENTILES (verses 42-52)

Many of the Jews and proselytes were very impressed. They had heard nothing like it before. The Gentiles in particular were excited about the new teaching and wanted to hear more. So on the next sabbath almost all the people of Antioch came to hear Paul. When the Jews, however, saw how many Gentiles were attracted to the new teaching, they became jealous and stirred up trouble. They continually contradicted and blasphemed the words of Paul. Then Paul and Barnabas rose up and told them how God had first sent His servants to the Jews but *“seeing ye put it from you, and judge yourselves unworthy of everlasting life, lo, we turn to the Gentiles”* (vv.46, 47). Paul’s work with the Gentiles was prophesied in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in Isaiah 49:6, *“I have set thee to be a light of the Gentiles, that thou shouldest be for salvation unto the ends of the earth”*. These words of Isaiah really apply to Christ. Paul saw himself as the Lord Jesus Christ shown to the Gentiles. The Gentiles glorified God and a great many believed and were baptised.

So the gospel spread throughout the region but not without the Jews raising a great persecution against Paul and Barnabas. They convinced the leaders of the city that they should remove Paul and Barnabas. Being forced to leave, they moved on to Iconium, but with no disappointment for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v.52). God had blessed the first stage of their journey through Galatia, that many should believe the Gospel. Through Paul as a chosen vessel, God had brought a light of Truth to many Gentiles.

PRINCIPLE FOR LIVING – THE PROBLEM OF ENVY

Pilate knew that the Jews delivered Jesus to death because of their envy. The Jews of Antioch were no better. They were jealous of Paul’s influence. They were determined to discredit Paul and Barnabas and persecute them until they departed (v.45, v.50). Envy is like covetousness but with malicious intent (Titus 3:3). People who are envious do not care if they hurt those they envy (James 3:14-16; 4:4-6. cp.1 Cor.14:4). We can be envious of other people because they look better than us or are better than us at certain things. Envy is a dreadful sin, because our goal should be to please God – it does not matter how other people compare to us.

이 단원을 요약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자

-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어진 임무, 즉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는 어렵고 힘든 임무였다.
- 엘루마와 같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일을 지속하였다. 그들은 복음의 진행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열심을 내어야 하며 “주의 말씀을 기쁘게 영화롭게” 해야 한다. 우리는 안디옥의 이방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로 말미암는 구원의 놀라운 빛을 받아 믿고 침례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 10 단원 - 학습문제

1. 바울이 서기오 바울과 엘루마를 만난 후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보아라.

2.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행한 연설에 관해 간략하게 요약해 보아라.

3.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4.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5. 유대인들이 질투심을 품은 이유는 무엇인가? 질투심이란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가?

SUMMARY AND LESSONS FOR US:

- Paul and Barnabas were given a difficult mission of spreading the Gospel message throughout the world.
- Despite those who refused the Gospel, like Elymas and those who persecuted them at Antioch, they kept on with their work. They were determined not to let such obstacles, which would seem too overwhelming for most of us, hinder the progress of the Gospel. Let us not be turned aside from our preparations to accept the salvation offered by the risen Lord Jesus.
- Let us always be sure that we are eager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to be "glad and glorify the word of the Lord" in our lives. We can be like those Gentiles at Antioch who were attracted to the light of that wonderful salvation in the risen Lord, believed and were baptised.

SECTION 10 – QUESTIONS

1. Describe what happened when Paul met Sergius Paulus and Elymas.

2. Summarise briefly Paul's address in the synagogue at Antioch in Pisidia.

3. How did the people of Antioch in Pisidia react to the preaching Of Paul?

4. Explain why Paul and Barnabas said, "Lo, we turn to the Gentiles".

5. Why were the Jews envious? What is the problem of envy?

제 11 단원

갈라디아 지방에서 박해를 받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읽을 말씀: 사도행전 14 장

공부할 목표:

많은 고난을 통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배경을 살펴보자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은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교리에 반대하였고 증오하였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았고 이들은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로 이동했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기 까지 이곳들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고니온에서의 대처상황 (1-5 절).

안디옥에서 추방된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 지방의 광대한 중앙 평원지대의 서쪽 끝에 위치한 이고니온 지방을 향하여 남동쪽으로 길을 떠났다. 이들은 로마의 도로를 통하여 대략 130 킬로미터를 여행하여 이고니온이라는 성읍에 도착했다. 바울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이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전도했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1 절)”*라는 말씀처럼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두려워하였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이 전한 논리적이고도 능력을 지닌 말씀에 설복되려 하지 않았다. 이곳의 유대인들은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논란에 휩싸였다. 유대인들은 성읍의 관리들을 찾아가 바울 일행을 멸시하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방해 받지 않으려 하였다. 바울 일행은 대중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였고 가능한 한 많은 대중들에게 전했다. 이들은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다 (3 절). 기적이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확인시켜 주고 있었다.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얼마간의 논쟁이 있는 후, 이고니온 성읍은 각각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지게 되었다. 이로 인한 소동이 일어나려 하자,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돌려 쳐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의 전도 사역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루스드라를 향해 급히 떠나갔다.

루스드라에서 앓은뱅이를 치유하다 (6-10 절)

바울과 바나바는 큰 길에서 벗어나 30 킬로미터를 여행하여 남서쪽 루스드라를 향했다. 일행은 ‘늑대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루가오니아라는 미개한 지역에 들어서게 되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는 다르게, 루스드라와 더베에는 유대인이 거이 살고 있지 않았으며 회당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미개한 헬라의 환경에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특히 이 지역의 한 사람이 주의 깊게 이 메시지를 들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SECTION 11

Persecutions in Galatia

“persecutions, afflictions, which came unto me at Antioch, at Iconium, at Lystra”

READING: Acts 14

OBJECTIVE

To show how that through much tribulation we must enter the kingdom.

BACKGROUND

The Gentiles received the Truth in Antioch of Pisidia with great joy. In contrast, the Jews were stirred up in anger and hatred against Paul and his new doctrine. They instigated persecution against Paul and Barnabas forcing them to leave Antioch and move on to Iconium, Lystra and Derbe to spread the Gospel there, before returning to Antioch.

OPPOSITION IN ICONIUM (verses 1-5).

Expelled from Antioch, Paul and Barnabas made their way in a south-east direction to Iconium at the western edge of the vast central plains of Asia Minor. They travelled some 130 km along one of the many good Roman highways until they reached a city called Iconium. Although Paul had said, *“Lo, we turn to the Gentiles”*, he and Barnabas still acted on the principle of *“to the Jew first”*. They first went to a synagogue where they spoke such effect that they met with immediate spectacular success: *“a great multitude both of the Jews and also of the Greeks believed”* (v.1).

The unbelieving Jews were horrified. They would not be persuaded by the logical and powerful arguments of Paul and Barnabas. They stirred up trouble just like the Jews of Antioch had. These Jews went to the civil authorities and influenced them to despise the brethren. But Paul did not let this hinder their work. They made good use of the publicity the Truth was receiving, and determined to make the most of it while they could. To their preaching of *“the word of His grace”* God added *“signs and wonders done by their hands”* (v.3). These signs and miracles confirmed the truth of their teaching.

For some time the issue between Paul and the Jews was hotly debated, until the whole city became divided into two camps. But when a riot was about to break out, and Paul and Barnabas could see that the Jews were planning to stone them to death, they could see that their work at Iconium had ended for the moment and so they hurriedly left for Lystra.

A LAME MAN HEALED IN LYSTRA (verses 6-10).

Paul and Barnabas left the main highway and travelled the 30 km. in a south south-west direction to Lystra. They entered a much less civilised region known as Lycaonia (meaning wolf-land). Unlike Antioch and Iconium, Lystra and Derbe had only a few Jews and therefore they were without synagogues. So in this semi-barbarous Gentile setting, the Gospel was proclaimed and one man in particular listened very intently. He was a man *“impotent in his feet, being a cripple from his mother's womb, who had never walked”*.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세상의 악함을 치유하실 것이며 아픔과 질병이 사라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바울은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명하기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말했다. 이 사람은 일어나서 걷고 뛰었다. 완전히 치료된 것이었다.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경배하려 하다 (11-18 절).

얏은뱅이를 치유한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였다. 사람들은 이 같은 비상한 기적에 주목하였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배경능력에 주목하였고 신(神)이 그들의 성읍에 임했다고 생각했다. 놀라움과 흥분에 싸인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며 소리높여 외쳤다. 사람들은 황소와 화환들을 가져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였다. 사람들은 바울을 헤르메스(머큐리) - 젊고 아담하고 달변인 활동적인 신 - 라고 불렀으며 바나바는 제우스(주피터) - 나이 많고 키 크고 위엄 있는 신 - 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신 들’이 자신들의 성읍을 방문하여 그같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준데 대하여 감사하는 축제를 열고자 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추앙하는 것에 마음 내켜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추앙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하나이신 참 하느님께만 영광을 돌리려 하는 사람들이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어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진행하려는 축제를 제지하며 외쳤다. “여러분이며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15-17 절)”. 바울과 바나바는 힘겹게 사람들을 제지하며, 얏은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하느님의 능력을 말해주는 징표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하느님의 능력은 하느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움직이게 하시며 계절이 변하게 하시는 것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설명에 사람들은 분개하면서 흠어졌다.

성서의 기본 가르침 - 하느님은 한 분 이시다

루스드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여러 신(神)들이 존재하려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은 생소한 것이었다. 야훼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느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4,5)”.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12:30-31 에서 이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셨다. 예수와 대화하던 서기관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느님은 한 분 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마가복음 12:32,33)” 다른 사도들도 이 가르침을 전했다. “하느님은 한 분 이시요 또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5; 고린도전서 8:6)”. 우리는 이 가르침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하며 ‘삼위일체’ 같은 어리석은 개념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Paul's teaching of salvation concerned a future time when Christ will heal the world's sickness, disease, and weakness. Paul, perhaps perceiving this man's faith, called upon him to *"stand upright on his feet"*. The cripple not only stood, but leaped and walked. He was completely cured.

THE PEOPLE WORSHIP THE APOSTLES (verses 11-18).

The effect of this miracle on the people was beyond the apostles' expectations. They reasoned correctly that such a miracle was extraordinary. In their misunderstanding of the source of the power behind the miracle, they thought that the pagan gods had come down to their city. In their excitement they shouted out in their own language, *"the gods are come down to us in the likeness of men"* (v.11). Paul and Barnabas soon became alarmed at the excitement of the crowd as the people brought oxen and flower garlands, desiring to make a sacrifice unto the apostles. They named Paul, Mercurius - a god who they believed was young, small, fluent, and active; and Barnabas, they named Jupiter - a god who was believed to be older, taller, and more imposing. The people excitedly organised a festival to these "gods" who had honoured their city by visiting them in human form and performing such a sensational miracle.

Paul and Barnabas were disturbed to see that the miracle had been misunderstood as the work of pagan gods. Other men might have sat back and enjoyed the praise of the crowd. But they were men who sought the honour of the one true God. They rent their clothes to protest, because they were so upset. They quickly ran among the excited crowd trying to stop the festivities and shouting, *"Sirs, why do ye these things"* (vv. 15-17). With great difficulty Paul and Barnabas were able to control the crowd. They appealed to the crowd to recognise the healing of the lame man as a sign of the power of the living God. That power was also evidenced in the cycle of the seasons throughout which the living God lovingly provided for all His creation. Finally the people turned away feeling rather embarrassed and resentful against their two visitors.

BASIC BIBLE TEACHING – GOD IS ONE

The people of Lystra, like most of the pagan world, believed in many gods. How different was this new teaching of Paul and Barnabas. Yahweh had taught His nation Israel through Moses: *"Hear O Israel, Yahweh our God is one Yahweh. And thou shalt love Yahweh thy God with all thine heart, and with all thy soul, and with all thy might"* (Deut.6:4-5). Jesus in Mark 12:30-31 repeated this fundamental teaching. The scribe who was talking with Jesus said: *"Well, Master, thou hast said the truth: for there is one God; and there is none other but he: And to love him with all the heart, and with all the understanding, and with all the soul, and with all the strength, and to love his neighbour as himself, is more than all whole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Mark 12:32-33. This basic doctrine was that taught by all the apostles: *"For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1 Timothy 2:5; 1 Cor.8:6). We should be glad to understand this basic doctrine and not foolish ideas like the Trinity.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다 (19-20 절)

1. 거부하는 반응: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출발한 유대인 몇몇이 루스드라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사람들이 사도들에 대해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 하였다. 이들은 호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선동하여 난동을 피우도록 하였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성읍 밖으로 쫓아내어 버려두었다. 무참히 상처 입은 바울은 죽은 것처럼 보였다.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 몇몇이 바울의 주위에 모여 슬픔에 흐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바울은 놀랍게도 갑자기 꿈틀거리며 일어났으며, 자신을 박해한 그 성읍으로 다시 들어갔다. 대단한 용기와 배짱이 아닐 수 없었다.

2. 받아들이는 반응:

루스드라에 거하던 유대인 공동체 중에서 디모데 (하느님의 존귀함이라는 의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으나 남편은 헬라인이었다. 청년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구약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이 청년을 교육하였었다 (디모데 후서 1:5; 3:14-15). 이 청년은 하느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다. 청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겠다고 확신한다. 청년 디모데는 바울의 용기를 보고 감동하여 자신의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기로 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몇몇 사람들과 함께 작은 에클레시아를 형성하는데 노력하였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겪은 고난의 증인이었으며 (디모데 후서 3:10-11), 바울의 예를 본받아 추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4:17, 빌립보서 2:19-22 을 참조하라).

우리 삶의 근본 방침 -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거나 때로는 신체적인 위해를 겪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할 수도 있다(디모데 후서 3:1). 사도들이 당했던 박해와 동일한 박해를 받지는 않겠지만 개인이 감당해야 할 시험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12:10).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견디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신뢰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 나라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6-11).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모든 고난을 극복하신 분이시며,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4:27; 16:33).

‘더베’로 향하다 (20-21 절).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서도 또한 위기를 겪은 후, 동쪽으로 70 킬로미터 떨어진 더베를 향해 여행하였다. 유대인들은 이제는 바울이 위축 되었으려니 라고 생각한 듯 하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이 더베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21 절). 이곳에서는 ‘가이오’의 개종이 이루어졌는데, 가이오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으며, 추후 바울과 여행을 함께 하게 된다 (사도행전 20:4).

TWO RESPONSES TO PAUL'S PREACHING (verses 19-20).

1. Rejection:

Certain Jews from Antioch and Iconium soon arrived at Lystra and quickly took advantage of the people's resentment towards the apostles. These hostile Jews stirred up the men of Lystra to carry out a shocking act of violence. These fickle people stoned Paul, dragged his bruised and battered body through the city, and dumped him outside. So terribly was he treated that they all thought he was dead. A sorrowful group of disciples gathered around the body of Paul, shocked by the awful treatment he had received by the crowd. Suddenly he stirred to life, stood upon his feet and with a tremendous show of courage, went right back into the city of his persecutors! What amazing courage!

2. Acceptance:

Amongst the small Jewish community in Lystra was a young man of great faith called Timotheus (or Timothy, meaning "valued of God"). He was the son of a Jewess who had married a Greek. His mother and grandmother had taught him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2 Tim.1:5; 3:14-15). The word of God had made a deep impression upon him. This, together with the powerful preaching of the apostle Paul, convinced Timothy of the need to become a disciple of Christ. And when he saw the courage of Paul he decided to dedicate his life to Christ and the building up of the little ecclesia recently formed by Paul's preaching. He had witnessed Paul's sufferings at Lystra for the sake of the gospel (2 Tim. 3:10-11) and largely because of that example, Timothy later became a faithful fellow-labourer with Paul (see 1 Cor.4:17, Phil. 2:19-22).

PRINCIPLE FOR LIVING – THROUGH MUCH TRIBULATION WE MUST ENTER THE KINGDOM

In life we can find many "pressures" (tribulations) which may cause us great sorrow of mind or even physical harm (2 Tim.3:1). It is unlikely that we will be called upon to endure the persecutions that the apostles suffered but we will have our own trials to bear. Paul says that it is for "our profit" that God allows this to happen (Heb.12:10). But if we "endure" such trials and trust in God to deliver us, we will develop characters that will be fit for His kingdom (Heb.12:6-11). This is the purpose of tribulation. No matter what our trials, we know that Jesus overcame all things with God's help and He is now able to help us to do the same (John 14:27; 16:33).

THE VISIT TO DERBE (verses 20-21).

Once more, the crisis with the townspeople forced the brethren to move on to Derbe, some 70 kilometres east of Lystra. Their Jewish persecutors probably thought that they had silenced Paul. They did not try and stop the preaching activity at Derbe. A successful campaign was conducted (v.21 mg.). Here another notable disciple, Gaius, was converted. He later became one of Paul's travelling companions (Acts 20:4).

되돌아 오는 여행길에서 에클레시아들을 굳게 세우다 (22-28 절)

더베에서의 전도를 마치자 그동안 사도들이 세운 에클레시아들을 긴급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생겼다. 사도들은 힘들게 지내온 자신들의 전도 여정을 돌아보았다 (디모데 후서 3:11 참조하라). 새롭게 신자가 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하느님에 관한 것들을 더욱 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사도들은 돌아오는 여행길에서 이러한 일들에 집중했다. 바울은 “우리가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며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권고를 전했다.

사도들은 앗달리아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시리아에 위치한 안디옥으로 향했다. 대략 두 해 만에 다시 찾은 안디옥에서 사도들은 그동안 일어난 많은 이야기들을 전했다. 안디옥의 형제 자매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중에 야훼께서 어떻게 사도들의 생명을 지키신 것들 들으며 즐거워했다. 이곳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있었으며, “하느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들으며 즐거워했다 (27 절).

이 단원을 요약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자

- 하느님은 바울로 하여금 미신과 무지의 어두움에 빠져 지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진리의 빛을 비추도록 하셨다. 그러면서 그의 택하신 그릇에게 “하느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이리라” (사도행전 9:15,16)고 말씀 하셨다. 바울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땅히 봉사해야 하며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특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하여 일하고자 할 때에, 바울이 보여준 믿음과 그 용기는 우리에게 크나큰 격려를 준다.
- 디모데는 또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청년 디모데는 성서를 사랑하였으며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유약함을 극복하였고, 바울과 에클레시아 그리고 진리를 위해 봉사하도록 헌신하였다. 우리 모두 디모데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기억해야 할 성서구절: 사도행전 14:22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STRENGTHENING THE ECCLESIAS ON THE RETURN JOURNEY (verses 22-28).

With the work at Derbe completed, the apostles recognised an urgent need to encourage the ecclesias they had just established. They retraced their steps, undaunted by the opposition and persecution they had experienced at most of the cities during their forward journey (cp. 2 Tim.3:11). The apostles recognised the need of all new believers to be established in the Faith by being given further instruction in the things of God. It was this aspect of the work that they concentrated upon on their return journey. Paul's own experiences illustrated his exhortation that they must continue in the faith whatever the opposition, and that it is *"through much tribulation" that we mus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They came again to the port of Attalia and sailed back to Antioch in Syria. It had been approximately two years since they left and there was much to tell. The brethren and sisters rejoiced to hear how Yahweh had worked so wondrously in the lives of Paul and Barnabas on this the first campaign. They had endured great sufferings but they were able to rejoice with the ecclesia in the knowledge that *"God had opened the door of faith unto the Gentiles"* (v.27).

SUMMARY AND LESSONS FOR US:

- God was with Paul to bring the light of Gospel truth to the Gentiles living in the darkness of superstition and ignorance. But God showed his chosen vessel how great things he must suffer "for my name's sake" (Acts 9:15, 16). Paul rejoiced, counting it a privilege that he could serve Christ, who had given his life that others, like Paul, might live. We come to understand the privileges and demands of serving Christ. When we make a decision for Christ we can do so encouraged by Paul's faithful and courageous example.
- Another good example for us is that of Timothy, a young man who loved the scriptures and overcame his shyness by a faithful and unselfish dedication to the service of the Truth - to Paul and to the ecclesia. We can all be Timothys!

VERSE TO REMEMBER: Acts 14:22 *"Confirming the souls of the disciples, and exhorting them to continue in the faith, and that we must through much tribulation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제 11 단원 - 학습문제

1.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2.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앓은뱅이를 고쳐준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3.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이유는 무엇인가?

4. 루스드라에 살던 디모데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5.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박해를 받았던 그 여정을 그대로 거슬러 갈라디아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6.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사도행전 14:22).

(a)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서 위의 성서구절을 설명해 보아라.

(b) 우리에게 이 성서구절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SECTION 11 - QUESTIONS.

1. Why were Paul and Barnabas forced to leave Iconium?

2. What were the results of Paul healing a lame man at Lystra?

3. Why was Paul stoned at Lystra?

4.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the example of Timothy of Lystra?

5. Despite earlier persecutions, Paul and Barnabas retraced their steps through Galatia - why?

6. *"We must through much tribulation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Acts 14:22).

(a) Explain how Paul and Barnabas' journey to the Galatian cities of Antioch, Iconium, Lystra, and Derbe illustrates this principle.

(b) How does it apply to us?

제 12 단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읽을 말씀: 사도행전 16 장

공부할 목표:

빌립보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전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 하느님께서 험한 시련가운데에서 사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알아보자.

배경을 살펴보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가 끝난 후, 바울은 안디옥으로 여행하여 회의의 결과를 안디옥의 형제들에게 전해주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바울은 자신의 첫 번째 여행에서 세운 에클레시아들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 여행에는 실라가 동행한다. 바울 일행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향해 출발했다.

하느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향하도록 지시하시다 (1-12 절)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서 청년 디모데를 만났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함께 여행할 것을 권했다. 디모데의 부친은 헬라인이었다.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향해 비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수여받도록 하였다. 여행을 통해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안에서의 아들로서 그리고 신실한 동반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일행이 갈라디아 지방의 브루기아를 지날 무렵, 성령이 지시하시기를 아시아로 향하지 말라 하였다. 아마도 에베소 지역과 일곱 에클레시아를 피하여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향하도록 지시하신 듯 하다. 그래서 일행은 비두니아를 향해 북쪽으로 여행하고자 하였으나, 하느님께서 다시 그들의 목적지를 변경시키셨다. 일행은 서쪽으로 여행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 드로아는 과거 트로이 성읍이었다. 바울은 이곳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등장하였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고 일행들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건너와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 환상은 하느님께서 일행으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향하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한 일행은 즉시 에게해를 향해하여 네압볼리(네아폴리스)로 향했다. 이곳에서 15 킬로미터 내륙으로 가면 마게도냐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 이른다.

루디아와 그 가족이 모두 침례를 받다 (13-15 절)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냐의 빌립’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진 성읍이었다. 이곳은 로마의 규율에 따른 속주(식민지)였다.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바울과 일행은 강가를 찾았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았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다. 그곳에서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여인 가운데 루디아라는 상인이 있었다. 루디아는 귀한 옷감을 취급하던 상인이었다. 이 여인은 백부장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하느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듣고 그 진리에 응답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0:2,6 참조할 것). 복음을 배우고 믿은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은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권하여 자신의 집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였다.

어떤 여인의 병을 치유하다 (16-21 절)

빌립보 성읍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정신이 오락가락했으나 점을 잘 친다고 알려진 여인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미신에 빠져 이 여인의 점괘를 믿고 있었으므로, 큰 돈벌이가 되던 상황이었다. 바울과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은 후, 이 여인은 복음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여러 날 동안 형제들과 같이 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 여인이 주위사람들에게 소리지르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들이다 라며 소리쳐 떠들었다. 바울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이 여인이 크게 소리치는 상황에 당황했다.

SECTION 12

Imprisoned at Philippi

“Come over into Macedonia and help us”

READING: Acts 16

OBJECTIVE

To show how God extended the hope of the salvation to the Gentiles in Philippi. We see how God protected His apostles through great trial.

BACKGROUND

After the Jerusalem Conference, Paul journeyed to Antioch and told the brethren of the conclusions of the conference. After some time, Paul determined to revisit the ecclesias he had already established during the first campaign, and together with Silas, departed for Syria and Cilicia.

GOD DIRECTS PAUL TO MACEDONIA (verses 1-12).

At Lystra the brethren met the young man Timothy whom Paul asked to accompany them. Timothy's father was a Greek. To avoid criticism and Jewish opposition to Timothy, Paul thought it best that Timothy submit to circumcision. Timothy proved to be a faithful companion and son in the faith to Paul. When the brethren had passed through Phrygia and the region of Galatia, the Holy Spirit directed them not to go into Asia, probably avoiding the area of Ephesus and the seven ecclesias - to the west and south of them. They then planned to travel north to Bithynia, but again God directed them away from their destination. So they travelled west until they reached Troas (ancient Troy), where Paul saw a vision. A man of Macedonia was praying that they should come to help them in that area. Understanding that it was God's will for them to go to Macedonia, the brethren immediately sailed across the Aegean Sea to Neapolis. From there, the Ignatian Way led them 15 km inland to the first city (chief city) of Macedonia - Philippi.

LYDIA AND HER HOUSEHOLD BAPTISED (verses 13-15).

Philippi was named after Philip of Macedonia, the father of Alexander the Great. It was a colony, under Roman rule. It appears that there were no synagogues in the town, for Paul and his companions went first to a riverside, where it is recorded that *“prayer was wont to be made”*. Among some women who heard their preaching was Lydia, a trader, who sold a precious cloth dye. She, like Cornelius the centurion, was a devout person, and responded to the truth that was taught her concerning the things of the kingdom and the name of Jesus Christ (cp. Acts 10:2,6). After learning and believing the Gospel, Lydia and her household were baptised, and from that time, she persuaded the brethren to abide with them at her house.

A WOMAN HEALED (verses 16-21).

There was in Philippi a mentally disturbed woman who had gained a reputation as a fortune-teller. Men had taken advantage of the people's superstition and had demanded large sums of money from those folk who ignorantly placed faith in the woman. After hearing Paul and the brethren preaching the gospel she became interested in them and accompanied them for many days. She began to cry out that these men showed the way of salvation. This upset Paul, as he did not want the truth to be proclaimed from a mentally disturbed person.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여인의 정신을 치유해 주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더 이상 환각 같은 것에 빠지지 않았다. 이 여인이 전에 점을 보는 것으로 큰 돈을 벌던 사람들의 돈벌이가 이제 끊기게 되었다. 분노한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상가를 다스리는 관원에게로 끌고 갔다.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 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이라고 고소하여 치안판관 앞으로 끌고 갔다.

투옥, 지진 그리고 개종 (22-34 절).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멸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빌립보에 있던 바울과 실라는 군중들에게서 이 같은 경우를 당했다. 군중들의 요구를 달래기 위해서 치안판관은 사도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가했으며 엄중한 감시하에 감옥에 가두었다. 사도들은 아픔과 모멸감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을 즐거워 하였다 (사도행전 5:41 참조할 것).

우리 삶의 근본 방침 – 진리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면서 큰 고통을 받았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잘 따랐다 (마태복음 5:11-12. 베드로전서 4:12-14; 3:14; 로마서 12:14).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 한밤중에 빛나는 등불과 같은 것으로서, 이들은 하느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다. 바울은 어느 환경에 처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법을 알았다. 추후에 바울은 빌립보 에클레시아에 다음과 같이 편지한다.

-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3:1)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4)
-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빌립보서 4:10)

바울은 기쁜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있었다. 바울은 하느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보여주도록 자신을 부르신 것을 알았고 그의 생을 바쳐 이 일을 하려 하고 있었다. 바울이 가진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었다.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고 비난할 지라도 우리가 가진 진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바울과 실라가 하느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을 같이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도 들었고, 물론 야훼 하느님께서도 이들의 찬송을 들으셨다. 하느님은 이들을 영원토록 돌보신다는 것을 (시편 34:7; 107:10-16; 146:1-7) 보여주시는 분명한 징조로서 지진을 일으키셨으며 감옥을 흔들며 옥문을 열고 이들을 자유롭게 하셨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탈출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였다. 죄수가 탈출하였다면 자신의 목숨이 부지될 수 없을 터였다. 바울은 간수가 자결하려는 모습을 어둡가운데 보았다. 바울은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죄수 중 아무도 나가지 않았노라고 말했다. 간수에게 있어서 바울과 실라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느님을 대표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간수는 하느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높이시며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심에 압도되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여 들고 바울과 실라 있는 곳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나 간수는 이제 더 이상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간수는 몸을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e cured her mental disability. Because the woman no longer suffered delusions, she was unable to continue her fortune-telling and as a result, the men who had gained much money through her activities lost any further profit. In anger they captured Paul and Silas and brought them before the rulers in the market place. Although Paul and Silas had done only good works, they were brought before the magistrates, and these wicked men charged them with trouble-making.

IMPRISONMENT, EARTHQUAKE AND CONVERSION (verses 22-34).

Often those who preach the truth concerning Jesus suffer scorn and contempt from their fellows. Paul and Silas' experienced this at Philippi as the crowd joined in their condemnation. To satisfy the cries of the crowd, the magistrates stripped and beat the brethren, and ordered their imprisonment under strict security. Despite their humiliation and pain, Paul and Silas rejoiced that they were able to suffer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cp. Acts 5:41).

PRINCIPLE FOR LIVING – BE JOYFUL IN THE TRUTH

While Paul and Silas were doing Christ's work they suffered greatly. They responded to the exhortation that Jesus gave when he said, *"blessed are ye when men shall revile you, and persecute you and shall say all manner of evil against you falsely, for my sake. Rejoice, and be exceeding glad: for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Matt. 5:11-12, cp. 1 Pet. 4:12-14; 3:14; Rom. 12:14). In the middle of the night their faith shone forth as a beacon, as they prayed and sang praises to God. Paul knew how to be joyful in all circumstances. Later he wrote to the Philippians:

- *"Finally my brethren, rejoice in the Lord"* (Phil. 3:1)
- *"Rejoice in the Lord always, and again I say Rejoice"* (Phil. 4:4)
- *"But I rejoiced in the Lord greatly"* (Phil. 4:10)

This joy was a continuing state of mind. Paul knew that God had called Him to show the Father's glory to the Gentiles, and was working in his life. Such a knowledge gave him great joy that no-one could take from him. We need to find the Truth the source of greatest joy in life. The joy of the truth cannot be taken from us, even when others laugh and mock at our beliefs.

As Paul and Silas sang the prisoners heard them and so did Yahweh. God then gave a sure sign of His everlasting care (Psa. 34:7; 107:10-16; 146:1-7) by causing a great earthquake to rock the prison building, open the doors and set the prisoners free. Quickly, the jailor realized that the prisoners might be free. If any escaped, his own life would be taken by the Roman authorities. Paul could see the jailor about to commit suicide in the shadows. He quickly cried out to reassure him that the prisoners were all there in the jail. It was clear to the man that Paul and Silas were representatives of the all-powerful God of Israel. The jailor was over-awed by God's display of power and the God-fearing attitude of His servants. He called for a light and sprang in - but not in the manner appropriate to a security guard. He fell down trembling before them!

간수는 이들을 다시 결박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얻고자 했다. 간수가 외치며 말했다. “선생님들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37; 누가복음 3:10) 간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소망을 원했고 간수의 이 소망은 믿음으로 변했다. 간수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났고,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다. 간수는 복음을 들었고, 바울과 실라가 보인 태도를 바라보았으며, 지진을 체험하였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탈출하지 않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하는 것을 들었다. 간수는 확신했다.

성서의 기본 가르침 – 침례 받으려면 먼저 믿고 회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간수와 그 집안이 어떻게 그렇게 신속히 침례를 받기로 결정했으며, 침례에 어떤 책임이 수반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 30 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간수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전도의 내용에 익숙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이미 “여러 날 동안” (17,18, 20-21 참조) 전도하고 있었고 이들의 전도 내용은 널리 퍼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간수가 그날 밤 바울과 실라에게 보여준 반응은 즉흥적인 감정의 결정이 아니라 성서의 진리에 기초한 결정이었다. 하느님께서 마련한 구원의 원리는 불변이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고 회개한 후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도행전 2:38; 3:19).

그날 밤 간수와 그 가족들은 바울과 실라의 매맞은 자리를 씻겨주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라는 말씀(이사야 53:5)과 같은 상황이었다. 우리도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12)라는 증거는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이 말씀에 따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에 겸손히 순종해야 할 것이다.

치안판관이 당황해 하다 (35-40 절).

그날 밤 벌어졌던 일들을 전해들은 치안판관들은 정당한 재판과정 없이 함부로 바울을 옥에 가두었던 일을 떠올리고 두려워졌다. 아마도 치안판관들은 하느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판관들은 부하를 보내어 명하기를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했다. 간수가 이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자, 바울은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들을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낸다고 한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37 절). 판관들은 바울의 말을 전해 듣고 더욱 두려움에 싸였다. 비밀리에 이 상황을 수습하려던 판관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사과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빌립보 성읍의 관리들의 오만함을 꺾어놓을 수 있었으며, 빌립보 에클레시아에 있을 장차의 박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빌립보의 판관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은 조롱 받을 분이 아니시며”, 하느님의 말씀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랜 동안 기억하게 되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6:7; 이사야 55:11). 판관들은 사람을 보내어 바울과 실라 일행에게 사과한 뒤, 그들에게 이 성읍을 떠나 주기를 정중히 청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 에클레시아 원들을 다시 만났다. 바울과 실라는 이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전한 뒤 빌립보 성읍을 떠났으며, 누가와 디모데는 이곳에 남아 신자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He was not so much concerned with locking them up again, but in being saved himself. He cried,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cp. Acts 2:37; Luke 3:10). Fear led to desire and desire in turn to belief. Belief brought obedience and baptism "*that same hour of the night*" to his entire household. He had heard the gospel, seen the attitude of Paul and Silas, experienced the shock of the earthquake, the self-control of the prisoners who stayed rather than fled, and the charge given to him by Paul and Silas to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He was convinced!

BASIC BIBLE TEACHING – BELIEF AND REPENTANCE NEEDED BEFORE BAPTISM

It is sometimes asked: How could the jailor and his household know enough about the Gospel to accep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Truth in baptism so soon? It is obvious from his question in v.30 that he had been well acquainted with Paul's preaching of the things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and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That preaching was well known and widespread for they had been there "many days" (cp. vv.17,18,20-21). The jailor's reaction was not just an emotional response – it was based on Bible truth. God's principles do not change – unless we believe, repent and are baptised we cannot be saved (Acts 2:38; 3:19).

That night as they washed Paul and Silas' stripes they could, in effect, say, "*by their stripes we are healed*" (cp. Isa.53:5). We too can be thankful that it was through the sufferings of the Lord Jesus Christ that we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believe and be baptised into the hope of salvation. We have all the evidence before us that there is "*none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whereby we must be saved*" (Acts 4:12). Let us therefore humbly believe and obey the charge given to us.

THE MAGISTRATES HUMBLING (verses 35-40).

The magistrates were frightened when they heard of the events of that night, for they had unjustly sentenced Paul and his companions without a fair trial. Perhaps they concluded that Paul and Silas were protected by Divine Power? Therefore the magistrates instructed the sergeants to arrange their release. When the keeper of the prison conveyed this message to Paul, Paul refused to be dismissed in this way. He emphasised the unjust and harsh treatment his party had been given, and pointed out their rights as Roman citizens to a fair trial and some respect. "*Let them come themselves and fetch us out*", he demanded (v.37). When they received this message, the magistrates' fear increased. They realised that now they would be unable to secretly explain away the embarrassing incident. Now they were forced into an open show of apology. In this way Paul was able to humble the authorities in Philippi, and so safeguard the little ecclesia from further similar persecutions. The magistrates would remember the lessons of those hours for a very long time. "*God is not mocked*", and His Word shall accomplish that which He pleases (Gal.6:7; Isa.55:11). After the magistrates had personally released the company, apologised and asked them to leave the city, Paul and Silas went to the house of Lydia, where they met again with the ecclesia. Paul and Silas spoke words of comfort to the remaining brethren and sisters and departed from Philippi, whilst Luke and Timothy continued their ministrations to the believers in that place.

이 단원을 요약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자

- 바울은 우리에게 말한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 받은 것처럼 우리가 바울을 본받으라 말한다 (고린도전서 11:1).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말한다(빌립보서 3:10,11). 이 단원에서 다룬 바울의 전도여행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으려 했는지 알 수 있으며, 바울의 헌신을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루디아의 개종과 간수의 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요한복음 6:44)라는 말씀을 떠올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짐에 대해 감사드려야 한다. 환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소망은 오직 아버지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길에 달려있을 뿐이다.
-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의(義)를 인하여 실제적인 고난을 받았다. 박해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가운데 지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만약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잇는 자라” 하였다 (베드로전서 3:14). 사도들이 보여준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한 격려를 받는다.

SUMMARY AND LESSONS FOR US

- Paul instructs us to be followers of him, even as he followed Christ (1 Cor.11:1). He said he desired to conform to the sufferings,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Phil. 3:10,11). This episode in his preaching campaigns highlights how closely he conformed to the Christ and we should gain inspiration from his devotion.
- When we consider the conversion of Lydia and the jailor, we remember that Jesus said, “No man can come unto me except the Father which hath sent me draw him” (John 6:44). We should be very thankful for the opportunities God has given us to learn His Truth. It is our only source of hope in this troubled world, and we should draw near to Christ while the Father is calling.
- Paul and Silas suffered for the sake of righteousness in a very real way in Philippi. Their singing and praise showed that they were happy despite their persecution. Peter recorded: “But and if ye suffer for righteousness' sake, happy are ye...” (1 Pet.3:13). We can take encouragement from the experiences of the early disciples and be sure in the knowledge that God will never forsake His children.

제 12 단원 - 학습문제

1.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된 상황을 설명해 보라.

2. 바울이 빌립보에서 행한 전도에 관해 설명해 보고 루디아의 개종에 대해 설명해 보아라

3.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된 사연을 설명해 보아라.

4. 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냈는가?

5.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개종하게 된 사건에 대해 설명해 보아라.

6. 우리가 역경에 처한 중에서도 진리 안에서 즐거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7. 침례를 받기 전에 믿음과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SECTION 12 - QUESTIONS:

1. Explain how Paul was guided to Philippi.

2. Describe Paul's preaching in Philippi and the conversion of Lydia

3. Describe the events leading up to Paul's imprisonment in Philippi.

4. What attitude did Paul and Silas take to their imprisonment at Philippi?

5. Describe the conversion of the Philippian jailor.

6. How can we be joyful in the Truth when life is tough?

7. Why are belief and repentance needed before baptism?

제 13 단원

바울의 전도에 대한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여...”

읽을 말씀: 사도행전 17 장

공부할 목표:

베뢰아 사람들은 겸손히 듣고 진리를 받아들인 반면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을 들어 반대하면서 진리를 거부하였다.

배경을 살펴보자

빌립보에 머물면서 바울은 그곳 사람들의 큰 반대에 직면했다. 빌립보에서는 이러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었다. 빌립보 에클레시아를 떠난 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와 베뢰아를 여행하였고 마침내 아테네에 들어갔다.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다양한 반응들 (1-10 절).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중요한 성읍이었는데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 이곳에서 바울은 3 주를 머물며 안식일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전했다. 바울이 논증하며 전한 진리를 몇몇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공모하여 바울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질투심으로 가득찬 이들은 불량배 패거리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켰다. 패거리들은 일행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야손을 붙잡고 관원에게로 끌고 간 뒤, 소란을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죄목으로 고소하였다. 논의를 거친 관원들이 야손과 다른 신자들을 석방하자, 그곳 에클레시아는 주변의 험한 분위기를 피하도록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를 향해 떠나도록 하였다.

베뢰아 사람들에게서 받은 격려 (10-15 절).

베뢰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유대 회당에 들어가 전도했다. 베뢰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증거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바울 일행이 전한 증거가 참인지 확인하기 위해 날마다 성서를 살펴보았다고 한다. 그 결과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사실 베뢰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듣고 성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태도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이다. 이러한 자세를 통해 우리는 진리를 명확히 그리고 조화롭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베뢰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한 소망 속에서 기쁘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곳에서도 다시 몸을 피신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베뢰아 지역에서 바울의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에 가득찬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우고자 베뢰아로 몰려왔다. 아마도 바울은 이때 급히 피신해야 했으므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아테네로 먼저 떠났으며,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가능한 한 빨리 자기와 합류하기를 바란다는 전갈을 이 형제들이 돌아가는 편에 전했다 (15 절). 이 무렵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이교숭배 사상과 맞서서 가장 힘든 도전의 시기를 겪고 있었고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SECTION 13

Responding to Paul's Teaching: Thessalonica, Berea and Athens

"His spirit was stirred in him"

READING: Acts 17

OBJECTIVE

To show how the truth was eagerly accepted by humble people of Berea but refused by the "wise" philosophers of Athens.

BACKGROUND

A feature of Paul's stay in Philippi was the cruel treatment he received from those who opposed his preaching. There followed a pattern of persecution that was becoming firmly established. After leaving the ecclesia at Philippi, the apostle journeyed to Thessalonica and Berea, and finally to Athens.

MIXED RECEPTION IN THESSALONICA (verses 1-10).

Thessalonica was about 150 kilometres south-west of Philippi. It was an important city of Macedonia, and was the site of the region's Jewish synagogue. Here, for three sabbaths, Paul reasoned with the Jewish and Gentile converts, teaching that Jesus was the Christ. Some of the Jews and many of the local Greeks were persuaded by his reasoning. But those Jews who refused to accept the Truth conspired against him. Overcome with envy, they gathered a mob and promoted a riot. The mob moved to the house of Jason where the brethren had been staying. Jason was dragged before the rulers and was accused of showing hospitality to troublemakers. It was only after the authorities had taken security from the brethren that they were allowed their freedom, and in view of the tense atmosphere, the ecclesia quickly sent Paul and Silas off to Berea that night.

ENCOURAGEMENT AT BEREA (verses 10-15).

Upon their arrival at Berea, Paul and Silas began their preaching work at the Jewish synagogue. The Jews of the area showed a keen interest in their testimony, and *"searched the scriptures daily"* to determine whether it was accurate. Consequently, many of them, as well as many of the Greeks, believed. In fact, we would all do well to follow their example of reading the Bible day by day. When we do that we will soon find the wonderful harmony and clarity of the Truth. Believing it to be the ONE hope we can then gladly accept it like the believers at Berea.

Paul was again forced to flee. The angry Jews of Thessalonica heard the success of his work in Berea, and pursued him there to continue to stir up trouble. Perhaps Paul was in need of help at this time, for we read that some brethren accompanied him to Athens (v.15), and returned with his request that Silas and Timothy join him as soon as possible. It was in this time of stress and difficulty that the apostle began a most challenging involvement with the pagans at Athens.

아테네에서 극적이 사건이 벌어지다 (16-34 절).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따라 이름 지어진 성읍으로서, 당시 문학 예술 그리고 과학 분야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곳 아테네에는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파르테논 신전의 거대한 건축물이 아크로 폴리스 광장이라고 불리는 높은 곳에 우뚝 서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박식한 지식을 뽐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처음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혼자 지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보여주는 우상숭배에 당혹하면서 곧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관해서 유대인 및 일부 헬라인들을 상대로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안전이나 편안함은 뒤로 한 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장터에 서서 매일 매일 토론을 진행했다. 곧 그곳 사람들 중에서 인생과 창조에 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에 호감을 갖게 되었다. 당시 아테네에는 두 가지 큰 부류의 철학파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였다.

-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세속과 멀리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사회와 독립하여 살면서 악을 멀리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신은 인간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다양하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생활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은 하느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 이들이 주장하며 가르치는 것들은 단순했다. -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우리는 죽을 지도 모른다”

바울은 영혼의 불멸을 믿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구세주에 관해서 그리고 그의 부활에 관해서 전했다. 바울이 전한 금시초문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아마도 새로운 하나의 신(神)에 관해 말하고 있나보다고 생각했다. 바울이 전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울을 마르스 언덕 또는 아레오바고 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끌고 가서 판단해 보고자 하였다.

바울이 진리를 변호하다 (22-31 절).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여 진리에 관해 깊이 설명했고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종교관에 관해 설명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자 아테네 시가가 멀리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시선이 닿는 곳 마다 신전이며 우상이며 제단들이 성읍 여기저기에 널려져 있었다. 바울의 앞에는 아크로폴리스의 기초석이 우뚝 솟아있었고, 미네르바 여신상이 창과 방패와 투구를 쓰고 아테네의 전승자로서 청동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헬라의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 파르테논을 기리기 위해 세운 거대한 파르테논 성전의 기둥이 있었다. 미신으로 가득찬 이 성읍은 이제 바울이 믿는 바를 전해보라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다. 바울은 이 도전을 받아들였다.

- **23 절**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던 ‘신을 섬김’에 관해 언급하면서 운을 떼었다. 바울은 그곳 사람들이 사당에 모시며 신을 경배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보았다.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침”이라는 문구가 적힌 곳도 있었다. 바울은 이 사례를 들어 말을 시작하면서 그곳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신 야훼 하느님에 관해 전하기 시작했다.

DRAMA AT ATHENS (verses 16-34).

Athens, named after the goddess Athena, was the centre of learning in the fields of science, literature and art in the ancient world. It grew up around the rocky hill called the Acropolis (the highest point of the city), on top of which was built a magnificent temple called the Parthenon, dedicated to Athena. Its citizens knew much about many subjects but were completely ignorant concerning Jesus Christ. Initially Paul was alone as he waited for Silas and Timothy to arrive. Paul was so upset by the shocking idolatry practised by the Athenians that he immediately began to discuss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with the Jews and God-fearing Gentiles. Without thought for his personal comfort or safety, the apostle argued with the passers-by in the market place every day. Soon there were attracted to his audience, philosophers who had devised theories about creation and life. There were two dominant groups of philosophers in Athens at the time, each with different ideas about the world. They were the Stoics and the Epicureans.

- **Stoics** stood apart from worldly things and developed peace of mind. Their aim in life was to accept fate, to be proudly independent of the society and endure its evils.
- **Epicureans** professed that the gods were not concerned with mankind. Accordingly the Epicureans pursued all manner of pleasurable activities in an attempt to satisfy their desires. For practical purposes they did not believe in God at all. Their teaching was simple - "let us eat, drink and be merry, for tomorrow we die".

The preaching of Paul confused these believers in the immortality of the soul, for he taught them of a Saviour and the resurrection. They had not previously heard of either, and some of the audience apparently mistakenly thought that Paul was speaking of new gods. In order to know exactly what Paul was preaching they took him and brought him to "Areopagus" or Mars Hill, where judgment was to be made.

PAUL'S DEFENCE OF THE TRUTH (verses 22-31).

Paul welcomed the opportunity to expound the truth and expose the folly of the false religion of the Athenians. As he stood on the hill, a panorama of Athens lay before him. Wherever he looked Paul saw the temples, idols, and altars of the city. Before him, towering above on its pedestal on the rock of the Acropolis, was a bronze colossus of the goddess Minerva, armed with spear, shield, and helmet as the champion of Athens. The massive pillared temple, the Parthenon, stood magnificently by, built in honour of the Greek goddess, Athena Parthenon, the Greek goddess of wisdom. It was as though the city of idols was challenging Paul to state his case. Paul took up the challenge.

- **Verse 23** He began by referring to their religious "devotions". He had seen, he said, evidence of their worship in the form of shrines. It was to one of these that he drew particular attention. Upon it were inscribed the words "TO THE UNKNOWN GOD". It was his intention, said Paul, to make known to them the previously "unknown" God.

- **24-25 절** 바울은 당시 철학자들이 주장하던 이론과 충돌되는 이론을 전하면서,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이 속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전했다. 하느님은 하늘의 주시요 땅의 주인이시다. 하느님은 민족들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주관하시며, 세상사를 관여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멀리서 바라보신다. 하느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 안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아니며 인간이 드리는 경배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고 전했다. 바울은 가르치기를, 하느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으로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의 영으로서 모든 인류를 지탱하고 계시는 분임을 가르쳤다. 하느님 한 분 만이 모든 생명체에 생명과 호흡을 제공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였다.
- **26-27 절** 하느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기에, 이 아담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창조를 지휘하시고, 민족의 기원을 조성하셨으며 나라의 경계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찾아볼 기회를 마련해 두셨다. 하느님은 인간과는 다른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잘 알아가기를 원하는 분이시다.
- **28-29 절** 하느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지내지 않으시는 분이며,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이라고 가르치셨다. 당시 헬라의 시인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시를 지은 시인도 있었다. 만약 인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인간이 아버지인 하느님을 규정하여 조각하고 묘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겠느냐 라고 바울은 설파하였다. 바울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하듯 우상에 경배하는 것은 그릇된 방법임을 지적했다.
- **30 절** 하느님께서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야만인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지 않지만, 이제 하느님을 알 만한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것을 요구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목적과 성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상, 우리 인간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논증하였다.
- **31 절** 바울은 계속해서 전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으며,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느님의 신실하심이 입증되었으며, 또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 증거되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들어 논증하며 사람들이 하느님께 순종할 수 밖에 없음을 전했다.

성서의 기본 가르침 - 책임과 그에 따른 심판

하느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듣고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좋던 싫던 간에 책임이 따른다. 성서는 말하기를 하느님의 뜻은 우리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같다고 말한다(요한복음 1:5-9; 고린도 후서 4:3-6).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해야 한다. 이 원리는 요한복음 12:44-48; 15:22; 사도행전 24:22, 25 등 성서에서 여러 번 언급된다. 고대 인류는 어둠 속에서 지내왔지만,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답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현명한 사람 모두가 믿지는 않는다(32-34 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며 약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복음을 받아들인 아레오바고 사람 가운데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마리라는 여인이 있었다. 디오누시오는 그곳의 시의회 의원이었다. 바울의 말을 들은 디오누시오는 전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졌다. 시의회 의원이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는 권력자의 위치에서 내려와 죄인들과 같이 지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 사람이 개종했다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며 좋은 품행을 보여야 했던 당시 성읍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서 진리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 **Verses 24 -25** Contrary to the theories of the philosophers, Paul stated that God had made the world and everything therein. He was Lord of heaven and earth. He ruled in the affairs of the nations and had determined the outcome of the world's affairs, but He remained separate from man's ways. He was not to be found in "temples made with hands," or worshipped by people offering things of human need. God, taught Paul, was the Maker of all things, was in need of nothing, and in fact sustained all mankind by His Spirit. He is the One who gives life and breath to all living creatures.
- **Verse 26-27** God created Adam, so that all nations have a common origin. It is God that controls all creation, has organized the times of nations and the boundaries of their countries. He has given every man an opportunity to search for Him. Although He is distinct from man's ways, God is willing that all men should come to a proper understanding of Himself.
- **Verse 28-29** God is not, explained Paul, far from us, for we are indeed His children. Greeks had understood this fact, for two of their poets had written of man's relationship with God (v.28). If then God made us it did not make sense that man could represent God in things of his own craftsmanship. In this way Paul taught his listeners that worshipping idols was the wrong way to worship the true God of Heaven.
- **Verse 30** While it was true that God did not hold ignorant people responsible to judgment, He now required that men should repent. Now that the Lord Jesus Christ had made known the character and purpose of God, men no longer had any excuse.
- **Verse 31** He went on to say that as Christ had conquered the power of sin and had been raised from the dead, so he would come again to judge the world. The certainty of the judgment was guaranteed by God's faithfulness in resurrecting Jesus. That fact alone, argued Paul, should make men obey Him.

BASIC BIBLE TEACHING - RESPONSIBILITY AND JUDGMENT

All human beings who know and understand God's will are accountable to Him, whether they like it or not. The Bible often speaks of this knowledge of God's will as a light shining into the darkness of human society and human hearts (see for example John 1:5-9; 2 Cor.4:3-6). When we know and understand God's will, we are required to obey it, whether we have been baptised or not. This principle is reinforced by many Bible quotations such as John 12:44-48; 15:22; Acts 24:22, 25. People across the ancient world had been in darkness, but now that Paul had brought the light they had a responsibility to respond.

NOT MANY WISE MEN BELIEVED (verses 32-34).

Despite the rejection of the gospel by the majority, some believed. Amongst these few was Dionysius, the Areopagite and a woman called Damaris. Dionysius was a member of the tribunal that heard Paul. The power of the Word was sufficient to change this man's attitude of hostility to one of belief and acceptance. It was as if the judge got off the bench and joined the prisoner in the dock! His conversion was a triumph for the truth for no one could judge in the Areopagus who had not previously been the Governor of the city, and was held in high esteem for his intelligence and good conduct.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이 시의회 의원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 중의 하나였을 뿐이었다. 십자가에 관한 전도는 유대인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었고, 헬라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도 어리석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기보다 현명한 분이시다(고린도전서 1:17-31). 오늘날 서양 세계에서 진리에 반응하는 모습은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반응하던 모습과 흡사하다. 사람들은 철학적이며 새로운 사상을 듣고 다양한 사상을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어리석은 이야기 중의 하나로 치부하곤 한다.

우리 삶의 근본 방침 - 세상의 학식을 초월해야 한다

마르스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지내며 타인에게 화답하지 않는다. 바울이 전한 부활의 가르침은 위대한 창조주에 순응할 것을 말하는 가르침이다.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무시하며 미워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1:26)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세상의 철학과 자부심을 무시하며 초월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철학이나 원리를 대할 때 하나님에 대항하는 인간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단원을 요약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자

- 데살로니가에 살던 적은 수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자 바울은 베뢰아로 향했다.
- 베뢰아 지방의 유대인들은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의 가르침이 그러한가 하여 성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베뢰아에 살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믿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 바울은 다시 아테네를 향하여 피해야만 했다.
- 아테네의 미신적 분위기에 바울은 진저리를 쳤다. 바울은 마르스 언덕에서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전하기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그 신이 곧 세상을 창조하고 인류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었으며, 세상을 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 전했다.
- 지식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아테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답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 아테네의 소위 현명한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한 가르침을 어리석은 것이라 치부하였다. 그런 가운데에서,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는 복음에 응답하였다.

Unfortunately his case was an exception - the response was poor. The preaching of the cross had been a stumbling block to the Jews and now it proved to be foolishness in the eyes of the Greeks; but God is wiser than men (1 Cor.1:17-31). The reception of the Truth in the Western world today is very similar to the Athenians. People are philosophical; they love to hear some new thing and they have time to fritter away in listening to all kinds of ideas. The ideas of the Word of God such as a resurrected Christ are foolishness to them, just as in Paul's day.

PRINCIPLE FOR LIVING - IGNORE WORLDLY PHILOSOPHY

There were many on Mars Hill, who, like people today, thought they had superior wisdom. They had no need for God. They were independent and not answerable to anyone. Paul's teaching of the resurrection involved reliance upon the great Creator. Many scoffed at the words of the teacher; others put the matter off to some other time. It is to be expected however, that "*not many wise men after the flesh, not many mighty, not many noble*" will receive the gospel (1 Cor.1:26). We do well to ignore worldly philosophy and reasoning which puffs people up with pride. We need to be careful when reading school/university books and listening to school/university teachers that we are not accepting a message of human reasoning which is opposed to God.

SUMMARY AND LESSONS FOR US:

- A small number of both Jews and Greeks believed Paul's teaching at Thessalonica. The unbelieving Jews stirred up a riot forcing Paul to leave Berea.
- The Berean Jews were more noble and searched the scriptures to see if Paul was preaching the truth. Many believed, both Jews and Greeks, but Jews from Thessalonica caused trouble and forced Paul to flee to Athens.
- Paul was disgusted by the idolatry in Athens. Before the philosophers on Mars Hill, Paul taught that the God who was unknown to them was actually the creator of the world and all mankind. His purpose is to send His son, the Lord Jesus Christ, back to the earth to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 Knowledge brings responsibility. Not only the Athenians, but all of us who have heard of God's offer of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have a responsibility to respond.
- The so called wise men of Athens thought Paul's teaching was foolishness. However, Dionysius and Damaris did respond.

제 13 단원 - 학습문제

1.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데살로니가와 베뢰아 사람들이 보인 다양한 반응에 대해 설명해 보아라.

2. 베뢰아 사람들이 성서를 대한 태도에 있어서,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3. 바울 시대에 아테네 성읍과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 관해 설명해 보아라.

4.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파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고, 그곳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겠는지 설명해 보아라.

5.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권고를 주고 있는가?

6. 우리는 왜 세상의 철학을 피해야 하는가?

7. 책임에 관해서 성서는 무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SECTION 13 - QUESTIONS

1. Describe the mixed reactions to the preaching of Paul at Thessalonica and Berea.

2. What lesson can we gain from the attitude of the Bereans to the scriptures?

3. Describe the city and the people of Athens in Paul's day.

4. Outline Paul's speech to the Athenians and its effect on the people.

5. How is the example of Dionysius and Damaris an exhortation to us today?

6. Why should we avoid worldly philosophy?

7. What is the Bible teaching concerning responsibility?

제 14 단원

에베소에 소동이 벌어지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읽을 말씀: 사도행전 19 장

배경지식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열심히 전도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했고, 이곳의 반응은 좋았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 18 개월여를 함께 일하며 지냈다 (사도행전 18 장). 그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게 되었고,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하여 복음에 관해 전했다 (사도행전 18, 19 장). 바울은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배를 타고 안디옥을 향해 떠났다. 약 3 년의 기간이 소요된 바울의 2 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사도행전 15:40)

에베소에 대해 알아보자

생활: 에베소는 에게해 해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왕성히 번영하던 국제 항구도시였다. 기후는 온화하였고, 풍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었다. 인정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호사스런 춤과 음악, 멋진 의상들과 축제 등등, 육신적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던 곳이었다.

상업활동: 이곳 에베소는 로마 아시아의 상업 중심이었다. 에베소 항구는 이탈리아와 그리스로 향한 항해의 중심항구였다. 동양을 오가는 대상(隊商)들의 이동로의 한 끝이었으며, 길은 잘 닦여 있었다. 에베소 도시는 부유한 번영의 도시였으며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성공의 기회를 찾고 있었다.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이곳에 지내고 있었고, 자신들의 공동체로서 회당을 지니고 있었다 (사도행전 18:19, 26, 19:8)

특이한 점: 에베소는 대학의 도시였다. 학문은 발달했고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며, 다이아나(아데미=아르테미스) 신전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으로서 고대 세계의 첫째 불가사의라고 설명되기도 하는 곳이다. 사람들은 여신 다이아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조각상으로 화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 여신상에 새겨진 다양한 문양들은 치유(治癒)의 부적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 문양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현재에도 많은 서적들이 이를 다루고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다시 침례를 받다 (1-7 절).

AD 55 년경, 바울의 3 차 전도여행이 시작된다. 바울은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였다. 바울은 이곳에서 12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바울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고 이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2 절)” 그들은 대답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예감이 맞았다. 이들은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만 듣고 배운 사람들이었다. 바울은 이들에게 침례자 요한이 전한 바, 오리라 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점을 가르쳤다.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마가복음 16:15-16),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4:12).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다시 침례를 시행했다. 침례 후, 이들은 바울을 통해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전하기 시작했다 (6 절). 이 사람들은 에베소 에클레시아가 세워지고 자라는데 있어서 튼튼한 기초가 되었다.

SECTION 14

Riot at Ephesus

“So mightily grew the Word of God and prevailed”

READING: Acts 19

BACKGROUND

Paul courageously presented the Truth at Athens with a somewhat depressing result. He moved on to Corinth, where the gospel of salvation was better received. Paul lived and worked for 18 months with Aquila and Priscilla (Acts 18). On his return to Jerusalem Paul passed through Ephesus, stopping there to enter a synagogue where he reasoned with the Jews, as was his custom (Acts 18, 19). Paul promised to return. He sailed to Antioch from where he had set out on his second missionary journey some three years before (Acts 15:40).

BACKGROUND TO EPHEBUS.

Life: Ephesus, on the shores of the Aegean Sea, was a thriving, cosmopolitan, seaport town. The climate was mild and the region was noted for everything that made for softness and luxurious living. The people were friendly and refined, but loved luxury, music, dancing, elegant clothing, festivals, and whatever else was pleasant to the flesh.

Commerce: It was the commercial centre of Roman Asia. It was the principal harbour for shipping from Italy and Greece. It lay at the end of the caravan route with the East, and well-made roads connected it with the interior. The city was wealthy and prosperous, and a population from many nations flocked there to share its opportunities, among them a Jewish group large enough to have their own synagogue (Acts 18:19, 26; 19:8).

Wonders: Ephesus was a university city. Its people included many of the wise of this world; but its glory was the magnificent temple of Diana, once described as the First Wonder of the Ancient World. The image of the goddess Diana was supposed to have fallen down from heaven, and mysterious symbols inscribed on the idol were used as a charm to heal. The study of these symbols was an elaborate science and many books were compiled about it.

THE REBAPTISM OF JOHN'S DISCIPLES (verses 1-7).

Paul set out about AD. 55 on his third preaching campaign and arrived back at Ephesus. His first encounter was with twelve new disciples. Paul perhaps realised something was wrong for he asked them: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since you became believers?” (v.2). They answered, “We have not even heard that there is a Holy Spirit”. Paul's doubts were confirmed. They had only heard of John's baptism. But they were now ready to accept the full truth so Paul explained that the Messiah John had taught them about had come. Salvation was available now by believing the gospel of salvation and being baptised into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Mark 16:15-16), for there was no other name “whereby they might be saved” (Acts 4:12). So Paul re-baptised them “into the name of the Lord Jesus”. After their baptism, Paul gave them the Holy Spirit and they began to speak in foreign languages and prophesied (v.6). With Paul, they formed a strong foundation on which the new ecclesia in Ephesus could grow.

진리를 전함 (8-20 절).

바울이 회당에서 3 개월 동안 담대히 복음 진리를 전하자, 유대인들이 노여워하기 시작했고 바울은 회당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학원으로 이동하였고,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바울은 두란노 학원에서 2 년 동안 성황리에 진리를 강론하였는데, 아시아 지방에 살던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10 절). 에베소 성읍을 다녀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주변의 다른 성읍에도 바울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었다. 비록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와 같은 곳에 에클레시아가 세워지게 되었다 (골로새서 1:6,7; 2:1; 4:12,13).

바울은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참 하느님의 말씀임을 증거했다. 심지어 바울이 지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치유되었다. 그러던 중 유대인 일곱 명이 나서서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해보고자 시도했지만, 이들은 실패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이곳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점차로 알게 되었다. 페르시아의 종교를 전하던 제사장들과 마술사들도 개종하여 진리를 따르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나서 자신들이 사용하던 마법 서적들을 불태워 버렸다. 이 서적들은 은화 50,000 개의 값어치 (오늘날 50,000 일본의 품삯에 해당한다)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삶의 원리 - 열정

바울의 전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설명했다 (행 20:18). 바울을 3 년 동안 이들을 열심히 가르쳤다. 쉬는 시간을 낼 수도 없었다. 매일 오전 11 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4 시까지, 학생들이 돌아갈 때까지 가르쳤다. 그 후에는 개인 집을 방문하여 가르치기도 했다 (행 20:20). 바울은 자신이 아는 한 하느님의 목적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에 힘썼다. 바울은 하느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바울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하는데 매진했다.

데메드리오와 대치하다 (21-27 절).

에베소 사람들은 다이아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작은 우상 조각품을 바치고 기도하여 여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이 우상이 자신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고 보호해 주리라 믿고 있었다. 이런 우상들은 귀금속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에베소에는 많은 공예사들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사업이 번창하고 있었다. 이런 공예업자들 중에 유력한 자가 있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데메드리오였다. 데메드리오는 자신이 다이아나 여신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곤 했으나, 실상은 자신의 부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느님만이 존재하며 이분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데메드리오는 깜짝 놀랐다.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다이아나 여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쓸모 없는 것이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데메드리오는 공예사들을 불러 모아, 바울이 전도하기 시작한 이후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지 않느냐고 말하며, 바울이 다이아나 여신을 모독하고 있다고 선동했다.

TEACHING THE TRUTH (verses 8-20).

After boldly speaking for three months in the synagogue, Paul was forced to leave because of the anger of the Jews. Taking his disciples with him, Paul moved his daily discussions to the school of Tyrannus. He was so effective that after two years of teaching and special miracles, the whole population of the Province of Asia - Jew and Greek - had heard of the Gospel of God (v.10). Since Ephesus was visited by many from other centres of Asia, every city throughout the area was affected by Paul's teaching. Although Paul had never visited them, ecclesias grew up in places like Colosse, Hierapolis, Laodicea (Col. 1:6,7; 2:1; 4:12,13).

As well as preaching the gospel, Paul used the Holy Spirit to do wonderful miracles to prove that what he said was the truth of God's Word. God in this way did "special miracles" by Paul. Even "handkerchiefs and aprons" from Paul's body removed people's illnesses and seven false Jews who thought they could cure people simply by using the name of Jesus Christ were shown to be wrong, and shamed for their deception.

At last some of the people could see the worship of idols was very wrong. Many false teachers and magicians (priests of the old Persian religions), changed their ways and followed the Truth. They were so convinced that they burned their books on magic - books valued at 50,000 pieces of silver (or 50,000 days wages – millions of dollars in today's money).

PRINCIPLE FOR LIVING – ENTHUSIASM

The secret to Paul's success was his constancy and enthusiasm in the work. He told the Ephesian elders that he had been with them "at all seasons" (Acts 20:18). He had worked hard to teach them the gospel every day, every week, for three years. He had no "time off" to please himself. He taught publicly every day, probably from 11 a.m. to 4 p.m., during the time when the school room was empty. Then he taught them in their own private homes (Acts 20:20). He had kept nothing from them but told them all he knew of God's purpose.

Paul was so motivated by God's love that he wanted to give all his effort to please His God. He valued the Truth so much that Paul wanted to tell all men and women of the greatness and love of the God of Israel.

THE OPPOSITION OF DEMETRIUS (verses 21-27).

The Ephesians were convinced that Diana was pleased by the worship of small idols kept in the temple or in the homes of the devotees. They were believed to bring good luck and so were carried about for extra protection. Most of these small idols were of precious metals, which created a large industry to provide the metals themselves and the craftsmen to fashion them. One of the most influential men in the idol making business was Demetrius. He claimed to be interested in Diana but he was more interested in his own wealth.

Demetrius was roused to speak against Paul's message that there existed only one true God who had power over all men. The people were learning from Paul that Diana and her magnificent temple were useless. Demetrius called together the craftsmen and spoke of the obvious fact that since Paul had begun preaching there had been a steady decline in the sales of their goods. He, very cunningly claimed - for the benefit of those bystanders who were devotees of Diana - that this meant that the goddess Diana herself was being neglected.

소동이 벌어지다 (28-41 절).

얼마지 않아, 다이아나 여신을 내세운 장사치들과 여신의 제사장들이 흥분하여 소리쳤다. “에베소의 여신 다이아나는 위대하다!!!” 이 함성이 성읍에 울려 퍼지자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흥분한 군중들이 50,00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에 모여들었다. 극장 안에는 흥분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이곳에 왜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32 절).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바울은 이들을 구출하고자 자신도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은 이런 광포한 군중들 가운데 들어가 이들을 잠재울 수 없지 않느냐며 바울을 말렸다.

유대인들 중 몇몇이 알렉산더라 하는 사람을 내세워 군중들을 잠잠케 하고자 하였으나, 군중들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임을 알고나서 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들은 흥분하여 “에베소의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여!”라는 구호를 두 시간 동안이나 외치고 있었다. 마침내 그 성읍의 서기관이 나서 군중을 진정시키고 다음 몇 가지 요점을 들어 말했다.

- 다이아나 여신이 하늘의 제우스 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여신으로서 이곳 신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에베소 사람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 바울 일행이 다이아나 여신을 모독했거나 여신의 신전에서 무엇을 훔치려 했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 로마 시민들인 우리들에게 로마의 법에 따라 잘 마련된 법정 이 있으니,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려거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이다.
- 더 이상 소동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 소동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하여 군중들은 해산하였다. 소동이 그치고 나서 바울은 이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단원의 요약,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

-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신실한 신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전파하게 하신다. 우리가 가진 성서 속에 바울이 자신을 바쳐 열심히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들어있다.
- 에베소에서 새롭게 신자가 된 형제들은 우상과 관련된 자신의 서적들을 불태우고, 참 하나님을 경건히 경배했다.
- 에베소의 우상 제작업자들은 여신을 숭배하기 보다는 그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자 했다.
- 바울 일행은 에베소 성읍 서기관의 도움을 입어 곤경을 피할 수 있었다. 바울의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어 바울을 구해낸 것이다.

THE RIOT (verses 28-41).

Shortly, both the true devotees and the greedy merchants began to cry; “great is Diana of the Ephesians”. The noise and commotion soon spread throughout the city, causing much confusion. Great thronging crowds rushed to the enormous theatre which could hold more than 50,000 spectators. So chaotic was the scene that many were caught up in the frenzy, not even knowing why they were there (v.32). Gaius and Aristarchus, being recognised as Paul's companions, were dragged along to the theatre. Learning of their peril, Paul resolved to make his way to the theatre, but was held back by friends and even leaders of the city. They told him that he couldn't hope to calm the crazed mob.

Some Jews at the scene tried to put a speaker forth. They chose a man by the name of Alexander, but the crowd recognised him as a Jew, and not a devotee of Diana, and yelled all the louder. In fact, their frenzy was so great that they shouted, “great is Diana of the Ephesians” for two hours. Eventually, the shouting ceased long enough for the town clerk to attempt to address the crowd. The main points he made were:

- All believers and worshippers of their goddess knew her image had been a gift from the god Zeus, and was well preserved in her temple.
- Paul's work in Ephesus had never included insulting Diana, or trying to obtain wealth belonging to her temple.
- The Romans prided themselves on a system of court justice and a rule of law, and Demetrius and his friends should use the established court procedure if they felt he had a legitimate complaint.
- Any further rioting could bring a charge of insurrection against themselves.

After the crowd disbanded, Paul was free to carry out his plans to work his way back to Jerusalem.

SUMMARY AND LESSONS FOR US

- God gives His faithful followers strength to live and witness to others about His plan of salvation. In the Bible we have the complete message necessary to carry on the work to which Paul so diligently applied himself.
- The new brethren were prepared to publicly burn the symbols of idolatry and to turn in quiet reverence to worship the One True God.
- The idol makers were more interested in their wealth than their goddess, and religion was to them only a means of making money.
- Paul and his friends were rescued from a dangerous situation by the action of the Ephesian town clerk. We can see that this was the hand of God saving Paul for his, as yet, uncompleted work.

제 14 단원 - 학습문제

1.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의 개종자들에게 재 침례를 시행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2. 바울이 두란노 학원에서 전도할 때의 광경을 설명해 보아라.

3. 에베소에서 벌어진 소동을 다음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아라.

- (a) 바울의 가르침이 어떻게 소동과 연결됐는가
- (b) 소동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 (c) 소동은 어떻게 가라앉았는가

4.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5. SECTION 14 - QUESTIONS:

1. Why was it necessary for Paul to re-baptise the twelve Ephesian converts?

2. Describe the effect of Paul's preaching from the schoolroom of Tyrannus.

3. Describe the riot at Ephesus including the following points:

- (a) how the preaching of Paul at Ephesus caused a riot
- (b) what happened during the riot
- (c) how it was stopped

4. What was the secret to Paul's success in preaching the gospel?

제 15 단원

에베소 사람들에게 작별인사를 전하는 바울

“이제 나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읽을 말씀: 사도행전 20 장

공부할 목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클레시아를 떠나지 말 것을 권유한다.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망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배경지식

바울은 각 에클레시아에서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모금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형제들 몇 사람이 바울과 동행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던 중, 자신을 붙잡으려는 음모가 진행중임을 전해 듣고 여정을 바꾸어 마케도니아와 드로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했다.

바울이 드로아 에클레시아에서 권고하다 (6 절에서 8 절)

바울은 드로아의 형제들과 함께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 이 모임이 있던 날은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 이 날이었으므로, 주를 기념하기에 적당한 요일이었다 (고전 16:2 참조). 해가 진 후 모임은 시작되었고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있었으며 모임은 밤늦도록 진행되고 있었다.

드로아의 형제들은 바울을 만나보기 원했었고, 바울이 전하는 권고의 말씀을 듣고 싶었었다. 바울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에 명하셨던 것을 가르쳐 주를 기념하라 하였다 (누가복음 22:7-20). 이 자리를 통해 드로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희생을 기념할 수 있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3-29).”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지다 (9-12 절).

모임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방에 꽂 차 있었으며, 등잔 연기가 자욱했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유두고라 이름하는 청년이 창틀에 앉아있었다. 방은 답답했고 밤 깊어 피곤한 유두고는 졸기 시작했다. 졸던 유두고는 어느 순간 균형을 잃고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 형제들이 달려가 일으켜 보았지만, 3 층 높이에서 떨어진 유두고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바울은 건물 밖에 설치된 계단을 달려 내려가 이 젊은이를 끌어안았다. 바울은 자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여 이 청년을 살려냈다.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바울은 이들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일이 마무리 된 후, 바울은 방으로 돌아가 떡과 잔을 떼는 시간을 가졌다. 바울은 날이 새도록 권면의 말씀을 전한 후, 아침이 되자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다.

SECTION 15

Paul's farewell to the Ephesians

"I commend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is able to build you up, and to give you an inheritance among all them which are sanctified"

READING: Acts 20

OBJECTIVE

Paul warned the Ephesians of those that would leave the ecclesia. We need to be warned to cling on to the wonderful hope that God has given us.

BACKGROUND

Before he returned to Jerusalem Paul went around the ecclesias gathering collections and donations for the poor saints in Jerusalem. A group of brethren were to accompany him. While in Corinth he heard of a vicious plot to capture him; so he changed his route to go through Macedonia and Troas.

PAUL SPEAKS TO THE ECCLESIA IN TROAS (verses 6 to 8)

Paul and the brethren met together in Troas for a memorial meeting. The meeting was held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Sunday). It was appropriate that they should remember their Lord on that day for it was also the day that Christ rose from the dead (cp.1 Cor.16:2). Their meeting began after sundown and since Paul intended to leave the next day; we are told that they continued long into the night.

In Troas, there were many disciples who were delighted to have Paul with them and to hear from him the word of exhortation. Paul had already established the ecclesias on the basis of the commandment of Christ to follow the pattern of the Last Supper - the night Jesus was betrayed and crucified (cp.Luke 22:7-20). This gave them an opportunity to remember Christ and his great love and sacrifice: "For as often as yet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e do show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 (see 1 Cor. 1:23-29).

EUTYCHUS FALLS OUT OF THE WINDOW (verses 9-12).

In the midst of this wonderful time, tragedy struck. The combination of the closely packed crowd, the smoke from the lamps, and the late night would have affected many. Eutychus, a young man, was sitting in a window. The stifling atmosphere and his weariness caused him to gradually fall asleep. The young man relaxed, overbalanced, and tumbled out of the window, falling onto the ground far below. The brethren raced to him and found him to be dead, killed in the fall of three stories.

Paul stopped speaking and hurried downstairs (the stairs were on the outside of the building), and fell on the young man and embraced him. Paul knew that he had been given the miraculous power of God's Holy Spirit, and he now appealed for God's help, and the lad's life was restored. Many were crying out in tearful grief: but Paul interrupted to calm them down and restore quietness and order. "Trouble not yourselves", he said, "for his life is in him". Since there was no apparent after-effects, Paul and the others returned to the room where they had a memorial service. Paul continued to speak with them for the remainder of the night, and when morning came, he continued his journey toward Jerusalem.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모으다 (13-17 절).

일행은 먼저 배를 타고 떠났고, 바울은 35 킬로미터의 길을 걸어가 앗소라는 항구에서 일행과 합류하기 위해 배에 올랐다. 바울이 탄 배는 해안을 따라 항해하여 미둘레네와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하는 배였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고 싶다고 미리 전갈을 보내 두었다. 여행 시간을 절약하여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맞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바울의 강연 (18-38 절)

자신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음을 언급한다 (19 절에서 21 절)

바울은 아시아에서 어떻게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설명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한 첫날부터 쉬지 않고 3년 동안 일했다. 위험 속에서도 기꺼이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에베소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 때로는 바울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바울이 에클레시아를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은 에베소의 양무리를 이끄는 참된 목자였었다.

바울이 장차 겪을 고난에 대하여 (22 절에서 27 절)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예루살렘에 환난과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여정을 완수하고자 하였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임무를 받은 바 있으며,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려고 온 정성을 다하고 있었다.

닥쳐올 위험들 (28 절에서 30 절)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에클레시아를 잘 돌보라 당부했다. 악한 무리들이 에클레시아에 마수를 뻗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악한 무리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다. 장로들은 자신들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고 있음을 느끼고 에클레시아를 잘 돌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바울은 악한 자들이 나타나 확신에 찬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 중 몇몇을 데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받기보다 주는 일에 본을 보인다 (31 절에서 35 절)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고 오직 진리를 전하는데 열심을 다했음을 들어 보이며, 에베소 사람들을 권면한다. 바울은 신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세상의 어떤 위험과 고난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일임을 상기시켰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 격려한다. “이제 나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32 절)” 모인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하느님의 축복을 비는 기도를 드렸다. 사람들은 바울과의 작별을 아쉬워하면서 부두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우리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바울의 마지막 권고 속에서, 바울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 에베소 장로들이 고무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하느님의 진리의 증인으로서 고무됨을 느낀다.

PAUL GATHERS THE EPHESIAN ELDERS (verses 13-17).

After a walk of 35 kilometres, Paul boarded a ship in Assos which sailed along the coast, touching at Mitylene and Samos before reaching Miletus. From this point, Paul sent a message to the elders of the Ephesian ecclesia to come to him. He had deliberately sailed past Ephesus in order to save time in his now anxious journey, to spend Pentecost in Jerusalem, but since he had a special message for the Ephesian ecclesia, he asked the leaders to come to talk with him.

PAUL'S ADDRESS TO THE EPHESIAN ELDERS (Verses 18-38)***Paul's example to the Ephesians (verses 19 to 21)***

Paul commenced his address by reminding them of his service in Christ while in Asia. Paul had laboured tirelessly from the time he got to Ephesus – every day, every week, every month for three years. They had all witnessed Paul's willingness to speak out even when in danger. He had left no doubts that even when he rebuked some that he always had the best interests of the ecclesia at heart. He was a true shepherd of the flock.

Paul's future suffering (Verses 22 to 27)

Paul explained that the Holy Spirit was compelling him to push on toward Jerusalem, knowing that the Jews were becoming increasingly resentful and increasingly threatening in their actions toward him. He would not be sidetracked from his mission because he realised that there would be many hardships and even prison in store for him. Jesus Christ, himself, had given Paul his commission to preach the word to the Gentiles. So he had little care for his own safety - being concerned only with carrying out the task assigned to him as best he could.

Dangers ahead (verses 28 to 30)

Paul urged the Ephesian elders to guide their ecclesia well, since the forces of evil were already working in some areas of their ecclesial life. The dangers posed by wicked and power hungry individuals from within their own ranks was very great, and was one which they must continue to guard against. The elders had accepted a very grave responsibility when chosen by Paul, and were now to use their training to be worthy leaders of their ecclesia. He especially warned them that some of the wicked ones would be so convincing that there would be danger that some might be drawn away.

Paul and Christ's example of giving (verses 31 to 35)

By way of encouragement, Paul reminded them how he had spared nothing - not even himself - in order to preach the Truth to them. He reminded them that the prize for the faithful far outweighs any discomforts or dangers which we might experience in this life. He ended his charge to them with the encouragement... "and now, brethren, I commend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is able to build you up, and to give you an inheritance among all them which are sanctified" (v.32). They knelt in prayer to seek God's blessing on them all. With grieving hearts and tearful eyes, they gave Paul an affectionate and sorrowful farewell, escorting the travellers down to the ship at the wharf. We can profit from Paul's final exhortation, for his example of dedication and self-sacrifice encouraged the Ephesian elders, and it can likewise encourage us to witness to God's Truth.

작별인사 (36 절에서 38 절)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바울을 염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함께 기도했고, 바울을 껴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나누며 울었다.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깊은 슬픔을 느꼈다. 사람들은 바울이 맞이할 시련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을 바꾸는 것이 어떨것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바울과 작별의 인사를 나눈 뒤, 예루살렘을 향하는 배를 바라보며 슬픔에 잠겼다.

우리 삶의 원리 - 믿음을 유지하라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진리를 꼭 붙잡고 싶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서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아야 하며, 무엇이 선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말씀의 지식을 통해, 악에서 떠난 의의 길이 무엇인지 밝히 볼 수 있으며, 하느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에베소 에클레시아는 힘든 싸움을 싸웠지만, 결국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바울을 버렸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바울이 보인 본보기는 그곳 사람들에게 남아있었음이 분명하고, 그리스도께서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 또 너희들이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 낸 일도 잘 알고 있다 (계 2:2)”라 하신 바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를 위해 우리는 “주님께서는 옳은 것을 사랑하시고 악한 것을 미워하시므로 (히 1:9)”라는 구절과 같이 그분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단원의 요약,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

- 유두고의 죽음이라는 불행한 사건은 오히려 하느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 에베소 에클레시아에 “사나운 이리” 같은 침입자들이 들어올 것이 경고되었다. 우리 주변에도 하느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 나라를 향한 길에서 우리를 되돌리고자 하는 우리들이 당시처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성서를 읽는데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자부심과 이기심을 버리는 데 있다. 우리는 세속을 쫓는 나의 자부심이 곧 악한 일임을 인식하고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데 있어 열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고전 15:58).

기억해야 할 성서구절: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악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35).

Farewell (verses 36 to 38)

The spirit in which they received his message showed the love the brethren had for Paul. Firstly they said a prayer together. They cried and fell on Paul's neck and kissed him. They were deeply alarmed and saddened to hear Paul say that they would not see him again before the Kingdom age. They knew of the trials and the bitter end Paul faced, and we can understand their pleas for him to change his plans and to avoid the Jews in Jerusalem. Sadly they said farewell and Paul sailed towards Jerusalem.

PRINCIPLE FOR LIVING – REMAIN FAITHFUL TO GOD

If we want to hold onto the Truth which God has given us we need to turn to the record He left for us - the Scriptures.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good and evil, we must know what the good is. To develop our characters the way God wants us to, we must study His word. With the knowledge we gain we can clearly choose the right way from the wrong - and by so doing follow the way of Jesus Christ who went before us as an example of how God wants us to live and think.

The Ephesian Ecclesia struggled and eventually came to the condition that Paul feared when later he said, "all they that are in Asia turned away from me". But the example Paul left must have been remembered by some there, for Christ was later able to say "... I know thy works and thy labour and thy patience, and how thou canst not bear them which are evil: and thou hast tried them which say they are apostles, and are not, and hast found them liars." (Rev.2:2).

May it be that Christ will be able to say the same of us; that we labour in patience and hate all that is evil. In so doing we will have followed his own example, for of him it is written that he "loved righteousness and hated iniquity" (Heb. 1:9).

SUMMARY AND LESSONS FOR US:

- The unfortunate death of Eutychus gave Paul another opportunity to show the power of God.
- Paul warned the Ephesians of "wolf-like" intruders. We are still surrounded by deceitful enemies of God's Truth who are just as eager to turn us away from the path to the kingdom as they were in the first century.
- The answer to this problem lies in reading the scriptures and being ready to give, rather than be selfish. We too need to recognise worldliness and self-importance as being evil and to remain constantly active in the work of the truth (1 Cor.15:58).

VERSE TO REMEMBER: "I have showed you all things, how that so labouring ye ought to support the weak, and to remember the words of the Lord Jesus, how he sai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Acts 20:35).

제 15 단원 - 학습문제

1. 드로아 에클레시아에서 매주 첫날, 일요일에 모임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2. 유두고 청년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해 보아라.

3.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바울의 말을 읽어보아라.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이 예고되고 있는가?

4. 에베소 에클레시아의 장로들에게 바울이 부여한 책임은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보아라.

5. 하느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SECTION 15 - QUESTIONS:

1. Why did the ecclesia meet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at Troas?

2. Describe the incident concerning Eutychus.

3. What dangers faced the Ephesian ecclesia as described by Paul in Acts 20?

4. Explain the responsibility Paul declared had been given to the elders of the Ephesian ecclesia.

5. How must we remain faithful to God?

제 16 단원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읽을 말씀: 사도행전 24,25,26 장

공부할 목표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자.

배경지식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증오와 대면한다. 천부장 루시아의 중재로 일단 죽음을 면한 바울은 총독 벨릭스의 재판을 받기 위해 가이사랴에 보내진다. 바울은 예수와 마찬가지로 유대와 로마 사이의 정치 싸움에 인질로 잡힌 처지가 되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의 심문을 받고 갇혀있다가, 후임 총독인 베스도의 심문을 다시 받았고, 다시 아그립바 왕에게 보내졌으며 마지막으로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동한다.

벨릭스 앞에 선 바울 (사도행전 24:1-9).

바울은 헤롯 왕이 지은 왕궁에 갇혀 5 일을 보냈다. 당시 산헤드린을 대표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법률가들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건너왔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바울을 처단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이들은 더둘로라 이름하는 달변가를 데려왔다. 더둘로는 “존경하는 벨릭스 각하...”라는 아부성 발언을 첫머리로 하며 고소를 시작했다. 그러나 역사가들에 따르면 벨릭스는 극악무도한 욕망과 잔혹함을 지녔던 총독이었다 하므로 더둘로의 말은 전혀 얼토당토않은 말이었다. 바울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경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

더둘로는 온갖 나쁜 말을 만들어 바울을 고소했다. 더둘로는 바울이 로마의 정치와 종교를 공격한다고 누명을 씌우며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고소했다.

-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로마인들에 도전하려 한다.
-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다.
-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려 한다.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은 더둘로의 고소를 들으며 끄덕이고 있었다.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 (사도행전 24:10-23).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여러 해 동안 유대인들의 송사를 담당해 왔음을 언급하며 자신의 변호를 시작한다. 바울은 지난 몇 년간은 예루살렘을 떠나있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12 일째 머무르던 중이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거나, 예루살렘의 어느 회당에서도 강론하여 소란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의 주장은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SECTION 16

Paul's Defence Before Rulers

"He is a chosen vessel unto me, to bear my name before Gentiles, and Kings"

READING: Acts 24,25,26

OBJECTIVE

To show how Paul used every circumstance to preach the gospel of Jesus Christ.

BACKGROUND

Paul had returned to Jerusalem only to experience the hatred of the Jews who would have killed him. He was saved by the intervention of Lysias who sent him to Caesarea by night so that Felix could judge him. Like Jesus, Paul found himself a pawn in the game of politics the Jews played with Rome. He was passed to Felix, to Festus, and then to Agrippa, until finally his appeal to Caesar took him to Rome.

BEFORE FELIX (Acts 24:1-9).

Paul waited for five days under guard in Herod's palace where the governors lived. At that time Ananias the High Priest and the elders representing the Sanhedrin came down from Jerusalem to press their charge against Paul. They wanted to be sure that he was condemned this time. They brought with them a hired orator named Tertullus to present their case. He started by flattering Felix in a most insincere way. "Most noble Felix" he called him - but the opposite was the case. Felix was an immoral man, described by Roman historians as a monster of lust and cruelty. He was a very different man to the humble Paul, who was in the true sense a noble man.

Tertullus had nothing but hatred and abuse for the man in bonds. Directing his attack to side with the Roman's opposition to political or religious agitators, he accused Paul of:

- Agitating Jews throughout the world to rise against the Romans;
- Being a ringleader of the hated "sect of the Nazarenes";
- Attempting to profane (or treat with contempt) the Temple in Jerusalem.

The Jews wholeheartedly agreed that these charges were correct.

PAUL'S DEFENCE BEFORE FELIX (Acts 24:10-23).

Paul began by mentioning that Felix had been a governor among the Jews for many years, and would therefore be in a better position to understand Paul's defence. Paul had only been in Jerusalem for twelve days. He had gone there after many years to worship. The Jews had not found him arguing in the temple, nor causing the people to riot, either in the synagogues or in the city. The charges against him could not be proved.

바울은 저들이 “이단이라 부르는 방법”으로 자신이 하느님께 경배 드린 것이 문제일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바울의 믿음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으로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이단이 아니었다. 바울은 말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의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행 24:16).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성전에서 정결예식을 드리고 있을 때 저들이 나를 고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헤드린은 나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서 재판 받는 이유는, 다만 내가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해 말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였다. 바울의 믿음이 아무런 죄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벨릭스는 아내인 유대사람 드루실라로부터 유대주의에 관해 듣고 이미 잘 알고 있었을 터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종파에 대해서도 들었을 터이다. 바울이 무죄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나,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기 싫었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는 경우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을 터이기 때문이었다.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고, 천부장 루시아가 오기까지 재판을 연기한다고 선언하였다. 다만 백부장의 감시하에 친구들을 만나며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악한 자들의 계획은 일단 좌절되었다. 유대인들은 분노에 싸인 채 집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듣다 (사도행전 24:24-27).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바울이 믿는 진리가 궁금하여, 그 후에도 몇 차례 시간을 내어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이 의와 자기제어, 그리고 다가울 심판에 이르자 벨릭스는 자신의 악한 행동을 떠올리고 두려운 나머지 바울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벨릭스는 몇 차례 바울을 불러 대면했으나 이제는 진리를 배우려 함이 아니라, 혹시나 바울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 어떤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부른 것이었다.

벨릭스가 바울을 가두어두다 (사도행전 24:27).

벨릭스는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통치했고, 2 년 후 로마로 돌아갔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두고 떠났다. 바울은 2 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 바울과 같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한 장소에 갇혀 지낸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지내면서 가이사랴 에클레시아에 보내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장래에 있을 사역에 대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준비를 하면서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다.

신임 총독 보르기오 베스도 (사도행전 25:1-12).

베스도가 새 총독으로 부임하였다. 베스도는 부임한 즉시 유대의 장로들과 면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건너갔다. 유대인들은 지난 2 년 동안 바울을 잊지 않고 있었으며,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을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여 주기를 베스도에게 부탁했다. 이송중의 틈을 타 바울을 죽이려는 의도였으나, 베스도는 이들의 계획을 눈치챈 듯 했다. 예루살렘에 8 일이나 10 일쯤 (6 절 참조) 머무르던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돌아갔고, 이튿날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 또다시 무거운 죄목을 대어 고발했으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바울은 이들의 고발에 대해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대답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를 거스르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25:8).

However, Paul confessed that he did worship in the "way" which they called "heresy". But it was not heresy for he believed all the things written in the Law and the Prophets, including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In fact, he said, because of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I always take pains to have a clear conscience toward God and toward men" (24:16 RSV). The Jews from Asia, who had found him in the Temple, after completing his purification ceremony, should have come to Felix if they had any charges against Paul. The Sanhedrin themselves had found no wrong in Paul except for the remark on the resurrection which divided them. "Touching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I am called in question by you this day", said Paul. That fundamental belief was no crime at all.

Felix knew something of Judaism through his Jewish wife Drusilla, and something of the new Christian sect. It must have been obvious that Paul was innocent, but Felix did not want to offend the Jews. They were capable of having Rome remove him from his position. He adjourned the case until the chief captain Lysias should come. Meanwhile Paul was kept by a centurion and allowed to see his friends. Again the Truth triumphed over its evil opponents. We can imagine the frustrated Jews going home, full of hatred and bitterness for the man who once again had escaped their hands.

FELIX AND DRUSILLA HEAR PAUL AGAIN (Acts 24:24-27).

Paul's words had interested Felix and Drusilla and they sent for him privately several times to hear about "the faith in Christ". But Paul's words about righteousness, the need for temperance or self control, and the coming judgment, made the evil Felix tremble, and he sent Paul away. However, he often called him back, not to learn more of the Faith but in the vain hope that either Paul or his friends might pay money for his release.

FELIX LEAVES PAUL BOUND (Acts 24:27).

Two years later Felix was recalled to Rome, apparently to answer charges of injustice and cruelty against the Jews in Caesarea. He still did what he could to please the Jews, and left Paul in prison. How typical of human nature - he forgot how Paul had impressed him. Imagine what those two long years in chains must have been like for Paul. He had been an active man, visiting ecclesias in many places, and now he was tied to one place. However, he would have used that time profitably. He would have helped the ecclesia in Caesarea by his presence, written many letters and prepared himself for the new work to come. In all his trials he saw the guiding hand of God and patiently awaited the time when he must go to Rome.

PORCIUS FESTUS (Acts 25:1-12).

Festus became the new governor in Cilicia. Immediately he went down to Jerusalem to meet the elders of the people he was to govern. Even after two years the Jews had not forgotten Paul. The passing of time had not reduced their intense hatred for Paul or the faith which he championed. They asked Festus to bring him down to Jerusalem, intending to kill him on the way, but Festus must have seen through their evil plan. Eight to ten days later (v.6 mg.), Festus went back to Caesarea, and the next day sat on the judgment seat to re-open the case against Paul. The Jews had "many and grievous complaints" about Paul which they could not prove. This contrasted with Paul's simple and direct denial of their charges (25:8).

베스도는 내심 바울의 무죄를 알고 있었으나, 전임자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데 관심을 두었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물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떨지 알고 있던 바울은,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들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바울은 가이사라와 예루살렘 사이를 오가며 여러 해 동안 갇혀 지내기 보다는 로마에 들어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 하느님의 섭리가 내재되어 있었음은 물론이었다.

아그립바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하다 (사도행전 25:13-22).

며칠 후, 아그립바 2 세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총독을 만나기 위해 가이사라를 방문했다. 아그립바 왕은 북부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성전의 일부와 연결된 유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립바 1 세는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었으며 (12 장), 할아버지 헤롯은 예수가 탄생할 무렵 모든 갓난아기를 죽이라는 명을 내렸던 사람이고, 그의 삼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 있는 사람이었다. 아그립바 2 세의 가족사는 무시무시했다. 그러나 아그립바 2 세 는 유대인 태생으로 중요한 인물 중의 하나였으며 “유대인과 바울간의 송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 황제에게 바울을 이송하며 보고할 마땅한 자료와 명분이 없던 터에 아그립바 왕을 만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베스도는 아그립바의 도움으로 유대의 율법에 따라 바울의 죄목을 밝혀내어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아그립바 왕 앞에 선 바울 (사도행전 25:23-26:29).

아그립바와 버니게는 베스도를 비롯한 많은 유력 인사들 앞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화려한 치장으로 자신을 한껏 뽐내며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다. 복음을 세계에 전하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으며 초라하게 사슬에 매여있는 죄수 바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바울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 있었다. 바울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었다.

바울이 개종할 당시,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여러 왕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선택된 그리스도의 도구라 말씀하셨다 (9:15). 이제 그 도구가 사용될 때가 다가온 것이다. 아그립바로부터 해명의 기회를 얻은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담대히 선포하였다. 바울은 사슬에 묶인 손을 흔들어가며 유대의 풍습에 정통한 아그립바 왕이 자신의 말을 경청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바울은 자신이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 집안 출신임을 이야기 하고, 자신이 여기 서있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6 절)”라 말했다. 이 소망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이었다. 이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이다. 하느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다 (누가복음 20:28-38). 성서의 분명한 증거를 앞에 두고 유대인들은 헛된 송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좇아 개종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멸절시키기 위해 길을 나섰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바울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는 과연 이스라엘의 메시아였던 것이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기꺼이 종이 되어, 이방인들도 죄 사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소망인 영원한 유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가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유래한 것이며,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곧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 설명했다.

Festus realised that Paul was innocent, but like Felix before him, he wanted to please the Jews. He asked Paul if he would go down to be tried at Jerusalem. Paul knew what he could expect from the hands of the Jews. Asserting his innocence and making use of his Roman citizenship, he appealed to Caesar for the right to be heard by Rome's Supreme Tribunal. This was now the means by which he could go to Rome, rather than being kept penned up at Caesarea or Jerusalem for years. Again Divine providence rules!

KING AGRIPPA AND BERNICE VISIT FESTUS (Acts 25:13-22).

A few days later King Agrippa II and his sister Bernice came down to visit the new governor. The King not only ruled a small part of northern Palestine but he was also an important figure in the Jewish state, having connections with some of the temple offices. His father Herod Agrippa I was the one who had killed James (Acts 12), his grandfather had killed all baby boys at the birth of Jesus, his uncle was involved with the death of Christ. What a terrible family history! Nevertheless, he was an important Jew, and was interested to hear this "Jewish controversy with Paul". This pleased Festus who had nothing definite to write of Paul to the Caesar. He quickly realised that Agrippa with his greater knowledge of Jewish law might be able to formulate a charge and so rid him of this knotty problem.

BEFORE THE KING (Acts 25:23-26:29).

Agrippa and Bernice came to hear Paul with Festus, as well as all the chief men of the city. They came "with great pomp" - no doubt with many royal and beautiful robes, parading themselves, puffed up in fleshly self-importance. There was an enormous contrast with the prisoner in chains who had suffered great humiliation and hardship to take the gospel to all nations. Paul was an "ambassador in bonds" for Christ the true king. He has set us an example not to worry about the great men of this life or their vain opinions, for they are worthless in God's eyes.

Christ told Ananias that Paul was a chosen vessel to bear his name before kings (9:15). Here was such an opportunity. On permission from Agrippa, Paul began to fearlessly proclaim the faith he had accepted. Stretching out a hand from which his chain hung, he appealed to Agrippa to listen patiently, realising that the King was conversant with all the Jewish customs and problems. Paul outlined his early life; he had lived as a very strict Pharisee, but now, he said "I stand and am judged for the hope of the promise made of God unto our fathers" (v.6). For this reason he was accused. This hope was based o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because God had made the promises to the fathers of Israel, and as He is the God of the living, the fathers and the faithful must rise (Luke 20:28-38). Why should the Jews dispute the evidence of their scriptures?

Paul went on to show the reason for his conversion to Christ. He told of his violent opposition to the followers of Jesus and how he had set about to exterminate the Christians. The event that changed the whole course of his life was the blinding revelation of the risen Christ shown to him on the road to Damascus. Jesus was indeed the Messiah of Israel! Paul became a willing servant to the call of the risen Christ, that Gentiles should share in the forgiveness of sins and the eternal inheritance promised through the Hope of Israel. It was for this reason that the Jews wanted to kill him. But, Paul explained, his preaching only followed Moses and the prophets, who of course had foretold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여기까지 들던 베스도는 바울과 같은 지식인이 어찌 그런 사상에 빠져들었는지 의아해 하며 말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식 때문에 네가 미쳐버렸다.” 바울이 답했다. “아그립바 왕이시여, 선지자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그립바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며 이 예언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를 수긍하지 않으며 대신 말했다. “너는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구나.” 바울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결박된 것 만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 보지 않아도 떠오를 듯 한 장면이다. 이상한 열정에 사로잡힌 채, 죄수로 서있는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고픈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나 바울을 제외하고 그곳의 그 누구도 자신이 하느님의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오면, 우리들 인간의 자량과 자부심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바울이 로마로 향하다 (사도행전 26:30-32).

그날 모임이 끝났다. 아그립바 왕과 기타 유력자들은 논의한 끝에,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바로 지금 바울을 풀어주어도 좋을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바울을 풀어줄 경우, 성난 유대인들이 바울의 목숨을 해할 것은 뻔한 일이었다. 바울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19:21).

단원의 요약,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

- 바울은 정치가나 왕들 앞에서 담대히 진리를 증거했다. 또한 그들이 하느님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 바울은 하늘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지니고 있었고, 아버지를 믿는 강한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닥쳐올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아마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통을 결코 감내할 수 없을 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보여준 본보기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후 4:16-18).

At this point Festus, amazed that an intelligent man should talk of such unusual things, could not help saying "Paul, thou art beside thyself; much learning doth make thee mad". Paul appealed to the king: "King Agrippa, believest thou the prophets? I know that thou believest". Agrippa was not prepared to commit himself to the responsibility which would come with the admission that Jesus Christ fulfilled the Old Testament prophets. He answered "almost thou persuadest me to be a Christian". Paul wished that everyone gathered there was the same as himself (in understanding the gospel), but without his chains.

We can imagine the scornful looks of some of the important men. Why should they want to be like this despised prisoner who was full of zeal for such an unusual cause. Little did they realise that out of them all, only Paul will be saved in the day of judgment. What then of the ambition and pride of men?

TO ROME (Acts 26:30-32).

The meeting was over. The king and the governor discussed Paul's position, and agreed that he could have been set free if he had not appealed to Caesar. But once freed, the Jews would seek to kill him. Paul knew this, and also that he must go to Rome to further the work of the gospel, as Christ has told him (19:21).

SUMMARY AND LESSONS FOR US

- Paul witnessed to the truth fearlessly before great men - governors and kings, Jew and Gentile. He was not even afraid to show them their responsibility to God.
- The apostle had such a love for His Father and confidence in Him that he was able to look beyond the sufferings of the present, the chains, the cold dark prison, the ridicule of men, to the day of glory. We will probably never have to suffer as Paul did, but we have his example to put into practice in our lives, in all the circumstances which come upon us (2 Cor.4:16-18).

제 16 단원 - 학습문제

1.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한 혐의점 세가지는 어떤 것들이었는가?

2.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무어라 답했는가?

3.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4. 그리스도께서는 개종한 바울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셨는가? 이 임무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사도행전 24-26장의 기록을 들어 설명해 보아라.

5. 바울은 자신이 고소당한 이유가 바울 자신이 갖고 있던 소망 때문이라고 아그립바 왕 앞에서 말했다. 바울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는가?

6.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 후, 아그립바의 반응은 베스도의 반응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랐는가?

SECTION 16 - QUESTIONS:

1. What were the three main charges against Paul which Tertullus made to Felix?

2. How did Paul answer the charges made against him when brought before Felix the governor?

3. Why did Paul appeal to the court of Caesar after his defence before Festus?

4. What was Christ's commission to the converted Paul? Show how it was fulfilled in the events recorded in Acts 24-26.

5. What was the hope that Paul was judged for when brought before King Agrippa?

6. Following Paul's speech before King Agrippa, contrast how Festus reacted with how Agrippa reacted?

제 17 단원

난파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읽을 말씀: 사도행전 27 장

공부할 목표

야훼의 섭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여정에서도 그러했다.

배경지식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 앞에서 유대주의자들에 맞서 자신을 변호했다. 바울은 로마 당국이 자신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이미 가이사에게 상소한 터라 어쨌든 바울은 로마에 가야 했다.

팔레스타인 해안을 떠나 로마로 향하다 (1-11 절).

바울은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의 감시 하에 친구인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함께 로마 제국의 수도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이 배에는 바울 말고 다른 죄수들도 있었다. 배가 가이사랴 항구를 떠날 무렵 바울은 약속의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 보며, 반역의 무리들에게 임할 하느님의 심판을 떠올리고 있었다.

다음날, 배는 시돈항에 기항했다. 백부장 율리오는 특히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항구에 들어가 다른 제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시돈항을 출발한 배는 얼마 가지 않아 힘든 상황에 처했다. 맞바람이 심하게 불어와 배는 ‘무라’를 향해 직접 운항할 수 없었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해변을 따라 천천히 항해하여 무라에 도착할 수 밖에 없었다. 일행은 무라에서 큰 배로 갈아탔다. 이 배는 곡식을 싣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를 향하는 배였으며, 바울을 포함하여 모두 276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37 절).

맞바람이 계속 불어왔으므로 배는 천천히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바람을 맞으며 항해하던 배는 크레타 섬의 동쪽 끝을 돌아 ‘아름다운 항구’라 부르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때는 9 월 무렵으로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당시의 항해술로는 더 이상 항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시기는 보통 대양 항해를 피하는 시기였으므로, 항해를 계속할지 아니면 이곳에 머물러 겨울을 날지 결정해야 했다. 선장은 70 킬로미터 떨어진 보닉스까지 항해한 후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고자 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까지 가는 동안 재앙이 닥칠 것이라 예고했다. 백부장은 죄수 바울의 의견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고, 그들은 항해를 계속하기로 했다.

SECTION 17

Shipwreck

“Lo, God hath given thee all them that sail with thee. Wherefore, sirs, be of good cheer: for I believe God”

READING: Acts 27

OBJECTIVE

To show that Yahweh's providential care is with us, just as it was with Paul to bring him to Rome.

BACKGROUND

Paul had stood before Festus and Agrippa and presented his defence against the Jewish leaders. He spoke with conviction that the Roman authorities would have released him, but for the fact that Paul had already appealed to Caesar - and so he must go to Rome.

PAUL LEAVES THE SHORES OF PALESTINE (verses 1-11).

Paul accompanied by other prisoners, under the guard of a Roman Centurion (Julius), and with his friends Luke and Aristarchus, set sail for the capital of the Roman Empire. As the ship sailed out of the harbour of Caesarea, Paul took a last look at the land of promise – which would soon feel the judgments of God upon a rebellious people.

The following day, the ship called at Sidon. In the short time Paul had been in the charge of the centurion, he had impressed him so favourably, that he permitted him to go ashore and visit other disciples, a privilege not given to other prisoners. When the journey was resumed, troubles were soon encountered. The winds were not favourable to sail directly to Myra, and so the ship had to sail slowly by the coasts of Cilicia and Pamphylia, until it arrived at Myra. There they changed ships to a larger vessel which was carrying wheat from Alexandria to Rome, and 276 people (v.37)

The winds remained unfavourable and the progress continued to be slow. Winds from the wrong direction blew until they managed to round the eastern end of the Island of Crete and eventually lodged at a place known as Fair Havens. It was September and winter was coming on fast, a time of the year when sailing was dangerous for the ships of those days. All navigation on the open sea was usually discontinued by that time. A decision had to be made, as to whether to continue or not. The captain wanted to sail 70 kilometres to the better port of Phenice. Paul prophesied disaster if they sailed! The centurion was convinced by the Master of the ship more than by a prisoner. They decided to sail on.

바다 한 가운데서 위난을 당하다 (12-20 절).

때마침 남풍이 순풍으로 불어오자 그들은 뵈닉스를 향해 출발했다. 뵈닉스는 크레테 섬의 서쪽 끝에 위치한 항구였다. 그들이 막 육지를 떠나자마자 유라굴로(북동풍이란 뜻)라 부르는 폭풍이 불어와 일행의 배를 남서방향으로 떠밀고 가기 시작했다. 강한 바람이 배를 휘감고 거세 파도가 밀려오자 선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배를 지키고자 했다. 선원들은 구명정을 띄울 준비를 했다. 선원들은 구명정이 부서지지 않도록 밧줄로 동여매 놓았다. 선원들은 장비와 화물의 일부마저 던져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여 파도를 대비하고자 했다.

다음날 폭풍 속에서 태양도 볼 수 없었고,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들은 어느 방향으로 떠밀리고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선원들은 북 아프리카 방향으로 밀려가다가는 위험한 모래톱에 걸리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굳건한 믿음을 드러내 보이다 (21-26 절)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게 되었다. 여러 날 동안 선원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채 침체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제어가 불가능해진 배는 정처 없이 자신의 몸을 파도에 내 맡기고 있었다.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 갔다. 굶주림에 지친 선원들에게서 기력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일어나, 조용하지만 신념에 찬 목소리로 선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1 절에서 26 절 까지를 읽어보고 바울의 믿음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아라. 바울은 예언하여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것이니 “용기를 내라”고 말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바울 스스로 말하고 있었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바울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증거할 사명을 받고 있었고, 그 무엇도 이 사명을 방해할 수 없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한 바 있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배가 좌초되다 (27-44 절)

바울의 말에는 확신과 용기가 들어있었고, 그의 말과 행동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항구’를 떠난 지 14 일째 되던 날 밤, 그들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었지만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변하는 것으로 보아 배가 육지에 접근하는 것 같았다. 선원들이 즉시 줄을 내려 수심을 재어 보니 20 길의 수심이었고, 얼마 후 다시 재어 보니 이제는 15 길의 수심이였다. 배가 빠른 속도로 육지를 향하고 있었으므로, 선원들은 4 개의 닻을 내려놓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선원들은 배를 버려두고 매어둔 구명정을 이용하여 탈출하고자 했다. 바울은 선원들이 탈출할 경우 남아있는 사람들만으로는 구조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이를 설명했다. (31 절). 병사들은 밧줄을 끊어 구명정을 바다에 버려 흘려가게 했다. 하느님의 방주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 얻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였다.

IN PERIL ON THE SEA (verses 12-20).

When a gentle south wind blew, they headed toward Phenice, a port on the western tip of Crete. They had just cleared the land, when a powerful wind, known as "Euroclydon" (meaning "the North-Easter") blew the ship way off course to the south-west. As the wind whipped up the waves and drove the ship, the mariners did all they could to prevent the ship from sinking. The crew lifted the lifeboat on board. They under-girded the ship by passing thick ropes around the front of the ship and working them along under the ship and around it to stop the timbers from coming apart. They threw over-board tackling from the ship and some of its cargo to allow the ship to ride higher in the water.

Day after day passed, and neither sun, moon nor stars could be seen through the stormy clouds, so they had no means of knowing where they were or in what direction they were really going. They knew that the wind was generally carrying them in the direction of the coast of North Africa and its treacherous quicksands.

GREAT FAITH DISPLAYED (verses 21-26)

In this crisis, Paul showed the sort of man he was. For many days now the sailors had laboured without proper meals, and depression had begun to settle upon all on board, holding their lives in fear. Picture the scene. Here was a ship out of control, tossed helplessly on the waves. Every hope of bringing it safely to port had been given up. The mariners were hungry and tired, worn out with their exertions.

It was in these fearful circumstances that Paul stood forth and spoke in a calm and confident manner. Read verses 21 to 26 and consider the magnitude of faith displayed by Paul. He is seen at a moment of great fear, standing forth, giving a prophecy of safety for all the ship, and exhorting the crew to "be of good cheer". How could Paul stand forth and be so bold in his predictions? The reason was "I believe God". He trusted completely in God to carry out His Word. Paul knew he must be a witness in Rome and nothing would prevent this, for an angel had said unto him, "Fear not Paul; thou must be brought before Caesar".

THE SHIP DRIVEN AGROUND (verses 27-44)

Paul in his speech showed confidence and cheerfulness, which proved to be infectious, and his words and example increased the courage of all on board. It was about midnight, on the fourteenth day since leaving Fair Havens and the ship was still drifting, when the sound of breaking waves was heard, a sign that they were nearing land. Soundings were immediately taken and they found they were in twenty fathoms of water; a little later, it was fifteen fathoms. They were rapidly approaching land, so they at once cast out four anchors and "wished for the day".

Lying anchored near to land, the sailors attempted to leave the ship and secure their own safety, by using the boat which they had lowered. It was at this moment of time, that Paul clearly demonstrated the influence that he had gained on the ship. Paul declared to the centurion and the soldiers that unless the sailors remained within the ship, they would not be saved (v.31). His intervention caused the soldiers to cut the ropes and the boat drifted away. We are reminded that unless we stay in the Ark of God's providing we cannot be saved.

선원들과 승객들 모두 숨 조리며 기다리던 아침이 드디어 밝아왔다. 바울은 그들에게 음식을 들 것을 권하며 그들 앞에서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빵을 떼어 먹었다 (33-36 절). 날이 밝은 뒤, 음식을 배불리 먹은 선원들은 힘을 내어 배를 항구로 몰아가려 했다. 마침 바람이 배를 해변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얼마 후 배는 만의 중간에 위치한 모래톱에 걸리고 말았다. 큰 파도가 몰려와 뱃전을 때리기 시작하자 점차로 배가 부서지기 시작했다 (41 절).

군사들은 죄수들이 이 틈을 타 탈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만일 죄수들이 탈출한다면 그 책임은 병사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로마의 군율이었으므로, 군사들은 차라리 죄수들을 죽이고자 했다 (42 절).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고자 하여, 병사들의 계획을 중지시켰다. 백부장은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쳐 건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잡고 물을 건너 육지로 향하라 명령했고, 마침내 사람들 모두 무사히 육지에 올라왔다 (44 절).

우리 삶의 원리 -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

바울은 험한 폭풍을 만나면서도 항상 평온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고 언제나 자신의 믿음에 관해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울은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나 심지어 죽음을 대면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가운데,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본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 4:13)”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맞아, 굳건한 믿음을 통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 감동시켜 진리의 길에 들어서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하느님의 종이 되기를 거북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우리도 또한 그래야 할 것이다. 바울이 보여준 굳건한 믿음은 백부장을 감동시켰고, 백부장은 역경의 순간에 바울을 도왔다. 군사들이 죄수들을 죽이고자 할 때, 바울을 존경하던 백부장은 바울을 지키려 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라! 죄와 부도덕과 경건치 못함으로 가득한 이세상의 파도를 대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에게 대해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이 단원의 요점은 “믿음”이라는 한 낱말로 요약될 수 있다. 당신은 이 낱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히브리서 11 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기 바란다.

단원의 요약,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

- 하느님께서서는 바울과 함께 하셔서,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 바울은 항해를 미룰 것을 권했지만, 백부장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바울의 말을 듣기 보다는 선장의 말을 듣기를 원했었다.
- 하느님께서서는 바울을 구하시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함께 구해주셨다. 우리도 또한 그 방주에 남아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The critical time would come in the morning, and it was necessary for crew and passengers to be prepared for it. Paul therefore besought them to partake of food, and in the presence of all, gave thanks for it (vv.33-36). As the daylight grew, and having been refreshed by the food they had eaten, the sailors attempted to beach the ship in a bay that had been sighted. As the wind drove the ship toward the shore, it struck a sandbank in the middle of the bay. There it stayed, but as the stern was buffeted by the waves, it began to break up (v.41).

The soldiers suggested that the prisoners should be killed in case they attempted to escape; for if they had, Roman discipline would have held the soldiers responsible for it (v.42). The Centurion was determined to save Paul and stopped this idea. Finally, some by swimming, and some using floating wreckage, all reached land safely (v.44).

PRINCIPLE FOR LIVING – FAITH CONQUERS FEAR

In the face of a treacherous storm, Paul remained calm and ready always to speak of his beliefs. Paul demonstrated on this hazardous journey that we must learn through all the “storms” of life, even in the face of death itself, to have the same calm conviction as shown by the Apostle, e.g., “I believe God”. We can then “overcome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eth me” (Phil. 4:13).

We are all on the journey of life and our faith can be demonstrated at its best under trials and temptations. Remember that not only can we be delivered through our faith, but we, by example and strength of character, can influence others in the way of godly paths and so break down opposition to the truth.

Paul was not embarrassed about being a servant of God – neither should we be. He demonstrated his beliefs in God with such power and conviction that even the centurion obeyed Paul's commands in a time of trouble. Such was his respect for Paul, he was determined that he should not be harmed when the other soldiers wanted to kill the prisoners. How are our characters viewed by our friends around us, as we “sail” through times of crime, immorality, and ungodliness? The crux of this lesson can be summed up in one word - Faith. Do you understand the full meaning of this word? If not, then read Hebrews 11.

SUMMARY AND LESSONS FOR US

- God was with Paul to bring him safely to Rome to witness to the gospel there.
- Paul encouraged the centurion not to sail but he listened more to the expert, the captain of the ship, than a man inspired by God.
- God preserved the life of every person on the ship for Paul's sake. We can be saved if we remain in the ship.

제 17 단원 - 학습문제

1. 로마를 향한 여정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었는가?

2. 배가 난파하는 중에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것이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는가?

3.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지 당신이 이해하는 바를 설명해 보아라.

4. 구원을 얻기 위해 남아있어야 할 방주는 오늘날 어떤 것일까?

SECTION 17 – QUESTIONS

1. How did Paul display his faith during the journey to Rome?

2. How was Paul so sure that no lives would be lost because of the shipwreck?

3. Describe what you understand by the word “Faith”?

4. What is the ship which we must remain in today in order to be saved?

제 18 단원

바울이 로마에 가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읽을 말씀: 사도행전 28 장

공부할 목표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며, 하느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도우셨는지 배우고자 한다.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일이다.

배경지식

바울이 탄 배는 난파했고, 파도가 치는 가운데 부서져 가고 있었으며 가라앉으려 하고 있었다. 백부장의 명에 따라 사람들은 헤엄치거나 널빤지를 잡고 물을 건너 모두 육지에 도착했다. 겨울의 비바람을 맞은 사람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따듯한 쉼터가 필요했다.

섬에서 벌어진 일 (1-10 절).

멜리데 섬(지금의 몰타 섬)은 로마 제국에 속해있었으며,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다 (행 28:7). 멜리데 사람들은 난파한 일행들을 우호적으로 대해 주었고,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모닥불을 피워 주었다. 매사에 열성적이었던 바울은 나무를 한 무더기 구해와 불에 넣었는데, 나무 무더기 사이에 숨어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바울의 손을 물었다. 미신을 가지고 있던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이 몹쓸 죄를 지은 사람이 분명하다고 수군거렸다. 사람들은 바울이 난파선에서는 구출될 수 있었지만, 신의 노여움을 샀으므로 뱀이 그를 해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바울은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린 자리가 부어 오르기는커녕 유유히 뱀을 불에 떨어뜨리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이다. 섬 사람들은 놀라면서, 바울이 아마도 신들 중의 하나일 것이라 생각했다.

기적은 계속되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로 심하게 앓아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느님께 기도하고 손을 병자에게 얹어 병을 치료해 주었다. 이 기적의 소식은 온 섬에 빠르게 퍼져 나갔고, 곳곳에서 병자들이 몰려와 바울의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다. 바울의 행동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우리는 지금 바울처럼 기적을 베풀 수는 없지만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엡 4:32)”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갈 6:10)”

로마를 향한 여정이 다시 시작되다 (11-15 절).

그 섬에서 3 개월을 머무른 후 일행은 또다시 로마를 향한 배에 올랐다. 이번 항해는 순조로웠다. 일행은 시실리의 수라구사에 기항했고,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발가락에 해당하는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에 상륙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신자들을 만나 7 일 동안 머물렀다. 바울과 그의 여행동료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는 신앙의 형제들로 인해 기쁨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SECTION 18

Paul Goes to Rome

“For the Hope of Israel I am bound with this chain”

READING: Acts 28

OBJECTIVE

We will learn how that with God's help Paul was able to witness for Christ in Rome, even though he knew that it might mean his death.

BACKGROUND

The ship had run aground, and as the waves began to break it to pieces all on board the ship were in danger of drowning. Under the centurion's direction, by swimming or floating on pieces of wreckage, all safely landed. However, they were exhausted and shivering with cold as the rain and bitter wind lashed them. All they desired was shelter and warmth.

ON THE ISLAND (verses 1-10).

The island of Melita (known today as Malta) belonged to the Roman Empire, and was ruled by a man named Publius (Acts 28:7). The people of Melita showed the survivors of the shipwreck much kindness and hospitality. They helped kindle a fire to keep warm. Paul, with his usual energy, took part in collecting some wood for the fire. As he did so, a poisonous viper fastened itself onto his hand and bit him. Being superstitious, the Maltese were convinced that he must have been a bad criminal. They thought he had just escaped death from shipwreck but vengeance from the gods had finally caught up with him. Instead of swelling up and falling down dead, Paul shook off the deadly snake into the fire. God protected him. The islanders were amazed, changed their minds and decided that he was a god!

The miracle led to more. The father of Publius was very ill, suffering from a serious bout of dysentery and fever, and would have died. But Paul prayed to God for power to heal him, laid his hands on him and the man recovered. News of the miracle quickly spread throughout the island, and many others who suffered from various diseases came and were cured. Paul's kind-hearted actions can be a lesson to us all. We cannot do miracles, but we can heed what he wrote: “Be ye kind one to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even as God, for Christ's sake hath forgiven you” (Eph.4:32). “As we have therefore opportunity, let us do good unto all men...” (Gal.6:10).

THE JOURNEY TO ROME CONTINUED (verses 11-15).

After three months they set sail again for Rome, having been supplied with all the necessary provisions from the islanders. The voyage was favourable. They landed first at Syracuse in Sicily, then touched at Rhegium, the port on the toe of Italy, and finally landed at Puteoli. There the travelers found believers who desired them to stay with them for seven days. It must have been encouraging for Paul and his two companions, to see some brethren after such a long time.

7일간 머무르는 동안 일행은 아마도 주를 기념하는 떡을 떤 것을 먹었을 것이다. 이제 이들은 로마를 향해 육로 여행을 시작했다. 바울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이미 로마에 전해졌다. 압비오 광장(로마에서 약 70 킬로미터 떨어진 곳)과 ‘세 여관’이라는 곳(로마에서 약 55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이르자 로마에서 출발한 형제들이 일행을 마중하러 나와 있었다. 바울은 당시 황제였던 포박한 네로에 관해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아마도 조금은 침체했었던 듯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서 마중 나온 형제들을 만나자, “용기를 얻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28:15)”

로마에 도착한 바울 (16-31 절)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로마에 온 것이다. 이곳에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바울과 함께 여행했던 다른 죄수들은 친위병들에게 인계되었으나, 바울만은 개인 숙소를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 병사가 밤낮으로 감시하기는 했지만, 바울이 머무는 숙소에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방문이 허용되고 있었으므로 로마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 이뤄질 수 있었다. 누가, 이리소다고, 디모데, 두기고, 마가 등이 바울과 만났다고 되어있다.

우리 삶의 원리 - 시험을 당할 때 인내로 참고 견디라

우리는 바울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가장 활용하여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교훈을 삼게 된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빌 4:11).” 우리는 시련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 우리가 바울처럼 어느 상황에서든지 믿음에 굳게 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선이 될 것이다. 바울은 비록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았고 (딤후 2:9), 로마 황실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빌 4:22)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라”라는 원칙으로 복음을 전했다. 로마에 도착한 3일 후, 바울은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행 28:20)”라고 말하며,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소망을 이해해 주기 바랐다.

At the end of the seven days, during which there would have had an opportunity for the Breaking of Bread, they renewed the journey to Rome by road. During this time messengers went north to Rome to spread the news of Paul's coming. At Appii Forum (about 70 km from Rome), and at the Three Taverns (55 km from Rome), they were met by some of the brethren from Rome. Paul seems to have been rather depressed, as he journeyed towards Rome. He may have heard of the cruelty of the Emperor Nero, to whom he had appealed, and who was to decide his fate. But when he met the brethren, "he thanked God and took courage!" (28:15)

PAUL IN ROME (verses 16-31).

At last Rome! This was Paul's objective – to witness to Christ in Rome. He arrived in Rome knowing that there would be additional suffering, and in the end, death. The other prisoners were delivered to the Praetorian guard, but Paul was allowed to rent a private home. Although Paul was a prisoner, and was guarded by a Roman soldier day and night, he could receive visits from his friends and others (such as Luke, Aristarchus, Timothy, Tychicus, Mark, just to mention a few), and carry out his great work of proclaiming the gospel.

PRINCIPLE FOR LIVING – ACCEPT WITH PATIENCE THE TRIALS WE FACE

We can take a lesson from Paul's great character; for in whatever situation he was found, he accepted his position, and made the best of it as he said, "I have learned in whatsoever state I am, therewith to be content" (Phil.4:11). Often it is hard for us to accept trials that come upon us. It will ultimately be for our good if we as Paul, remain steadfast and faithful to the end. Though Paul was bound with a chain, yet God's word was not bound (2 Tim.2:9) and through Paul it even penetrated into the very court of Caesar himself (Phil.4:22).

Paul still acted on the principle of "to the Jew first". So after three days Paul called the Jewish leaders together and told them of the circumstances that had brought him to Rome. The Jews in Jerusalem had accused him of being a troublemaker and an offender, and for this cause he was brought as a prisoner to Rome. He had been forced to appeal unto Caesar although the Romans had found no cause of death in him. Paul had desired to see and to speak with the Jewish leaders in Rome, that they might realise, "for the hope of Israel he was bound with a chain" (v.20).

성서의 기본 원리 -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곧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복음의 중심 주제이며, 중요한 성서 교리 중의 하나이다. 바울은 우리가 “그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 (롬 8:24). 이 소망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이를 “이스라엘의 소망”이라 부른다 (행 28:20). 이스라엘의 소망은 사도행전 28:23 절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느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또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 애썼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바울은 그의 마지막 2 년을 이 소망을 전하면서 보냈다고 되어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느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행 28:31)” 이 구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두 부분으로 나뉘었음을 알 수 있다. 1) 하느님의 나라와 2)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다. 빌립이 사도행전 8:12 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느님의 나라와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이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소망”과 “복음”은 동의어임을 알 수 있다.

바울이 가르친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특히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미 약속하셨었다. 예수께서도 “유대인들로부터 나오는 구원”이란 말씀을 하신바 있다 (요 4:22). 예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세워질 나라는 과거 이스라엘의 왕국의 회복이며, 이 나라는 하느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나라로서, 약속된 그 땅에 세워질 나라이다. 하느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 중심부에 세워질 것이라 약속하셨고, 바울은 이를 “이스라엘의 소망”이라 부른 것이다. 그러나 이 소망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예수 그리스도)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 22:18)”라 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확대되어 적용된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약속된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소망의 약속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나 유대 지도자들은 하느님께서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도 부르시는 하느님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로마에 살던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바울의 “종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다. 이 “종파”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바울에게 주어졌다. 바울은 자신이 거하는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에 관해, 그리고 예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심에 관해 전하기 시작했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바울은 믿지 않고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말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사 6:9-10).”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을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마 23:13 참조).

BASIC BIBLE PRINCIPLE – THE HOPE OF ISRAEL IS THE TRUE GOSPEL

The hope of Israel is a central issue of the gospel, and one of the key doctrines of the Bible. Paul said that we are saved by “the Hope” (Rom.8:24). What is this hope? It is that which Paul calls “the Hope of Israel” (Acts 28:20). We learn more about this hope in V23, where Paul “expounded and testified the Kingdom of God, persuading them concerning Jesus, both out of the law of Moses, and out of the prophets, from morning till evening”. The last verse of the book of Acts (v31) tells us that Paul spent his final 2 years telling others about this hope: “Preaching the Kingdom of God, and teaching those things which concern the Lord Jesus Christ, with all confidence, no man forbidding him.” From these verses we learn that the Hope of Israel consists of two main elements: 1) The Kingdom of God; and 2) Jesus Christ. Interestingly, when Philip preached the good news or gospel in Acts 8:12, the message was exactly the same – “the Kingdom of God and the name of Jesus Christ. So we can see that the “Hope of Israel” is synonymous with the gospel.

The hope of Israel that Paul was teaching was not something new, for God had told Abraham, Isaac and Israel that the great promises would be fulfilled in their nation. Jesus had clearly pronounced that “salvation is of the Jews” (John 4:22). When Jesus Christ returns, the kingdom that will be set up will be the Kingdom of Israel restored, in the territory it formerly occupied, which is the same land God promised to Abraham and his seed (i.e. Jesus Christ). As God gave these wonderful promises (about Jesus Christ and a kingdom which would center in the Land of Israel) to the Jewish fathers, Paul calls it “the hope of Israel”, but the hope extends to all nations as God promised Abraham “in thy seed (i.e. Jesus Christ) ALL nation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Gen. 22:18). While the Jewish leaders in the days of Paul understood the part about the Kingdom of God being established on this earth, most of them failed to accept Jesus as the promised seed. Moreover, the Hope of Israel is not just for the Jews, but rather a hope for all nations. Unfortunately many of the Jewish leaders could not accept that God was calling the Gentiles as well as the Jews.

The Jewish leaders in Rome had heard very little of Paul, but knew something of his “sect”, which was everywhere spoken against. A day was appointed in Paul's house, that he might explain what he and this "sect" stood for. Paul's earnestness is seen, as he expounded to the large audience that came to hear him, from morning to evening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with Jesus as its King, both out of the Law of Moses and the Prophets. Some believed, and some did not. Paul was able to summarise the reaction of the disbelievers from the prophet Isaiah (6:9-10), who had said, that "Hearing ye shall hear, and not understand, and seeing ye shall see, and not perceive". They had hardened their hearts. Refusing to believe themselves, they did their utmost to stop their countrymen believing also (cp. Matt. 23:13).

유대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자, 복음의 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열렸다. 로마의 셋집에서 거하는 2년 동안,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유함”에 관하여 이야기 했고,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하느님의 가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의도에 관해서 전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지만(롬 3:2),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하느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들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엡 3:6). 바울이 쓴 귀중한 옥중 서신들(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을 읽으며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마음 속에 그리며 권면 받을 수 있다. 바울은 로마 병사의 감시를 받으며 사슬에 매여있는 중에서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소중한 편지들을 적어 보냈다.

단원의 요약,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

- 야훼께서는 바울을 도와, 그가 로마 제국의 수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일찍이 바울에 대하여,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로마에 가서 전할 것이라 하신 바 있었다 (행 23:11).
- 하느님께서서는 바울의 여정 중에 그를 지켜주셨다. 바울은 어떤 위험에 처하든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으며 하느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드러내 보였다.
-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간섭하시며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며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관심을 지속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이 진리에 관해 대화를 지속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크고 강해질 것이다.

When the Jews refused the Gospel message, it was opened to the Gentiles, who were willing to hear. During the two years that Paul dwelt in Rome, in his own hired house, he spoke to all who came to him of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and of the intention of God to include men and women from all races in the family of God. For “unto the Jews were committed the oracles of God” (Rom. 3:2) but “the Gentiles were made fellow-heirs and of the same body, and partakers of his promise in Christ, by the gospel” (Eph. 3:6). As we read these beautiful epistles of Paul (Ephesians, Colossians, Philemon and Philippians), we can better appreciate their exhortational value by picturing in our minds the figure of Paul, chained to a Roman guard, writing to his beloved brethren and sisters and earnestly discussing the Hope of Israel.

SUMMARY AND LESSONS FOR US

- Yahweh helped Paul to reach Rome so that he could preach in the capital city of the Roman Empire. This confirmed what Paul had been told by the Lord earlier, that he Paul, must bear witness in Rome of the Gospel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and the name of Jesus Christ (Acts 23:11).
- God cared for his servants throughout their journey, because of their obedience to His will, and their demonstration of faith and confidence in Him, even when under great peril.
- We also will receive help from God to do His will if, like Paul, we have an unswerving confidence in the truth; and always seek the Father's guidance and counsel in our lives. Our faith will become stronger and will show itself in increased activity around the things of God, e.g., a daily interest in reading and talking about the Word of God to other young people within the Truth and to those interested in this precious "Hope of Israel".

제 18 단원 - 학습문제

1. 바울이 펠리페 섬에 있는 동안 하느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풀게 하셨나?

2. 바울은 갇혀 지내면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바울이 로마에서 지내던 모습을 설명해 보아라.

3. 바울이 로마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4. 사도행전의 기록 끝부분을 보라.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5.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해한 대로 쓰시오.

SECTION 18 - QUESTIONS:

1. How did God protect Paul and through him work miracles when Paul was in Melita?

2. Though Paul was imprisoned in Rome, his work did not cease. What did he do whilst in Rome to further the influence of the Gospel?

3.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Paul's experiences in Rome?

4. As the record of Acts closes, what do we find the apostle Paul doing?

5. Write what you understand by "the Hope of Israel"?

제 19 단원

침례

“믿고 침례를 얻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읽을 말씀: 로마서 6 장

공부할 목표

침례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배경지식

그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던 1 세기 당시 사도들은 침례를 받으라 외쳤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진 각 지역의 사람들이 이에 응답하여 침례를 받았다. 침례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침례란 무엇인가?

침례라는 낱말은 헬라어 “바티조”를 근원으로 하고 있다. “바티조”란 ‘담그다 또는, 던져 넣다’라는 뜻으로서, 이 말은 염료를 탄 물에 옷감을 적셔 염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티조”에는 물을 뿌린다거나 물을 붓는다, 또는 씻는다는 의미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결심한 신자는 침례라는 간단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낸다. 침례는 믿음의 고백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자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자신의 죄 사함을 받고, 옛 생활을 떠나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생활의 첫 걸음을 밟는다.

침례는 구원의 필수조건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16:16). 또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기를, “사람이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다 (요 3:5). 사도행전에는 침례를 중요시하는 많은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 장면들이 그것이다.

- 오순절날 베드로의 강연을 들은 청중은 회개하며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이에 대한 대답은 “침례를 받으라”였다. 그날, 3 천명의 신자들이 이 말에 순종했다.
-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듣고 믿을 때, 남녀를 구분하고 모두 침례를 받았다..
-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는 데 장애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빌립이 말했다.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 8:36,37). 내시와 빌립은 함께 물에 내려가 침례를 시행했다. 이들의 침례는 온 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였다.

SECTION 19

Baptism

"He that believeth and is baptized shall be saved"

READING: Romans 6

OBJECTIVE

To show the importance of baptism as the point when our sins are forgiven through Christ and we become part of God's family.

BACKGROUND

The call to be baptised was made to thousands in the first century as the apostles presented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to both receptive and hostile audiences. Their faithful and often courageous preaching produced a response in the hearts of many in Jerusalem, Judaea, Samaria and into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Let us now see what is accomplished by the important act of baptism.

WHAT IS BAPTISM?

The English word "baptise" comes from a Greek word "baptiso" which means "to dip" or "to plunge". It was used to describe the dyeing of a garment by immersing it in a fluid to create a change of colour in the garment. By baptism a believer of the gospel submits to a simple yet humbling act of great significance. His or her immersion comes as the final step after a good confession of faith. Sins are washed away and the believer rises up from the waters leaving behind the old way of life, and steps forward determined to glorify God in their new way of life.

BAPTISM ESSENTIAL FOR SALVATION

Jesus declared "he that believeth and is baptised shall be saved" (Mark 16:15-16). Jesus taught Nicodemus, a ruler of the Jews, that a man must be born of water (baptism) before h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John 3:5). Just think how many times in the book of Acts we have seen the importance of baptism. A few examples are:

- When the people heard and believed the gospel taught by Peter on the day of Pentecost, they were moved to confess their repentance and cry out, "what shall we do?" The answer was "be baptised"! And about 3,000 people obeyed that answer.
- When the Samaritans believed the things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and the name of Jesus Christ, they were baptised, both men and women.
- When the believing Ethiopian eunuch saw "a certain water" and said "see here is water; what doth hinder me to be baptised? And Philip said, if thou believest with all thine heart, thou mayest" (Acts 8:36, 37). They both went down into the water, and the eunuch was baptised. They came up out of the water indicating that a full immersion had taken place.

-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 앞에서 그 나라에 관한 복음과, 하느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마련된 것을 이야기 하고 있을 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베드로는 함께 온 형제들에게 “이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누군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라 말한 뒤 (행 10:47),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명했다 (행 10:48).

에덴 동산에서 제시된 원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 이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 몸을 가리고 있었다 (창 3:7). 하느님께서서는 이들의 옷을 기뻐 보시지 않고,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시고 이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하셨다. 하느님께 화해하려면 그분께서 마련한 방법과 조건에 따라야 한다. 이 조건 중에 “피 흘림”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은 이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한다 (히 9:22).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사하고 이들을 받아들이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를 구할 수는 없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동물 가죽 옷은 곧 의의 옷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희생.

하느님께서서는 죄를 가리고 하느님과 화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준비하셨다.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 아들의 피 흘림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수단이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덴동산과 율법에서 그림자로 들어 말하던 바로 그 양으로서, 흠 없는 “하느님의 양”이었으며, 그를 통해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다(사 53:7). 예수께서 드리신 한 번의 제사는,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완벽한 구원의 제사였다. 하느님께서서는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셨으므로, 우리는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그의 부활에 연합함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약속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침례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경험을 공유하고, 그 분의 본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을 표출하는 행동이다. 침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침례를 위한 준비.

침례는 간단하고도 중요한 행동이다. 침례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느님의 계명에 화답하는 행동이다. 선한 양심은 복음의 가르침을 들으며 발달한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1 세기의 사도들이 믿고 전한 기초적 원리들을 주의 깊게 배우고, 진리를 굳게 잡아 침례를 받고 새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서가 가르치는 참 가르침과 현재 기독교계에 만연한 그릇된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사도들도 침례를 받는 자의 믿음과 회개를 확인한 후 침례를 시행했다. 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계명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서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를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이 토대 위에 세우고자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생활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우리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신실한 신자로서 하느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 Cornelius was told that despite his many good works there was one important thing that he lacked. He was a devout man, one who feared God, who gave much alms to the people, who always prayed to God - and yet, something was missing! Upon Peter's teaching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the salvation accomplished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Son of God and upon the sign of the Holy Spirit sent by God, Peter could see that no man could "forbid water" (v.47). He "commanded them to be baptised in the name of the Lord" (v.48).

PRINCIPLES SHOWN IN EDEN.

When Adam and Eve sinned, God provided coats of skins to cover their shame and nakedness. He had rejected their own attempt to cover themselves with figleaves (Gen. 3:7). If God was going to accept them, to reconcile them, then it had to be on His own conditions. And those conditions involved the "shedding of blood" to provide their covering. We are later told that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remission of sins (Heb.9:22). So the life of an animal was given in order that Adam and Eve could find acceptance with God. They couldn't save themselves. It was God's own providing and as coats of skins it was a complete covering.

THE SACRIFICE OF CHRIST.

God has appointed a new means of reconciliation and covering for our sins. He has appointed the shedding of the blood of His Son, as a perfect, unblemished offering, as the means for us to obtain the forgiveness of sins. The Lord Jesus Christ was the spotless "Lamb of God", foreshadowed in Eden and in the Law, through whom our sins may be covered (Isa.53:7). It was the one, perfect offering to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securing the ultimate salvation of all the faithful, of all ages. Since God has decreed that this is the only way for sinful man to be forgiven of his sins and have a hope of eternal life, it is vital for us to submit to His appointment. This requires us to undergo a symbolic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in the waters of baptism, just like the actual sacrifice of Christ. Our baptism is patterned on his experiences and from that time on our life "in Christ" should be patterned on his life.

THE PREPARATION FOR BAPTISM.

The simple yet vitally important act of baptism is "the answer of a good conscience towards God" (1 Pet.3:21). That conscience develops from instruction in the fundamentals of the Gospel. The person who becomes aware of their need for salvation carefully studies these first principles of the Apostolic Faith (i.e. that which was taught and believed by Jesus and the apostles in the 1st Century) so that he or she may have a proper grasp of the Truth and the new life that follows baptism.

A candidate for baptism is required to carefully study the Bible's true teachings because of the confusion, error, and liberal thinking about the means of salvation that exists in Christendom today. But this requirement is also made because of the example of the apostles recorded in the Word of God, when care was exercised to ensure that repentance and belief were both present before baptism. Our willingness to comply with Christ's command and the instruction of the apostles must result in a thorough appreciation of the true Gospel to which we commit ourselves. The truth of the Bible must be grasped, loved and nurtured as a rock-solid foundation upon which we can build our lives. Such a life long commitment will see us witness for the true gospel, building up of the Faith in the ecclesias and in a personal readiness for our Lord's return.

본보기가 되신 그리스도 (로마서 6 장).

사도 바울은 침례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신을 장사 지내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침례는 죄에 대한 죽음이요, 죄의 습관에 대한 죽음을 상징한다. 죄의 노예로서의 옛 생활을 중단하고 물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죄에 대한 봉사를 더 이상 중단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말한다. 바울은 이러한 새 생명의 삶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과 비교했다 (롬 6:4; 골 3:1).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하느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며,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하느님의 성품을 이루고자 연습하는 삶을 산다.

침례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삶이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한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소중한 피”로 산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침례는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속자로 삼고자 하는 서약이다.

침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와 그 특권에 참여할 수 있다. 침례를 통해 우리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의 형제들의 일원이 되어 교제를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침례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음이다. 침례는 하느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며, 우리는 침례에 담긴 의미와 그 책임을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CHRIST THE PATTERN (Romans 6).

The apostle Paul shows that baptism is a symbolic burial following the pattern of Christ's death. It is a burial or a putting to death of sin and its habits. The old way of life which was a slave to sin is discontinued and left behind as the believer rises from the water to a "newness of life". So that what can be described as a negative action in cutting off a service to sin becomes a positive action of service to God. Paul compares this newness of life to Christ's resurrection (Rom.6:4; Col.3:1).

The baptised person "lives unto God" by rejecting the re-entry of sin and shows a desire to glorify God by putting into practice in daily life the characteristics which are of God and which were shown in the sinless life of Jesus Christ.

Baptism changes our allegiances. To be identified with Christ is not a part-time profession but rather it is for life! The baptised person is responsible to God since he or she has been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nd as such there is a life long commitment to God and Christ as our Redeemer.

To be baptised is to enter a position of grace and privilege. With baptism comes access to God in prayer through the mediator Christ, and fellowship with the Brotherhood of Christ throughout the world.

The act of baptism is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step made in a person's life. By God's appointment it should not be entered lightly or without recognition of its responsibilities.

제 19 단원 - 학습문제

1. 침례란 무엇인가?

2. 침례는 구원에 있어 필수적인가? 성서와 사도들의 예를 들어 답해보아라.

3.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서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희생제물이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임을 설명해 보아라.

4. 침례 받기 전에 그리고 침례 받은 후에, 꼭 필요한 것으로는 각각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 침례 받기 전?

나) 침례 받은 후?

SECTION 19 - QUESTIONS

1. What is baptism?

2. How essential is baptism for salvation? Your answer should include examples from the times of the apostles.

3. Show how Christ was the one perfect offering fulfilling the types demonstrated in Eden and in the Law.

4. What are the important steps that must be taken:

a) before baptism?

b) after baptism?

제 20 단원

돌아오실 왕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느님의 전신 갑주(갑옷과 투구)를 취하라”

읽을 말씀: 에베소서 6 장

공부할 목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자.

배경지식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였고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다. 우리는 사도들과 초대 에클레시아의 열정과 용기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것들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본보기가 됨을 알게 되었다. 이제 우리 앞에 다음 질문이 놓인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방향의 전환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종들은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하였다.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은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아야 한다 (엡 4:17)”고 되어있다. 이전의 생활은 “죄로 인해 죽은 생활”이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침례를 통해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졌다.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자리가 마련된 사람들이다 (엡 2:5-6). 이를 위해 우리에게 책임이 따른다. 바울은 에베소서 6 장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개발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여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순종의 생활을 익혀야 한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라 하였고, 종들에게는 주인을 순종하라 하였다.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엡 6:1-4).

바울은 에베소서 5 장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느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였다 (엡 5:1). 야훼께서는 하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다 (3:14-15). 우리의 가정생활은 하늘 아버지의 가정을 닮아야 한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성서는 “자녀들아, 주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듯,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30 살 넘은 나이였음에도 아버지의 말에 모든 면에서 순종했고 모든 명령에 따르려 했듯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한편, 하느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셔서 돌보셨듯이, 부모들은 자녀를 염려하고 돌보아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보고 그 부모를 경외할 것이다. 가정이라는 사회 단위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기본적 단위이다. 가정의 생활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SECTION 20

How to be ready for the coming King

"Wherefore take unto you the whole armour of God"

READING: Ephesians 6

OBJECTIVE

The aim of this lesson is to explore how we can be prepared for the return of our Lord Jesus Christ, so that we might enter into the Kingdom.

BACKGROUND

The world is about to experience the return of Christ. The apostles of Christ went out to the Roman world and caused it to be "turned upside down". We have considered the enthusiasm and courage of the apostles and of the early ecclesias as an example to us who live at the time of the end. The question confronting us is: "How can we prepare ourselves for Christ's coming?"

A CHANGE OF DIRECTION

Paul taught the Ephesians that the servant of Christ has a new relationship and cannot walk in the ways of the world. True servants of Christ "henceforth walk not as other Gentiles walk" (4:17). In their former life they were "dead in sins", but baptism into Christ brings about a change of relationship: they are "quickened (i.e. made alive) together with Christ ... raised up together, and made to sit together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2:5-6). With this new position come responsibilities. In chapter 6 of Ephesians, Paul shows us how we should develop our lives to please God; and develop the armour of God to be ready for Christ when he comes. One of the important things we need to learn is submission. Paul taught children to submit to their parents and servants to their masters.

CHILDREN AND PARENTS (Eph. 6:1-4).

In Ephesians 5, Paul wrote, "Be ye therefore followers of God, as dear children" (5:1). There is a Divine family, in which Yahweh is Father and we His children (3:14-15). Every family is expected to be a replica of His family. What should be the attitude of children to parents? The answer is,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In a family where Christ is honoured, the willing obedience he gave his Father will find reflection in the attitude of children to parents. Note that Christ was over 30 years of age and he obeyed his Father in all things, and so as much as possible, providing it doesn't conflict with God's commands, everyone should obey their parents. The loving care and concern that God had for Jesus will be seen in the parents' concern for their children. Children are to honour their parents because their parents in turn honour their Father in heaven. The family is the foundation unit in a society that honours God. Family life must be preserved at all costs.

종들(종업원들)과 주인들에게 (엡 6:5-9).

로마 시대에 있어서 “종”이란 노예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인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성서가 말하는 종과 주인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회사의 주인들에게 충실히 봉사해야 한다.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건, 직장의 감독자에 대해서건, 아니면 직장 상사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에게 성실하게 봉사하는 종을 칭찬하시고 영접하실 것이며, 그 봉사를 그리스도께 하는 봉사와 같이 여기실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야 한다 (골 3:22).

전투를 대비한 갑옷 (엡 6:10-20).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이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생활방식의 삶이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내면적 욕구와도 싸워야 한다. 침례를 받으려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름과 세속적 욕구와의 충돌을 경험하고 갈등한다. 바울은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전쟁에 비유하였다 (딤후 2:3-5 참조). 이 전쟁을 수행하는 신자들은 영적 갑옷과 영적 무기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고후 10:2-6).

바울은 우리를 격려하며 말하기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완전 무장하라)” 하였다 (엡 6:10-11). 이 갑옷은 완전 무장의 갑옷으로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적, “마귀”는 하느님께 반대하는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권세를 가진 주권자들을 말한다 (6:11-12). 그러므로 하느님을 대항하는 법을 만들며 그런 교훈을 퍼뜨리는 이 세상의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기구들이 우리들의 적이다.

바울은 로마 병사의 감시하에 사슬에 매여 지냈다. 로마 병사가 입고 있던 갑옷을 보며 바울은 영적 갑옷을 묘사하여 설명했다 (13-18 절). 하느님의 전투 장비는 다섯 개의 방어 장비와 한 개의 공격 무기, 그리고 한 개의 통신 장비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의 열거 순서에도 또한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다.

방어 장비:

1. 진리의 허리띠 (엡 6:14).

병사들의 허리띠는 갑옷을 신체에 꼭 맞게 졸라매면서, 두 개의 흉배를 싸는데 쓰이며, 단검과 칼 같은 무기들을 고정시키는데 사용된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효과적으로 전투할 수 있도록, 허리띠는 단정하게 매어야 한다. “진리”는 이 허리띠와 같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발달시키는 원천이요 근거이다 (요 17:17); 15:3).

2. 의의 흉배 (엡 6:14; 사 59:17).

흉배, 또는 쇠미늘 갑옷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목에서부터 허리까지이고, 다른 하나는 허리에서 무릎까지이다. 흉배는 심장을 보호한다. 하느님의 의의 법은 우리 속에 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보호한다 (시 19:7-14). 의의 흉배는 의로운 길에 기초한 도덕적 정결을 상징하기도 한다. 의(義)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서 보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예언에서도 “당신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라 하기도 했다 (시 45:7).

SERVANTS AND MASTERS (Eph. 6:5-9).

In the Roman world “servants” were bondslaves and considered as property to be used or abused by their masters. The same principles apply to us. As followers of the Lord Jesus Christ, we should render honest and loyal service to our earthly masters. This would include school teachers and our supervisors or managers at work. Christ will accept honest service done to an earthly master as service done to him. Whatever we do should be done “as to the Lord” (Col. 3:22-25).

THE WARRIOR ARMS FOR THE BATTLE (Eph.6:10-20).

When a person accepts Christ, they are choosing a way of life that many people oppose. Even harder they find that they are fighting against their natural tendencies. Even before baptism there is a conflict between what Christ commands and what we and the people around us naturally want to do. Hence life becomes a struggle which Paul likens to warfare (cp. 2 Tim. 2:3-5). The disciple fighting this warfare needs the protection of “spiritual” armour and “spiritual” weapons (cp. 2 Cor.10:2-6).

Paul encourages us to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and to “Put on the whole armour of God” (6:10-11). The armour was to be complete, so that all parts of the body would be protected in the battle. The enemy is called “the devil” and is identified as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both religious and political (6:11-12). Therefore the enemy we fight includes the political and religious institutions of this world, which are responsible for disseminating laws and teachings opposed to God.

As Paul wrote this letter, he was chained to a Roman soldier whose armour suggested the spiritual counterparts he describes (vv.13-18). Altogether, there are seven components in the equipment of God's warrior - five pieces of defensive armour, one offensive weapon, and one for communication. The order in which they are stated is also important.

THE DEFENSIVE EQUIPMENT:

1. The Girdle of Truth (Eph. 6:14).

The military belt was used to brace the armour tight to the body, to cover the two parts of the breastplate where it joined, and to support weapons, such as daggers and short swords. There would have been disarray without it, for it was essential for freedom of movement and efficient action. “Truth” is like that - God's Word is the foundation and source of our spiritual development (John 17:17; 15:3).

2.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Eph. 6:14; Isa.59:17).

The breastplate, or coat of mail, was in two parts - one reaching from the neck to the waist, and the other from the waist to the knees. It covered the heart and protected it from injury. The righteous laws of God dwelling within us protect our hearts and minds (Psa.19:7-14). Hence,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stands for our moral integrity based on God's righteous ways. This love of righteousness will protect us from the temptations of the “devil”. Of Christ it was prophesied, “Thou lovest righteousness, and hatest wickedness” (Psa.45:7).

3. 복음의 신 (엡 6:15; 사 52:7; 롬 10:15).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면서, 신을 신은 채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이는 애굽의 죄의 종살이에서 떠나 약속된 땅으로 떠나는 이들의 마음의 준비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준비란 기꺼이 대비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진리의 사역을 열정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평화의 복음이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궁극적 휴식을 가져다 주는 기쁜 소식이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앞에 복종할 때 이 평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엡 2:14-17 참조). 우리는 오늘날 이 메시지를 널리 전함으로서 그 나라의 사역을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

4. 믿음의 방패 (엡 6:16).

방패는 전신을 보호하기 위한 타원형의 가림판이다. 방패는 다양한 방향에 위치한 적으로부터 발사되는 화살을 막아낸다. 믿음은 진리, 도덕적 정결함,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영적 자질이며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다.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는 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화살은 힘없이 떨어지고 만다. “하느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요일 5:4).”

5. 구원의 투구 (엡 6:17; 사 59:17).

투구는 머리를 보호함으로, 결국 온 몸을 방어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 “몸”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엡 1:22, 23). 이사야 59:17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말하기를,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 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침례를 받을 때,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 우리 몸의 구주이시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지 않는다면 성도들의 방어무기는 아무런 위력이 없다 (엡 5:23 참조). 우리는 침례 받는 순간부터 그분의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명령을 충실히 순종해야 한다.

공격 무기:

1. 성령의 칼 (엡 6:17).

에클레시아가 수행하는 “공격 전투”란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고, 하늘의 갑옷으로 무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복음 전파”라는 공격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전투는 정신과 사상의 영역에서 수행하는 활동이며, 듣는 이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에 도전하는 활동이다 (엡 3:9-10; 고후 10:3-5 참조).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로서 성령의 검이 날카로워지고,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히 4:12). 이 같은 결과는 주의 깊게 성서를 읽으며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얻어진다.

통신 장비:

1. 기도 (엡 6:18-20).

기도는 신자의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를 잊는다. 사령부와 연락이 끊어진 채 홀로 싸우는 병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사령부와 연락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병사는 결국 패배할 것이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는 병사는 희망을 유지할 수 있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여야 하며 좌절하지 말아야 하고 동료 형제들과 협동하여야 한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주변의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있다 (엡 6:19-20).

3. Shoes of the Gospel (Eph.6:15; Isa.52:7; Rom.10:15).

When Israel was about to leave Egypt, they were commanded to eat the Passover with their feet shod. This showed their readiness and desire to leave Egypt with its sin and slavery, and to go and possess the promised land. "Preparation" signifies "willingness, readiness". We must always be ready to proclaim the gospel and show willingness and enthusiasm for the work of the Truth. The gospel of peace is the good news that will at length restore peace and unity to all mankind. This will only occur when the Lord comes and causes all men to submit to the Truth (cp.Eph.2:14-17). We must spread that message today so that in the kingdom we might complete the work begun now.

4. The Shield of Faith (Eph.6:16).

The shield described was the large, oblong shield, curved to cover the whole body. It could be turned to deflect the enemies' arrows from any direction. Faith provides a protective covering for the spiritual qualities represented by the warrior's armour, i.e. truth, moral integrity, and willing activity. While faith guards us, the missiles that would otherwise cause injury fall harmlessly aside. "For whatsoever is born of God overcometh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overcometh the world, even our faith". (1 John 5:4).

5. The Helmet of Salvation (Eph.6: 17; Isa.59:17).

The helmet protected the head, from which directions flowed to co-ordinate the whole body. The "head" of our "body" is the Lord Jesus Christ (Eph.1:22,23). In Isaiah 59:17, Christ is said to have "put an helmet of salvation upon his head". We put on this helmet of salvation when we "put on Christ" in baptism. The defensive equipment of the saints is never effective unless Christ, the head and saviour of the body, is in control (cp.Eph.5:23). His commandments must be affectionately obeyed, from the time of our baptism until the time of His return.

THE OFFENSIVE EQUIPMENT:

1. The Sword of the Spirit (Eph.6:17).

The "offensive warfare" committed to the ecclesia is the preaching of the gospel. Armed with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and clothed with the heavenly armour provided, the soldier of Jesus Christ is able to go on the "offensive" by preaching the gospel.

This warfare is not carnal but involves the realm of the mind and ideas; the gospel challenges the values and purposes of all that hear it (cp.Eph.3:9-10; 2 Cor.10:3-5). Before this can take place the Word of God must be known and understood. Then it becomes sharp and effective in the hands of the disciple (Heb.4:12). This is the result of diligent study, careful reading, meditation, and prayer.

COMMUNICATION EQUIPMENT:

1. Prayer (Eph.6:18-20).

While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in the life of the believer, it is often forgotten. Imagine the plight of a soldier cut off from headquarters and fighting alone! Unless communication could be re-established the fight would be lost. But granted the help and guidance of prayerful contact with God, hope may be sustained and victory obtained. But there is a need to be alert, "watching thereunto with all perseverance". Moreover we must co-operate with fellow soldiers; Paul draws attention to this idea by making known his own needs in this regard (6:19-20).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전투를 대비하여 방어장비와 공격무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늘 아버지와 긴밀히 연락하여야 한다.

단원의 요약,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

-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과 별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도록,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등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그리스도의 병사들로서, 신자들은 진리와 도덕적 정결, 적극적 봉사활동을 실행해야 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인도자이며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 신자들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공격활동을 해야 한다.
- 기도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기억해야 할 성서구절: 히브리서 4:12

Thus the soldier of Jesus Christ needs defensive and offensive equipment in his warfare, as well as to communicate with the Father in all things.

SUMMARY AND LESSONS FOR US:

- In the midst of a permissive society, the saints of God must stand aside from the world.
- To fit themselves for the coming Kingdom, disciples must learn to "submit one to another" in marriage, in the family and at work.
- As soldiers of Christ, disciples must equip themselves with truth, moral integrity, willing activity and the protection of faith, using Christ as the guide and goal of their life.
- Thus protected from the missiles of the enemy, they must take the offensive and go forth fearlessly to proclaim the gospel.
- We must never forget the power of prayer.

VERSE TO REMEMBER: Hebrews 4:12

제 20 단원 - 학습문제

1. 에베소서 6:1-4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야 하나?

2. 침례 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4.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은 전신갑주의 예에서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가?

5. 복음이 신발에 비유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6. 믿음이 방패에 비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7. 구원의 투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8.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칼이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SECTION 20 - QUESTIONS

1. What are the responsibilities of parents and children towards each other, as mentioned by Paul in Ephesians 6:1-4?

2. Why does a baptised person need the whole armour of God?

3. What does the "Girdle of Truth" stand for?

4. What part of the armour represents God's righteous ways dwelling in us?

5. Why is the Gospel associated with the Shoes?

6. Why is Faith likened to a sh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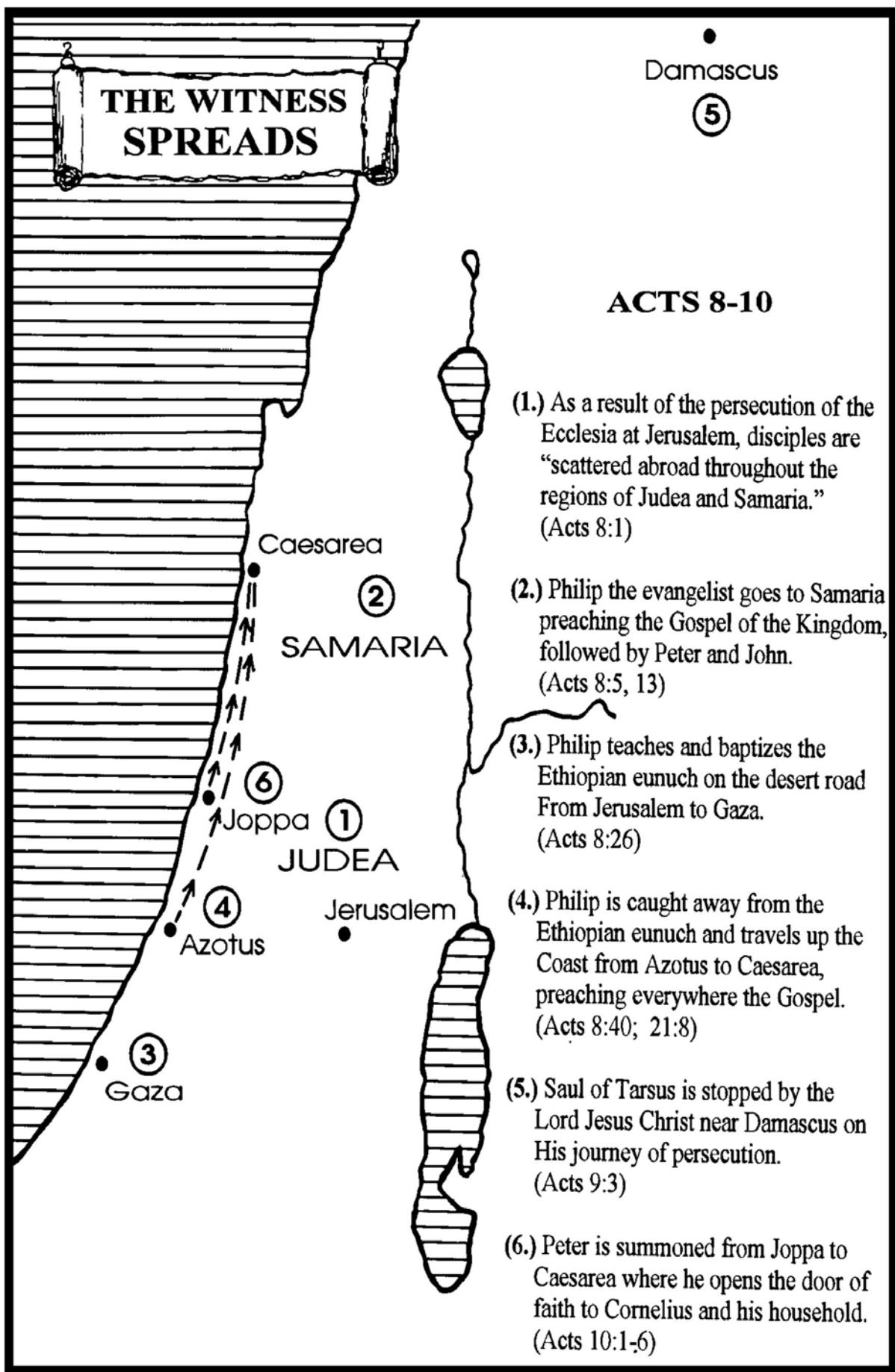
7. What does the "Helmet of Salvation" stand f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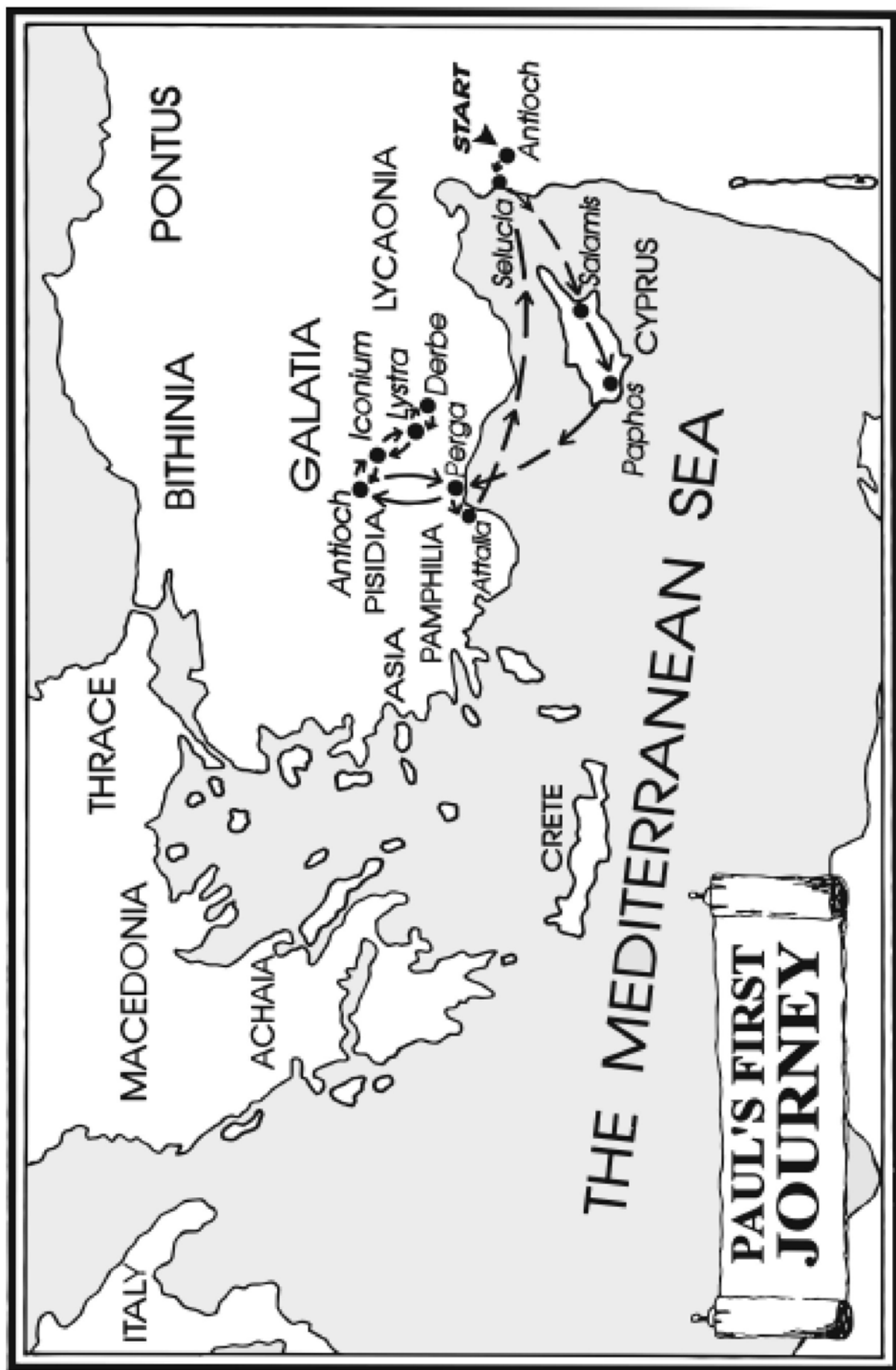
8. Why is the Word of God described as the "sword of the Spirit"?

Append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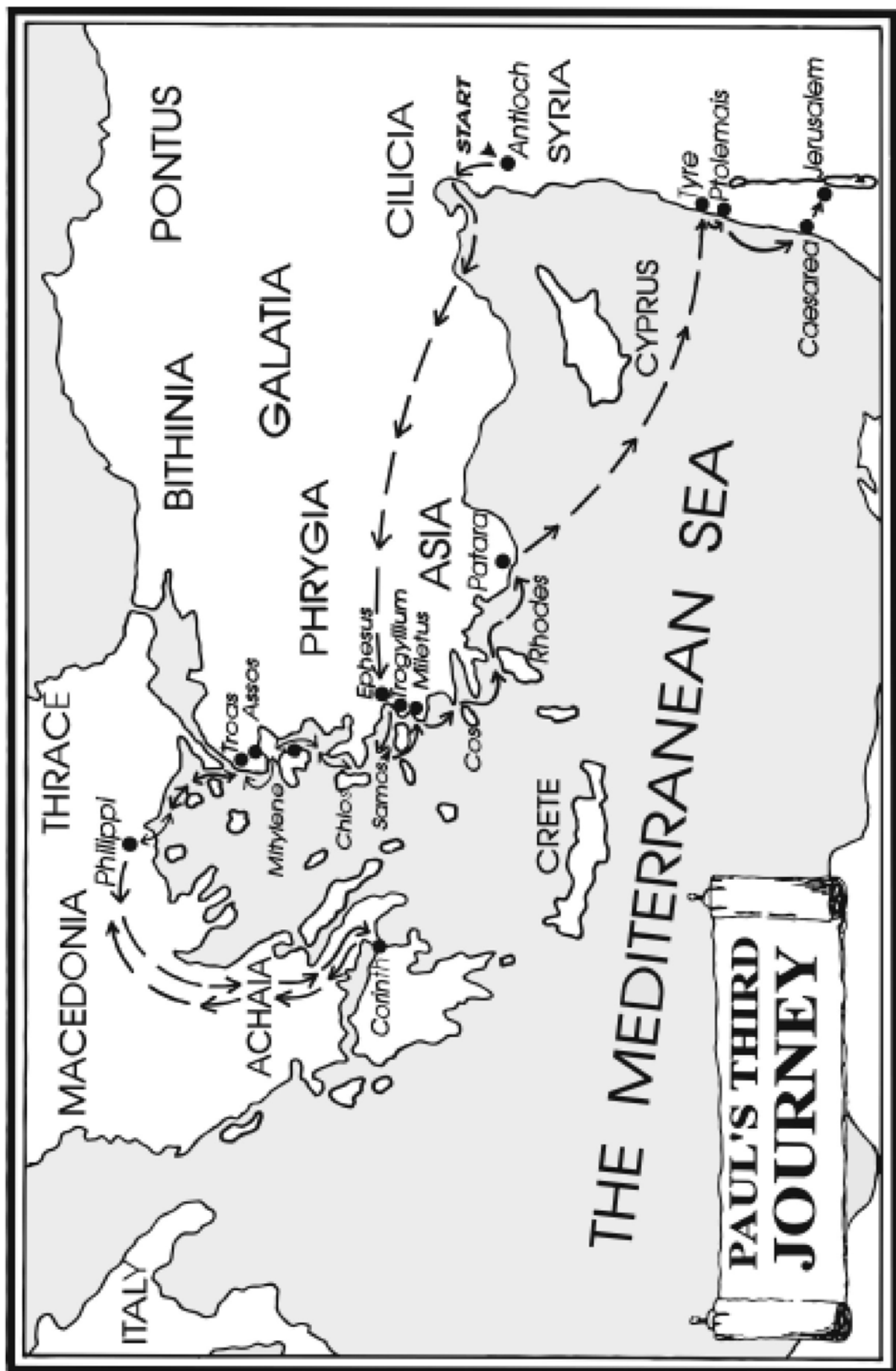
CHRONOLOGY OF ACTS OF THE APOSTLES

AD		AD	
Emperor Tiberius	30	Emperor Claudius	51
	Crucifixion & Resurrection Pentecost - Acts 2		Paul embarks on 2nd Journey Syria and Cilicia - Acts 15:41
	31		52
	Healing of Lame Man - Acts 3		Lycaonia - Acts 16:1-5
	Ecclesia grows despite opposition - Acts 4 & 5		Galatia - Acts 16:6
	32		53
Witness & Martyrdom of Stephen - Acts 6 & 7	Macedonia - Acts 16:11-17:14		
33	54		
Truth spreads to Samaria and an Ethiopian - Acts 8	Athens - Acts 17:15-34		
34	55		
	18 months in Corinth - Acts 18:1-17		
35	56		
Conversion of Paul - Acts 9	Return to Jerusalem then Antioch Acts 18:18-22		
36			
Retirement of Paul into Arabia - Gal 1:15-18	Paul embarks on 3rd Journey Galatia & Phrygia - Acts 18:23		
37	3 years in Ephesus - Acts 19		
38	58		
Paul's first visit to Jerusalem and return to Tarsus - Acts 9:26-30	Macedonia & Greece - Acts 20:1-5		
39	Return to Jerusalem - Acts 20:6-21:18		
	59		
40	Arrest at Jerusalem - Acts 21:27-34		
	Address to the Jews - Acts 22 Before the Sanhedrin - Acts 23:1-10		
41	60		
	Sent to Caesarea - Acts 23:11-35		
42	Hearing before Felix Acts 24 2 years at Caesarea		
Truth spreads to Antioch - Acts 11:19-21	61		
43	Hearing before Festus & Agrippa - Acts 25 & 26		
Barnabas sent to Antioch - Acts 11:22-24	62		
44	Paul's Journey to Rome - Acts 27 & 28		
Barnabas brings Paul to Antioch - Acts 11:25-26	2 years in a hired house at Rome - Acts 28:30-31		
45	63		
Famine relief taken by Barnabas and Paul to Jerusalem - Acts 11:27-30	Trial & Acquital		
46			
James executed ; Peter imprisoned and released - Acts 12	64		
47			
Paul embarks on 1st Journey to Cyprus, Galatia and Lycaonia - Acts 13 & 14	65		
48			
	66		
49			
Return to Antioch - Acts 14:26- 28	67		
50	Imprisoned at Rome - 2 Tim 4 2nd trial and execution		
Conference at Jerusalem - Acts 15	68		
	69		
	70		
	Fall of Jerusalem		











THE SPIRITUAL WARRIOR

Ephesians 6:10-20; Isaiah 59:16-17

SWORD OF THE SPIRIT— THE WORD OF GOD

The sword (Greek—Machaira, a short sword) was the only OFFENSIVE piece of armour worn by the warrior. Being a "short sword", it could only be used in close combat. It demonstrates that we must be proficient in our handling of the Word of God — 2 Cor. 10:4-5; Heb. 4:12.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The Breastplate (Greek—Thorax) consisted of two parts; one covering the front of the body and the other the back. It guarded the heart and other vital organs frequently regarded as the seat of the EMOTIONS. It represents RIGHTEOUSNESS, and the two parts of the Breastplate answer to the two aspects of Righteousness:—

1. **Imputed** Romans 3:22-26; Psalms 32:1-2.
2. **Manifested** (in faith and love) 1 Thess. 5:8.

LOINS GIRDED WITH TRUTH

The Girdle (Greek—Zoma) went about the loins and served to brace the armour tight to the body. It represents TRUTH, which is firstly a MENTAL condition (1 Peter 1:13) and is essentially the foundation upon which our spiritual warfare is based—John 18:37.

FEET SHOD WITH THE GOSPEL OF PEACE

This illustrates the TRUTH IN ACTION. It is reminiscent of Isaiah 52:7, which Paul quotes in Romans 10:15.

HELMET OF SALVATION

The Helmet (Greek-Peri-kephalaia, from peri "around" and kephale "the head"). In Thess. 5:8, it is styled the HOPE of Salvation. Paul states in Romans 8:24-25, that we are SAVED by THE HOPE.



SHIELD OF FAITH

The Shield (Greek—Thureos) was a large oblong shield used for heavy combat. It covered the whole forepart of the body, and being constructed of wood covered with hide, was particularly suitable for extinguishing "fiery darts" fired by the wicked. This symbol represents the TRIAL OF FAITH which each saint must endure before his character can be perfected (1 Peter 1:7).

"PUT ON THE WHOLE ARMOUR OF GOD"